

2025 김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김덕평과 김제 동학농민군의 활동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30′	[개회식] 사회: 홍성근 김제시민의신문 편집국장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14:00-14:30	30′	[기조강연]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 강연_ 신영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14:30-14:55	25′	[주제발표1] 금구원평집회와 김덕명 금구대접주의 활동 발표_ 김기성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연구원
14:55-15:20	25′	[주제발표2] 원평집강소를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민주주의 실현 발표_ 배향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15:20-15:30	10′	휴 식
15:30-15:55	25′	[주제발표3]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유족 증언 발표_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15:55-16:20	25′	[주제발표4]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 김덕명 관련 유적지 중심으로 - 발표_ 최고원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상임이사
16:20-16:30	10′	휴 식
16:30-18:00	90′	[종합토론] 좌장: 신영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정성미 원광대학교 교수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박정민 전북대학교 교수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김덕명과 김제 동학농민군의 활동



차례

환영사 / 6

축사 / 8

인사말 / 10

[기조강연]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 | 신영우 13

1. 문제를 보는 시각 / 14
2. 금구 원평의 동학집회 / 15
3. 금구현 수류면 원평과 전봉준 / 16
4. 동학농민혁명에서 절박했던 원평전투 / 18
5. 동학농민혁명에서 격하된 금구 원평의 실상 / 22

[주제발표1]

금구원평집회와 김덕명 금구대접주의 활동 | 김기성 23

1. 머리말 / 24
 2. 김덕명의 가계와 금구 원평 지역의 특징 / 26
 3. 동학교단의 분화와 김덕명의 위치 / 29
 4. 일본군의 초멸작전과 금구 원평 / 34
 5. 결론 / 36
- 토론문 / 38

[주제발표2]

원평집강소를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민주주의 실현 | 배항섭 ————— 41

1. 들어가는 말 / 42
2. 동학농민혁명과 원평 / 43
3. 원평집강소의 의미 : 집강소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50
4. 나가는 말 / 56
- 토론문 / 59

[주제발표3]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유족 증언 | 이병규 ————— 63

1. 머리말 / 64
2.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 / 64
3. 유족 증언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 / 77
4. 맺음말 / 80
- 토론문 / 81

[주제발표4]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김덕명 장군 관련 유적지를 중심으로- | 최고원 ————— 83

1. 머리말 / 84
2. 김덕명 관련 유적지 현황 / 84
3. 김덕명 장군 관련 중요 유적지 활용 방안 / 95
4. 맺음말 / 97
- 토론문 / 98

대동세상을 여는 원평집강소에서 김제학술세미나를 열며 ...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장 정성주입니다.

막바지 황금들녘이 아름다운 11월의 가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이어져 기미년 3.1만세운동으로 꽃 피워진
우리의 대동정신은 자랑스러운 김제의 정신이며 뿌리입니다.

이 땅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계승하고 선양해야 할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깃든 원평집강소에서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가을에
우리 김제의 역사를 연구하고 토론하며 성과를 나누는
학술세미나가 열리니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민중의 집강소에서
오늘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료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학술연구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1월 6일

김제시장 정 성 주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숭고한 정신이 김제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의장 서백현입니다.

‘김덕명과 김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학술 세미나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가을의 청명한 기운처럼 우리의 역사를 깊이 탐구하려는 학구열이 오늘 자리를 더욱 빛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제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와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우리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가치를 깊이 있게 재조명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제는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거점이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도 이미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그 가치를 조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우리 김제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을 확인하고, 금구원평집회와 김덕명 금구대접주의 활동을 통해 당시 지도자의 숭고한 정신을 만나며 김제시의 역사를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김제의 이야기를 소홀히 하면 결국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굴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기록해야 우리 김제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김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지혜와 열정이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이 우리 김제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한 논의가 김제를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도시로 이끌어 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6일

김제시의회 의장 서백현

김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위상이 더 높아지길 ...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신순철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31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김덕명과 김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주제로 김제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그리고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1994년 100주년을 기점으로 사회적 인식이 크게 전환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단초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되어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매해 5월 11일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인 집강소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금구원평집회와 농민군 총참모였던 김덕명 금구대접주의 활동을 통해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의의를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조강연을 비롯해 주제발표를 준비해 주신 네 분의 연구자 선생님들과 종합토론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네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김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위상이 더 높아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정성주 김제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김왕배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6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신 순 철

기조강연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

신영우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1. 문제를 보는 시각

국사 교과서의 한국 근대사 부분은 '구국운동과 근대국가 수립운동'이라는 제목 아래 서술하고 있다.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을 서술하는 제목에서는 '농민들, 새로운 사회를 꿈꾸다'라는 더 상징성 높은 제목을 붙였다. 이러한 내용은 모든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국민의 역사 이해에 기초가 되고 있다. 농민들의 변혁운동이 외세로 인해 막히게 된 후 구국운동을 펼쳤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농민들의 이상은 우연히 나오지 않았다. 조선 사회의 내부에서만 생겨난 것도 아니다. 오랜 제도의 억압 속에서 벗어나려는 혁신적인 지식인과 농민들이 함께 노력했고, 시기는 달랐지만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한 시대의 변화는 사회와 경제뿐 아니라 문화 수준에 비례해서 나타난다. 1893년 계사년과 1894년 갑오년의 일련의 변혁운동은 사회 배경 위에서 가능했다.

근대 전환 과정에서 김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동학의 역사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당시 금구원 원평 일대가 갖는 역할 때문이다. 그러나 금구 원평과 관련한 동학농민혁명사 사료는 매우 적다. 전봉준과 김개남에 비해 김덕명에 관한 자료도 드문 편이다. 일부 자료도 단편적이거나 해석하기 어렵고 명확하지 않다. 그에 따라 연구 실적도 적다.

보은 장내리집회를 전해주는 『취어』와 같이 원평집회에 관한 기록이 있다면 원평집회에 관한 평가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원평집회는 동학교주 최시형의 영향이 없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김연국 손천민 황하일 등 보은에서 활약하던 동학교단의 고위 지도자들과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서장옥(徐章玉, 1853~1900)과 연결된 구체적인 사정도 알려진 바가 없다. 전해지는 말처럼 적극적인 변혁을 주장한 서장옥이 김덕명 등 전라도의 동학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원평집회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성격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대접주 김덕명이 원평집회를 이끌었던 방식과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다.

전봉준이 원평집회에 참여했던 기록이 나온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집회와 관련을 맺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전봉준이 고부민의 항쟁과 동학농민군 봉기 이후에 보여준 지도력, 그리고 『전봉준 공초』에서 나타나는 상황 인식과 동학농민군 지도 방향을 보면 원평집회에서 가졌을 역할을 생각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동학의 역사는 일정한 부분에서 시대정신을 보여준다. 사회 불평등의 구조인 신분 차별 제도를 부정하고,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강조했으며,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돕는 세상을 지향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수많은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장 봉기해서 시작하였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재봉기한 후 커다란 희생을 내고 종료하였다. 우리 사회의 근대 전환과 사회 운영의 방향은 동학농민

혁명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노력도 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전개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한 지역이 갖는 역사적 위상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찾아야 한다.

2. 금구 원평의 동학 집회

1893년 봄에는 동학도들이 원평에 대규모로 집결해서 집회를 열었고, 1894년 11월 25일에는 원평 일대에서 커다란 전투가 벌어졌다. 금구는 대접주 김덕명(金德明, 1845-1895)의 근거지인 동시에 전봉준(全奉準, 1855~1895)이 갑오년 이전부터 활동하던 곳이었다.

금구를 중심으로 한 김제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원평집회와 원평 전투, 그리고 원평에서 활동한 김덕명과 전봉준에 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원평집회에 관한 사료는 소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 금구와 관련한 김덕명의 구체적인 기록이나 원평을 주요 근거지로 삼았던 전봉준과 관련한 자세한 기록은 더욱 찾을 수 없다.

원평집회와 같은 시기에 열렸던 보은 장내리집회에 관해서는 『취어』 등 여러 자료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동학도들이 장내리로 집결하는 모습과 규모를 알 수 있었고, 돌성을 축조해서 집회를 열었다거나 밤이 되면 인근 마을에서 분산 유숙했던 사정을 알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으로 장내리집회의 목적을 깃발에 쓴 ‘보국안민’ ‘척왜양창의’의 주장이나 집회의 대표가 선무사 어윤중과 만나서 제시한 요구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호남의 동학도들이 포교의 공인뿐 아니라 정치 목적을 내세웠던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핵심이 정권을 장악했던 ‘민씨축출사(閔氏逐出事)’에 있었던 것도 전해주고 있다. 원평집회 관련 기록에서는 이런 집회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같은 성격의 문서는 당시 일정하게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이유가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쓴 적이 있다.

“조선왕조에서는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면 각급 관아에서 자세한 기록을 작성했다. 지방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먼저 해당 지방관이 조사해서 감영이나 병영에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것이 첫 번째 기록이 된다. 다음에는 감영이나 병영에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장계를 조정에 올려서 처리 방안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것이 두 번째 공식 기록이 된다. 해당 지방관이나 감영과 병영에서 그 사건을 국왕에게 보고하면 이에 관해 대신들과 논의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은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그리고 실록에 기재가 된다. 또 안핵사 등을 파견해서 조사한 것을 기록해서 보고한 문서와 포도청에서 심문한 자료를 기록한 문서 등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주요 사건은 반복해서 여러 형태의 자료로 남게 된다.”

원평집회와 관련한 이런 성격의 보고문서는 당시 작성되었을 것이다. 금구현에서 만든 보고문서는 전라감영에 올라갔을 것이고, 감영에서 정부에 올린 장계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정원일기』 1893년 3월 21일자에 다음과 같은 고종이 말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다.

“호남에서도 금구(金溝)에 비도들이 가장 많이 산다고 하는데, 전주 감영에서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먼저 그 소굴을 없애서 변고를 다스리는 방도로 삼으라.” 하니, 김문현이 아뢰기를, “거리가 30리쯤 됩니다만, 금구 원평(院坪)은 과연 도당들의 집결지라고 합니다. 삼가 성상의 하교대로 엄히 다스리겠습니다.”

고종이 금구 원평이 동학의 소굴인 것을 알고 있었고, 전주 감사 김문현이 감영에서 30리쯤 거리에 원평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 금구현 관아와 전라 감영에서 보고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결국 장계와 같은 원평집회의 실상을 보고한 문서는 찾지 못하고 있다.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이나 『고종실록』과 같은 조선왕조 관찬기록에 나온 일부만 알 수 있고, 자세한 금구의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원평집회는 선무사 어윤중이 도착하기 전에 해산했다. 그래서 국왕에게 올리는 장계나 정부에 보고하는 기록에 나오는 집회의 실상이나 주도세력의 인물에 관한 정보가 없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관아에서 문서로 그 실상을 기록했을 것이지만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대규모 무장 세력이 지방 관아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정부와 국왕의 권위에 도전한 일대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예비 또는 전조 단계가 있는 것이다. 충청도 보은의 장내리집회와 전라도 금구의 원평집회는 동학농민혁명 전 단계에서 대규모 봉기의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원평집회는 정부 관리의 조세 수탈 등 압제에 항거하고 강화도조약 이후 외세 침략을 경계하는 민간의 우려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장내리집회의 방향도 포교의 공인을 넘어서 정치운동으로 나아가도록 움직였다. 호남 취당이 앞장섰다면 원평집회에서 보낸 인물이 주도했을 것이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전봉준이었을 것이다.

3. 금구현 수류면 원평과 전봉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성격 규명에 전봉준 장군이 갖는 의미는 더 논할 필요가 없다. 특정 인물은 주요 역사 사건에서 상징처럼 말해진다. 이순신과 임진왜란, 조지 워싱턴과 미국 독립혁명, 웰링턴과 워털루전투, 제갈량과 적벽대전, 로버트 리와 게티즈버그전투, 손문과 신해혁명 등

전봉준이 동학도와 함께 했던 활약은 삼례집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삼례에는 동학교단의 고위 지도자 손천민이 왔지만, 집회의 주도자들은 교단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시기부터 전라도의 동학도들은 교단의 단일 노선을 따르는 상황이 아니었다.

동학교단에서 보은 장내리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금구 원평에 모인 동학도들은 지역 세력을 결집하였다. 삼례집회의 지도부는 원평집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중심에 전봉준이 위치한 것이다. 원평집회에서 장내리로 간 사람들은 집회의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한 것은 여러 자료에 나와 있다. 장내리집회의 해산에 이어 원평집회도 해산하였는데, 이 단계까지는 동학교단이 동학도들의 활동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구 원평의 동학 지도자는 김덕명이었다. 김덕명과 전봉준 관계는 가까운 인척으로 연결된다. 녀 녀했던 김덕명의 집에서 가까운 인근에 살면서 자주 출입했던 소년 전봉준이 장성하여 대접주 김덕명의 영향 아래 원평을 거점으로 동학 조직과 함께 활동하게 된다. 원평은 집회 이전부터 전봉준이라는 인물을 성장시킨 근거지였던 것이다.

금구는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와 접경한 작은 군현이었다. 원평은 금구읍에서 남쪽으로 가면 산줄기 아래에서 들판과 만나는 지점에 있다. 원평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고개를 지나면 전주성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그 길에서는 완산 칠봉을 거쳐 풍남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원평에 모였던 동학도가 보은 장내리로 가거나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 당시 전주성에 입성하던 주요 길이었을 것이다.

전봉준이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행군한 노선과 전투지로 선정한 장소는 평소에 지형을 잘 알던 장소였다. 금구 원평과 태인 황새마을, 그리고 황토현은 직선으로 이어진다. 이 선의 인근에 조소리 전봉준의 집이 있었고, “전봉준의 모주(謀主) 또는 고굉(股肱)으로서 활약”한 최경선의 고택이 있었다.

원평은 동학도의 대규모 집회와 동학농민군 주둔지로 적합한 지역이었다. 큰 장이 서던 마을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는 산간 지역의 산물과 김제 들판에서 기르는 농산물 그리고 서해안의 어류가 들어왔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장터에는 주막이 있었다.

1894년에 여러 지역을 행군하던 동학농민군은 장터를 많이 찾았다. 수많은 사람이 유숙하거나 식사 제공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추운 날씨가 오면 두툼한 옷도 마련할 수 있었다. 주민이 많은 읍내로 들어가면 편리할 수 있지만 관아와 관속들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장터에 몰려가서 머물고 있었다.

18세기 후반 금구현의 호구 총수는 2,544호에 주민은 9,242명이었는데 원평이 있는 수류면은 427호에 주민은 1,590명인 작은 면이었다. 수류면은 반곡리, 산정리, 거야리, 만흥리, 송내리, 용회동리, 용화동, 대항동, 안양동, 신흥리, 용성리, 용복리, 검암리, 사점리, 화리동, 노적리, 소룡동, 구미동, 원평리, 금암리, 명봉리의 21마을이 있었다. 원평집회에 모인 동학도가 저녁이 되면 분산해서 밤을 지냈던 마을들이었을 것이다.

원평장터 옆으로 모악산 서쪽에서 흘러 내려와 김제 죽산을 거쳐 동진강에 합류하는 원평천이 흐른다. 집회에 참여한 동학도들이 모였던 곳은 그 냇가였다고 한다. 최순식 선생은 “깡변에 모인 동학도들이 양손에 막대기를 들고 함께 주문을 외우고 나면 일제히 막대기를 들고 부딪쳐서 그 소리가 진동했다.”고 옛 어른에게 들은 일화를 증언한 바가 있다.

보은 장내리집회에서 동학도들이 돌성을 쌓고 집회를 열었을 때와 비슷한 내용이다. 2만 명 이상의 동학도가 모였던 장내리도 삼가천이 흐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날 한 장소에 모여 있으면 필요한 것이 많다. 밥을 지으려고 해도 양식과 함께 물이 있어야 한다. 또 손을 씻거나 세면을 할 때도 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천가 장소를 선택한 것이다.

동진강에는 정읍천과 고부천도 합류한다. 동진강은 물론 원평천과 고부천도 지금과 같은 하천이 아니고 구불구불 물길이 가는 대로 흘러갔지만, 1930년대 이후 직선화 공사로 그 모습이 달라졌다. 모악산과 내장산 그리고 방장산 서부 일대 군현인 금구 김제 태인 정읍 고부 부안 고창 홍덕 무장이 동학농민군이 봉기했던 주요 지역이다. 여기서 전봉준이 앞장서서 김개남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등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며 나라를 일신시키는 변혁운동을 시작하였다.

4. 동학농민혁명에서 절박했던 원평전투

동학농민군이 1894년 봄에 봉기할 때 원평에서 격렬한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양호초토사 홍계훈의 4월 보고를 보면 충청도 정산에 사는 김영배(金永培)라는 인물을 감영에서 붙잡았는데 금구 원평으로 가서 동학당에 합류한 동학도였다고 했다. 원평은 동학의 주요 활동 근거지였고, 다른 지역의 동학도가 오고 갔던 지역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소위 동학도는 금구 수류면에 가장 많다는 소문이 없지 않으며 보부상들이 동학당으로 일컬어지는 그 면민 68명을 붙잡아들었다.”라고 하였다. 김덕명의 세거지면서 전봉준의 근거지가 된 수류면의 원평 일대를 보는 보부상과 지방 관아의 시각이 들어 있다.

원평을 무대로 활약한 대접주 김덕명은 태인에서 붙잡혀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금구 지방에서 무리를 모아 관고(官庫)의 군물(軍物)을 약탈하고 민간의 돈과 곡식을 빼앗았으며, 관정(官庭)이나 마을에서 소요를 일으켜 더욱 혼란스럽게 하여 분수와 의리를 범하는 것이 끝이 없었다.”고 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할 때 김덕명 세력이 관아로 들어가서 무기를 탈취하고, 군수전과 군수미를 민간에서 걷어 사용했다는 것이다.

1894년 9월 중순 전봉준 장군이 재봉기를 결정한 후에 원평은 다시 격동하였다. 재봉기 집결지는 토지가 넓고 요충지인 삼례로 정했다. 전봉준은 이때 태인에서 출발해서 금구를 거쳐 삼례로 갔다.

고부 조소리의 옛집은 불타버려서 태인의 외산면 동곡(東谷)에 살고 있다가 재봉기를 결정한 후 동학농민군을 모으면서 삼례로 간 것이다.

일본공사 우치다 사다쓰지(內田定槌)가 전봉준 등을 재판할 때 회심(會審)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보고하는 중에 원평이 나온다. “9월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서 모병(募兵) 본부를 이곳에 정하였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전봉준공초』의 「초초 문목」을 보면 전라우도에서 집결한 사람이 4천여 명이었다. 태인과 금구에서 모인 사람이 그 규모였고, 삼례에서 출발하여 논산에 도착했을 때는 1만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충청도 논산의 집결지에서는 동학교단의 기포령에 따라 통령 손병희가 이끌고 온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의 동학농민군이 합류하였다. 이 수도 1만여 명이 넘는 규모였다. 손병희와 함께 충청도에서 온 동학농민군은 뒤에 전라도를 떠나 충청도 영동과 보은으로 갈 때까지 1만여 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군 장교가 복실 숙영지를 목격하고 “동학도 약 1만 명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각기 몸을 녹이고 있었다.”고 그 수를 기록하고 있다. 모두 2만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논산에 모여서 우금치를 공격한 것이다.

전봉준은 “공주 감영은 산이 가로막히고 하천을 두르고 있어 지리가 형승(形勝)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웅거하여 굳게 지키기를 도모하면 일본 병사들이 용이하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므로 공주에 들어가 일본 병사에게 격문을 전하여 서로 버티고자 하였더니, 일본 병사들이 먼저 공주를 웅거(雄據)하였으니”라고 하였다.

전봉준이나 손병희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고위 지도자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니었다. 무장이 우월한 일본군이 고지를 지키고 있는데 아래서 올라가며 공격하는 것은 무리였다. 더구나 추운 겨울이라서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풀도 없어서 몸을 가릴 데도 없었다.

방어군의 주력인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서로군은 소수였으나 오랜 군 생활을 했던 병사들로 구성되었다. 우금치를 방어하던 경군 통위영과 경리청 병대도 신식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정면공격은 불리했다.

11월 9일 관군의 전투 기록은 처절했다. “몇만 명 되는 비류의 무리가 40~50리를 연이어 에워싸서 길이 있으면 빼앗고 높은 봉우리는 다투어 차지하여 동쪽에서 소리 지르다가 서쪽으로 달아나고 왼쪽에서 번쩍하다가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면서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며 죽을 각오로 먼저 산에 올라” 왔다. 죽음을 무릅쓰고 공주 남쪽의 여러 산봉우리를 공격하던 동학농민군은 고지에 진을 친 일본군과 경군에게 접근하다가 많은 수가 쓰러졌다.

『전봉준공초』에는 “이차 접전 후 만여 명 군병을 점고한즉 남은 자가 불과 삼천여 명이요 그후 또 이차 접전 후 점고한즉 불과 오백여 명”이라고 했다. 우금치전투가 4차례 커다란 공격으로 진행되었다는 증언이다. 각 공격에서 작은 전투는 여러 차례였다. 봉황산과 하고개를 공격하던 손병희가 지휘

하던 동학농민군도 경병과 일본군에 맞서 총을 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진하여 육박혈전을 10여 합이나 했지만 일방적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우금치전투는 전투 같지 않은 전투였다.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고 수많은 총이 발사되는 싸움터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면 쌍방이 서로 총탄에 맞아 희생자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경군과 일본군의 전사자가 나오지 않았다. 경군 보고에는 경리청 세 병사가 왼쪽 팔과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 탄환을 맞았으나 모두 치료했다고 하였다. 일본군은 병사 한 사람이 오른쪽 정강이에 부상을 입은 정도였다.

우금치전투에서 퇴각한 동학농민군은 논산에 재집결하였다. 11월 14일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중로군이 연산 관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즉각 연산에 가서 일본군과 싸웠다. 이때는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전투를 벌였지만 무기의 열세로 인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논산에서는 11월 15일에 일본군과 경군 병대가 공주에서 접근하여 공격해 왔다. 이것도 막지 못하고 전주성으로 급급히 들어갔다.

전주성도 동학농민군에게 안전하지 않았다. 추격하는 일본군은 서로군과 중로군이 합세해서 더욱 강력해졌다.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 소좌도 경군 병대를 장악해서 선봉 이규태를 비롯해서 경리청과 장위영 병대는 그 지휘를 따라야 했다. 경군 병력도 우금치전투에 참여했던 병대에 이두황의 장위병이 합세해서 더 많아졌다. 일본군 장교가 지휘하는 교도중대도 전투와 수색에서 숙달되었고, 여기에 강화도의 심영병이 전라도로 들어왔다.

우금치전투의 영향은 지방 관아에 미쳐 여러 군현에서 관아의 기능이 되살아났다. 각 군현의 향리들이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봉기 가담자를 색출해서 체포하였다. 동시에 각지에 민보군이 결성되어 진압군의 임무를 줄여주었다.

전주는 동학농민군이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그래서 11월 23일 전주성을 빠져나와 금구현 원평으로 향했다. 원평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김덕명과 전봉준의 주요 활동 근거지였던 원평에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동학농민군을 재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패전 소식이 전해진 원평 일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없었다.

11월 25일 원평에 머문 지 3일째가 되자 일본군 특무조장 스즈키 마사키치(鈴木政吉)가 이끈 일본군 중로군 지대 33명과 교도중대가 기습해 왔다. 동학농민군은 원평천 너머 장터에서 구미란 마을, 그리고 용호리에 이르는 산줄기에 가득 올라가 저항하였다. 일본군과 교도중대가 사면을 포위하고 접근해서 공격하였다.

원평전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우세한 무기를 가진 일본군과 교도 중대의 공격을 긴 시간 동안 막아낸 것을 보면 필사적으로 대항한 것을 알 수 있다. 원평에 모인 동학농민군의 수도 많았지만 편제를 갖춘 주력이 재집결해서 싸웠다. 하지만 낮은 야산에 올라가서

는 오래 맞설 수 없었다. 절박했던 동학농민군은 전라도에 돌아와서 맞이한 첫 전투에서 밀려나 태인 방향으로 후퇴하였다.

원평에서 일본군은 적지 않은 노획품을 얻었다. 무기는 신식 소총인 회룡총 10자루와 화승총 60자루, 납탄 7섬, 화약 5괘짝, 자포 10좌, 칼과 창 200자루였다. 쌀도 500섬이나 찾아냈다. 그리고 돈 3,000냥과 면포 10동, 소 2마리와 말 11필을 빼앗았다. 쇠가죽 10장과 호랑이 가죽 1령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 모든 노획품을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지대가 탈취하였다. 일본군은 이런 노획물을 가져가느라고 태인으로 추격하지도 않았다.

일본군은 가는 지역마다 마을을 불에 태우는 등 참혹하게 보복을 가하였다. 그리 넓지 않은 원평은 더욱 심했다. 함께 진압에 나선 선봉 이규태가 “원평 장터의 가게와 여염집이 잇달아 40여 집이 불에 탔고, 비류가 저장해 둔 곡식 몇백 섬과 민가의 물건이 모조리 불에 타서 보기에 극히 근심스럽고 참담”하다고 보고하였다.

11월 25일 교도중대장 이진호의 첩보는 진압군이 금구에서 원평에 도착해서 “동도 1만여 명과 접전했는데, 손시(巽時)부터 신시(申時, 오후 3~5시)까지 적도 37명을 사살하여 크게 격파”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획득한 군물은 모두 일본군이 가져갔고, 긴요하지 않은 물건은 모조리 불에 태웠다고 했다. 동학농민군을 공격한 교도중대와 일본군은 하나도 손상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일방적으로 동학농민군이 밀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평전투는 전봉준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절박하게 대응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쌍방이 가진 무기의 화력 차이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27일에 벌어진 태인전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일본군 특무조장 스즈키 마사키치가 이끈 중로군 지대 40명과 장위영 대관 윤희영과 이규식이 거느린 병력은 230명이었다. 장위병은 지원차 후속부대로 교도중대와 임무를 교대해서 태인으로 온 것이다. 성황산 고지에 있던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장위병이 군사를 네 갈래로 나누어 산에 오르면서 총을 쏘며 공격을 가하자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으로 흩어져 각자 도피하였다. 일본군이 태인 읍내에 보복 방화를 해서 700호에서 800호에 이르는 민가가 불에 타버렸다.

태인전투 이후 손병희가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전봉준과 헤어지고, 독자 행보를 해서 정읍을 거쳐 고부 백산까지 행군해 갔다. 그렇지만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고 장성을 거쳐 임실을 돌아 산줄기 사이를 택하는 회군길을 찾아냈다. 장수와 무주로 북상해서 충청도 보은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5. 동학농민혁명에서 격화된 금구 원평의 실상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고부민의 항쟁에서 시작하였다. 주자학을 국정 교학으로 가르친 왕조 정부에서 사교로 금지한 동학도의 난으로 탄압을 가하자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무장에서 대접주 손화중을 설득하고, 김개남과 김덕명이 합세하여 1차 봉기를 전개하였다. 동학농민군의 봉기에서 주요 역할을 한 군현으로 고부군 무장현 금구현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태인현 부안현 정읍현 흥덕현 고창현 김제군 등도 중요했다. 2차 봉기에서도 이 지역에서 나온 동학농민군이 핵심을 이룬다. 약 4천 명이 전봉준과 생사를 같이한 동지였다.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는 「동학당 정토략기」에서 진압 관련 소회를 말하면서 “현(縣)의 수효가 매우 과다하다. 경제적이지 못한 것 같으니 오히려 병합하는 것이 득책일 것이리라.”고 했다. 일본이 한국 지방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동학농민군의 주요 근거지였던 군현은 폐지하였다. 그로 인해 고부 무장 금구와 같은 군현은 면 단위로 위축되었다. 행정구역이 사라진 결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지역 정체성이 흐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차지하는 금구 원평의 역할을 생각하면 현재의 상태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이는 고부와 무장 등지도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보이지도 않는다. 관련 사료를 발굴하고, 그 위상을 되살리는 연구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금구원평집회와 김덕명 금구대접주의 활동

김기성 |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연구원

1. 머리말

19세기 말 조선은 개항 이후 자본주의 세계 체제 속에서 정치·경제·사상 전반의 구조적 변동을 겪고 있었다. 이는 기존 사회질서의 균열을 촉진하였고, 농민층은 근대를 향한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화의 파고를 직접적으로 마주해야 했다. 위기와 그에 따른 개혁은 필연적으로 조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른 위기 인식 속에서 새로운 사상적 결집을 필요로 했다. 바로 이 시기에 동학(東學)이 등장하여 민중의 삶과 의식을 통합하는 사상적·조직적 틀을 제공하였다.

동학농민혁명(1894)은 이와 같은 사회 구조적 모순과 사상적 변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폭발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지방 반란이 아니라, 봉건적 질서와 외세에 대한 저항을 표명하고, 민중 스스로 정치적 주체성을 선언한 민중운동이었다. 동학농민군의 구호인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제폭구민(除暴救民)’은 당시 농민들이 인식한 시대적 과제를 함축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행동이 결합된 운동이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대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동학농민혁명이 단일한 지도 중심의 봉기가 아니라 교세의 확장과 내부 분열, 그리고 사상적 재편을 거쳐 형성된 복합적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동학은 1대 교주 최제우와 2대 교주 최시형이 확립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전국적 신앙 결사체로 성장하였으나, 교세 확장은 동시에 조직의 분화가 일어났다. 1893년의 보은집회와 금구원평집회는 이러한 내부 구조의 긴장을 표면화시킨 사건으로, 종교적 신원운동이 정치적 개혁운동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단순히 ‘항쟁’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신앙공동체가 정치적 행위 주체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근대 전환기의 조선 사회의 특질들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은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근대사를 넘어서 한국사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등록된 연구 논저는 5,093건이다.

연구 분야도 세분화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자체에 대한 연구¹는 물론이고, 동학교단과 농민봉기의 관계²를 비롯하여 지역 단위의 연구³ 그리고 전봉준⁴을 포함하여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인물인 최

1 대표적으로 정창렬, 『甲午農民戰爭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조경달, 『이단의 민중반란』, 역사비평사, 2008; 신용하,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 일조각, 2016; 이영호, 『동학과 농민전쟁』, 해안, 2024 등이 있다.

2 이회근, 『東學敎團과 甲午農民蜂起』,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3 저서를 위주로 예를 들면 이이화 외, 『충청도 예산 동학농민혁명』, 모시는사람들, 2014; 채길순 외, 『인물로 본 주안 동학농민혁명과 동학정신』, 선인, 2023; 이이화 외, 『경상도 구미 동학농민혁명』, 모시는사람들, 2016; 이이화, 『경기도 수원 동학농민혁명』, 모시는사람들, 2017 등이 있다.

4 우윤,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창작과비평사, 1994.

시형⁵, 김개남⁶, 손화중⁷, 박인호⁸ 등 개인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공주 점거투쟁’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O/A 투쟁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⁹가 발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기도 하였다.¹⁰

동학농민혁명을 둘러싼 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김덕명(金德明)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그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지금까지 그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정성미의 연구가 유일하다.¹¹ 이러한 연구의 부족은 무엇보다도 관련 1차 사료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김덕명이 제2차 봉기 당시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학계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미는 기존에 확인 가능한 사료를 폭넓게 검토하여 김덕명의 가계와 생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하게 규명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연구는 김덕명이 동학교단의 분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였는지, 특히 그가 전봉준(全琫準) 계열의 접주로 활동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에 그치고 충분히 논증하지는 못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1890년대 동학교단은 지역과 노선에 따라 전봉준계·최시형계·김개남계로 분화되어 있었으며, 교세의 급속한 확장은 이러한 계열 간 긴장을 심화시켰다.¹² 김덕명의 활동 역시 이와 같은 교단의 분화 구조 속에서 파악할 때 그 역사적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동학당 회심전말(東學黨會審顛末)」에 따르면 당시 김덕명과 함께 동학교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총 61명이다. 이 가운데 사형은 5명으로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성두한 그리고 김덕명이다.¹³ 주목할 점은, 김덕명이 제2차 봉기 당시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5 이현희, 『해월 최시형의 사상과 갑진개화운동』, 모시는사람들, 2003; 박맹수, 「崔時亨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6 이병규, 「1894년 10~11월 錦山·珍山에서의 金開南과 日本軍의 활동」, 『전북사학』 26, 전북사학회, 2003; 이선아, 「호남의 동학과 개벽의 꿈-태인 유생 金箕範에서 동학접주 金開南으로」, 『동학학보』 62, 동학학회, 2022; 신영우, 「1894년 남원대도소의 9월 봉기론과 김개남군의 해산배경」, 『동학학보』 33, 동학학회, 2014; 박맹수, 「동학 대접주 김개남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한국계보연구』 14, 한국계보학회, 2024.

7 정성미,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손화중의 지역적 기반과 활동」, 『동학학보』 45, 동학학회, 2017; 최지선, 「全羅道 茂長 孫華仲包의 결성과 茂長起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5.

8 동학학회, 『내포동학혁명과 춘암 박인호』, 선인, 2024.

9 지수걸,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역사비평사, 2024.

10 유바다, 「농민전쟁을 넘어 어셈블리로-『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지수걸, 2024, 역사비평사) -」, 『동학농민혁명연구』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5; 권기하, 「“어셈블리”는 “농민전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지수걸,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남접 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역사비평사, 2024)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 『역사와현실』 135, 한국역사연구회, 2025; 도면희, 「혁명적 농민운동론으로부터 ‘A/O투쟁론’으로-지수걸 저,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역사비평사, 2024) 서평 -」, 『역사와책임』 15, 민족문제연구소, 2024; 김현주, 「어셈블리라는 렌즈로 본 동학군의 ‘1894년 의거’: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남접 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지수걸, 역사비평사, 2025)」, 『역사비평』 151, 역사비평사, 2025.

11 정성미, 「동학농민혁명지도자 김덕명의 활동과 원형」, 『동학학보』 49, 동학학회, 2018.

12 이회근, 박사학위 논문, 1997, 123쪽.

13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文書』(1), 「東學黨會審顛末」, 1895년 8월 2일(『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9권).

금구 원평 지역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 계열 농민군이 활동하던 핵심 거점으로, 제2차 봉기 이후 일본군의 초멸(剿滅) 작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공주전투 패배 후 동학농민군이 금구와 태인 일대로 퇴각하자 일본군은 재봉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 지역에 발생한 막대한 피해는 금구 원평이 단순한 전투지가 아니라 전봉준계 동학교도들의 조직적 기반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본군의 작전은 단순한 진압이 아니라 전봉준 계열 농민군의 재봉기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목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김덕명의 가계와 금구 원평 지역의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동학교단의 분화 속에서 김덕명의 위치와 역할을 분석하여 그가 전봉준계 접주로서 어떤 위상을 가졌는지를 규명한다. 셋째, 일본군과 관군의 진압 과정에서 금구 원평 지역이 입은 피해와 그 역사적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내부 구조의 지역적 단면을 밝히고자 한다.

2. 김덕명의 가계와 금구 원평 지역의 특징

1) 김덕명의 가계 및 전봉준과의 관계

김덕명의 가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자세하게 밝혀졌다.¹⁴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김덕명의 가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김덕명은 전라북도 김제군(金堤郡) 금구면(金溝面) 용계리(龍溪里) 출신으로, 언양김씨(彦陽金氏) 용암공파(龍巖公派)에 속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준상(峻相)이며, 자(字)는 덕명(德明), 호(號)는 용계(龍溪)였다. 부친은 김한기(金漢驥), 모친은 파평윤씨(坡平尹氏)로 이들 가문은 모두 금구 일대에서 세거하던 중농층의 향반(鄕班)이었다. 금구는 전주, 김제, 태인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과 시장경제가 발달한 지역이었다. 김덕명의 가문은 이러한 지역적 기반 위에서 농업과 곡물 유통에 관여하며 경제적 안정과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언양김씨 용암공파의 시조는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7남 김선(金鎋)으로, 그 19세손 김지(金輊)가 경기 장단(長湍)에서 금구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인 세거가 시작되었다. 이후 후손들이 금산면(金山面) 삼봉리(三峰里) 거야(巨野)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터를 잡고, 향리층과 교류하며 향반 세력으로 자리하였다. 모계 또한 지역의 유력 가문이었다. 모친 파평윤씨는 김제 백산면(白山面) 하서리(下西里)와 석교리(石橋里)에 집성촌을 형성한 명문으로, 조선 후기 금구·백산 일대에서 경제적 기반을 가진 세

14 정성미, 「동학농민혁명지도자 김덕명의 활동과 원평」, 『동학학보』 49, 동학학회, 2018.

력이었다.

그는 7세부터 훈장을 통해 교육을 받았고, 18세에 글공부를 마친 뒤 1886년 최시형을 만나 동학에 입도하였다. 전의이씨(全義李氏)와 결혼하였다가 사별하고 안동김씨(安東金氏)를 맞아들였다. 하지만 안동김씨 역시 사별하여 연안이씨(延安李氏)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전의이씨와 사이에 두 아들 홍구(洪九)와 창구(昌九)를 두었다. 동생 김인상(金寅相)은 형과 마찬가지로 동학농민혁명기에 활동하다가 1895년 1월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요컨대 김덕명의 가계는 전라도 금구 일대에서 세거하며 향반으로 성장한 중농층 가문으로, 경제적 기반과 학문적 교양, 그리고 지역적 연고망을 통해 당시 향촌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덕명과 전봉준 집안과의 관계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¹⁵ 전봉준과 김덕명의 교유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송정수의 연구에 따르면, 전봉준이 태인현(泰仁縣) 감산면(甘山面) 계봉리(桂峰里) 황새마을(鶴峯村)에 거주하던 시기, 부친 전기창(全基昶)과 함께 인근 금산면(金山面) 삼봉리(三峰里) 거야마을(巨也村)에 위치한 김덕명의 집에서 일정 기간 기식(寄食)하였다. 이 시기의 전봉준은 10대 후반의 청년이었으며, 김덕명은 그보다 약 10세 연상의 인물로 이미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신망을 확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이웃 간의 왕래를 넘어선 관계라고 할 수 있었다. 전봉준의 모계와 김덕명의 가문은 모두 언양김씨로, 두 사람은 외가를 통한 인척 관계였다. 이로 인해 전봉준의 가세가 기울던 시기에 김덕명의 집에서 머물게 된 것은 일시적 처사가 아니라, 가문 간의 유대에 기반한 장기적 교류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김덕명의 손자 김병일(金炳一)의 구술에 의하면, “전봉준은 인척 관계로 인해 김덕명의 집에서 식객으로 지냈으며, 김덕명은 젊은 전봉준을 각별히 돌보았다.”고 전한다.¹⁶

당시 금구 일대는 전라도 중부의 농업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전주(全州)·고부(古阜)·태인(泰仁)을 잇는 상업 네트워크의 결절점이었다. 김덕명의 가문은 이 지역에서 중농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향반(鄕班)이었다. 그는 부친 김한기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아 생활하였으며, 향리층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젊은 전봉준에게 김덕명은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후견인적 존재였다. 따라서 김덕명이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전봉준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게 된 것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인척이었다는 것과 동시에 오랜 기간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유가 지속되었다는 점¹⁷이 주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15 이하의 내용은 송정수, 「전봉준 장군의 유동생활과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전북사학』 39, 전북사학회, 2011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6 「농민군의 총참모였던 금구의 대접주 김덕명, 손자 병일」,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증언록).

17 송정수, 위의 논문, 203쪽.

2) 금구 원평 지역의 특징

금구(金溝) 원평(院坪) 지역은 동학 교조신원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전라도 교단의 지리적 중심이자 조직적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원평은 전라감영이 위치한 전주에서 남서쪽으로 약 40리 떨어진 교통의 요충지로, 인근 여러 고을에서 생산된 곡물과 면포, 목재 등 각종 산물이 이곳으로 집결하여 활발히 거래되던 상업 중심지였다. 이러한 경제적 활력과 인적 왕래의 빈번함은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다시 말해, 원평은 단순한 공간적 배경이 아니라, 교세 확장의 실질적 동력으로 작용한 결절점이었다.

또한 원평 일대는 모악산과 금산사로 대표되는 종교적·신앙적 권역에 속하였다. 금산사는 예로부터 새로운 구원을 모색하는 민중의 신앙적 중심지로 기능하였고, 모악산의 지형은 이합집산에 용이하여 신앙공동체가 결집하기 좋은 공간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금산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앙의 전통은 동학의 교세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원평이 단순한 교통 요지에 그치지 않고, 종교적 신념과 사회적 결속이 교차하는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교통망의 측면에서도 원평은 전라도 각지의 동학교도들이 충청도 보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 결집지이자 교류 거점이었다. 정읍, 고창, 영광, 나주, 함평, 무안, 순천 등 남서부 지역에서 출발한 교도들은 원평을 경유하여 상호 연락과 조직적 조정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곧 원평이 남부 교단 세력과 충청권 교단 세력을 연결하는 전략적 허브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구 원평은 전라도 교단의 내부 조직망이 외부의 교조신원운동과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자 정치·종교적 행동의 발신지로 적합하였던 것이다.

특히 금구는 동학 대접주인 김덕명의 본거지로서, 지역 교단의 지도적 인물과 경제 기반이 결합된 거점 지역이었다. 김덕명은 전라도 교단의 중진으로서 지역 내 일정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집회 개최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역적 기반은 대규모 취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교조신원운동이 단순한 종교적 탄원 운동에서 정치적 연대와 행동을 수반한 집단운동으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결국 금구 원평은 지리적 접근성, 상업적 교통망, 신앙적 전통, 지역 지도층의 결합이라는 복합적 요건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¹⁸

18 이현희, 「19세기 한국사회와 교조신원운동 - 동학농민혁명의 배경분석 -」, 『동학학보』 8, 동학학회, 2004, 42~43쪽.

3. 동학교단의 분화와 김덕명의 위치

1) 동학교단과 김덕명

김덕명이 동학에 입교한 것은 1886년 10월 11일 최시형이 있는 경상도 화령 근처에 있는 전성촌(前城村)에 찾아가 지도를 받게 되면서부터로 추정된다. 이어 동생인 인상도 동학에 입교하였고, 이듬해인 1887년 원평에 도소를 설치하여 포교에 나선다.¹⁹ 이후 김덕명은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교단 내에서 최시형의 신임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1년(신묘년) 5월경 해월 최시형은 제2대 교주로서 호남 일대를 순회하며 교리를 전하였다. 이 순행은 동학교단이 전국적으로 교세를 확장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시형은 남도 각 접의 주요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교단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태인의 김낙삼(金洛三) 집에서 육임(六任)의 첩자를 내리고, 6월 초에는 태인 산외면 지금 실(織綿谷)에 있는 김개남의 집에 들러 상당 기간 머물렀다. 이때 금구의 김덕명은 여름옷 다섯 벌을 지어 바쳤고, 김개남 역시 같은 수의 옷을 지어 올렸다. 이후 해월은 6월 15일경 원평 용계(院坪龍溪)에 있는 김덕명의 집을 방문하여 여러 도인들을 만나 포덕(布德) 행사를 열고, 며칠 간 머문 뒤 전주의 최찬규(崔燦奎) 집으로 이동하였다.²⁰ 이 일련의 행적은 최시형이 김덕명을 단순한 지역 접주로서가 아니라 교단 내 신뢰받는 중심인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금구·태인·원평을 잇는 교단 네트워크의 중심에 김덕명이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름옷을 여섯 벌이나 바쳤다는 것으로 보아 김덕명이 가진 경제력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 사료에는 당시 접주들 사이에 미묘한 알력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다음 해 신묘년(辛卯年, 1891) 5월에 대신사와 대교주께서 부안에 오셔서 며칠 동안 계시다가 금구(金溝)로 가서 김덕명(金德明)의 집에 머무르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꽃이 부안에서 피어 부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당시의 교우(敎友)가 질투한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때 부안의 접주는 김영조(金永祚) 씨였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어젯밤 꿈에 대신사께서 금구(金龜)와 같은 물건 하나를 채색비단으로 4~5겹 싸서 주시며 그대에게 전하라”고 하여 대신사를 뵈었더니, 이상한 일이라고 하였다.²¹

즉 ‘꽃이 부안에서 피어 부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은 자신을 잘 따르는 접주들에게는 ‘꽃’이 피어날 것이고, 자신과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접주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이 말을 한 곳이 김덕명의 집이라는 것에서 김덕명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다.

19 정성미, 위의 논문, 2018, 176쪽.

20 『大先生事蹟』, 『海月先生文集』

21 『金落鳳履歷』, 『辛卯五月』.

2) 금구원평집회와 동학교단의 분화

이러한 해석은 바로 이듬해부터 벌어지는 1892년부터 제2차 교조신원운동 과정에서 김덕명이 전봉준계 접주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1891년 최시형의 지역 순회는 바로 교조신원운동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교조신원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지역의 여러 접주들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접주들에게 일종의 언질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교단 내에서 최시형이 원하였던 '신앙적 호소'를 넘어서 탐관오리의 탐학으로 대표되는 조선 사회의 병폐를 개혁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동'에 감화를 받았던 접주들이 있었고, 김덕명이 그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후 전개되는 보은집회와 금구원평집회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1893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전라도 금구 원평에서 개최된 금구원평집회는 보은집회와 병행되어 이루어진 동학교단의 대규모 집회로, 당시 전라도 각지의 교도 약 1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된다. 신임 전라감사 김문현이 부임 직후 감영에 도착하였을 때, 군사마 최영년으로부터 “금구 원평에 운집한 동학교도가 거의 만여 명에 달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기록²²은 이 집회의 규모와 조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은집회가 교조신원을 위한 평화적 탄원운동의 성격을 띠었던 것과 달리, 금구원평집회가 이미 정치적 요구와 행동성을 수반한 사회적 항의운동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금구원평집회의 중심 인물은 전봉준이었다. 당시 전봉준은 교단 내에서 비교적 젊은 세대의 지도자로서, 보은집회에 직접 참여한 급진적 교도들과 연대하며 금구 일대에서 교세를 결집하였다. 이 집회는 표면적으로는 교조신원운동의 일환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행동 집회로 전환되고 있었다. 즉, 금구원평집회는 보은집회의 종교적 색채를 탈피하여 정치적 성격이 강한 대중운동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시점이었다.

즉 보은집회가 교단의 중심 지도자들이 주도한 교조신원과 신앙의 자유 보장이라는 내적 요구에 초점을 맞춘 반면, 금구원평집회는 척왜양(斥倭洋)과 탐관오리의 횡포 금지, 민중의 생존권 보장 등 외적 개혁 요구를 직접적으로 표방하였다. 당시 선무사 어윤중에게 서병학이 한 말은 이러한 성격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어윤중에게 “호남취당(금구원평집회)은 얼핏 보면 우리(보은집회)와 같으나 종류가 다르다. 통문을 돌리고 방문을 게시한 것은 모두 그들의 소행이며, 그들의 정형은 극히 수상하니 자세히 살피고 혼동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²³ 이는 금구집회가 교조신원운동의 종교적 틀을 넘어 반정부·반외세적 행동으로 발전했음을 명확히 지적인 사료라 할 수 있다.

결국 금구집회는 보은집회와 다른 목적으로 열린 정치·사회 개혁적 집회였다. 보은집회가 상층 지

22 「東徒始萌辨」, 『東徒問辨』(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6권).

23 「宣撫使再次狀啓 魚允中兼帶」, 『聚語』(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2권).

도부의 통제 아래 비교적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반면, 금구집회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이 주도한 자율적·대중적 운동의 형태를 띠었다. 이 집회는 탐관오리들의 수탈과 외세의 침투에 대한 비판을 결집시킴으로써, 동학교단 내부의 사상적 균열을 정치적 방향으로 재편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금구집회는 교조신원운동이 '신앙적 호소'에서 '정치적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결정적 매개였으며, 이후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사상적·조직적 토대를 제공한 변곡점이었다.²⁴

이러한 점은 이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1890년대 초 동학교단은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신앙공동체로서의 위상을 높였지만, 그 과정에서 교단의 존속과 사회개혁을 둘러싼 전략적 분기가 발생하였다. 이 시기 동학은 크게 최시형계(崔時亨系), 전봉준계(全琫準系), 김개남계(金開南系)의 세 흐름으로 분화되어 각기 다른 시국 인식과 정국 구상을 보였다.

먼저 최시형계는 교리적 정통성을 계승한 주류 세력이었다. 최시형은 동학의 근본 원리인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현실 개혁의 원리로까지 확장하기보다는, 교단의 생존과 합법화를 우선시하였다. 그는 외세의 침입과 정부의 탄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력 항쟁보다는 도덕적 교화와 내부 결속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다. 즉, 최시형계의 시국 인식은 “내치(內治)의 안정과 교단의 존속”에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1893년의 보은집회(報恩集會)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동학의 신원(伸冤)과 교단 공인을 요구하는 합법적 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비해 전봉준계는 동학의 교리를 정치적 개혁의 실천 원리로 삼은 개혁파였다. 전봉준은 국왕을 유교적 이상정치의 구현자로 인식하고, 부패한 관료체제를 개혁함으로써 왕도정치(王道政治)의 회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전주화약 이후 각 지역에 보낸 포고문에 ‘우리의 도(道)는 보국안민(輔國安民)에 있으며 다행히 국왕의 은혜를 입고 귀화하려고 하는데 … 도인(道人)이라고 하면서 민심을 선동하면 이는 곧 반란의 무리로 …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⁵ 여기서 ‘보국안민’은 단순한 구제의 구호가 아니라,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 속에서 민중이 주체로 참여하는 개혁의 비전이었다. 이는 소위 ‘근왕(勤王)적 개혁론’으로, 전봉준의 무력투쟁은 단순한 반란이 아닌 정국 개혁을 위한 수단의 일환이었다. 전봉준계는 따라서 교단의 종교적 성격을 일정 부분 벗어나, 정치적 현실 개혁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²⁶

반면 김개남계는 동학의 이상을 급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한 변혁파였다. 김개남은 기존 체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력에 의한 사회변혁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그는 당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선왕조를 전복하여 새 왕조를 건설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급

24 이현희, 「19세기 한국사회와 교조신원운동 - 동학농민혁명의 배경분석 -」, 『동학학보』 8, 동학학회, 2004, 43~44쪽.

25 「別紙 丙號 布告」, 「全羅道 嵎島에서 東學黨의 掩擊을 받은 日高友四郎의 聞取書」(1894년 7월 23일, 在仁川 二等領事 能勢辰五郎 → 特命全權公使 大島圭介),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권.

26 이희근, 「1894년 동학지도자들의 시국인식과 정국구상」, 『한국근현대사연구』 8, 한국근현대사학회, 1998, 74~75쪽.

진적 성향은 교단 내의 변란적 경향으로 평가²⁷되었고, 당사에서 ‘반역(反逆) 세력’으로 규정되었다. 특히 김개남은 자신이 남원에 개국할 것을 선언하고 스스로를 개남국왕(開南國王)으로 칭하기도 하였다.²⁸

이는 이후 2차 봉기 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 당시 전봉준 계열의 농민군, 최시형 중심의 북접계 농민군, 김개남 계열의 농민군이 각각 진군하였다. 전봉준계 농민군은 전북 지역에서 출발하여 공주로 향하였고, 최시형계 농민군은 충청도에서 모여 공주에서 합류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개남은 독자적으로 충청북도 지방으로 진격하다 패전하였다.

이처럼 세 계열이 조선 사회를 바라보던 인식은 모두 동학을 공유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응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최시형이 정부와 협조 속에서 동학을 합법화하고 그와 동시에 개혁을 진행하는 방식을 내세웠다면, 전봉준은 근왕주의에 근거하여 현실 문제에 대한 개혁의 수단으로 봉기를 준비하였고, 김개남은 조선왕조의 전복을 통한 변혁을 앞세운 것이다. 이러한 삼분 구조 속에서 김덕명은 전봉준계의 핵심 접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요컨대, 동학농민혁명기의 교단 분화는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니라, 시국 인식과 정치적 대응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상적 분기였다. 이 가운데 김덕명은 금구 원평 일대를 거점으로 하여 세력을 규합해 가는 와중에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전봉준의 근왕적 개혁 구상에 공감하고, 김개남식 급진론에는 일정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두고 이회근은 당시 전라도와 충청도의 대접주들은 대체로 최시형, 전봉준, 김개남의 휘하에 있었다고 평하였다.²⁹ 그리고 전라도 지역으로 좁혀서 보자면 전봉준은 금구 원평을 근거지로 전라우도를 지배하였고, 김개남은 남원을 근거지로 삼아 전라좌도를 지배하였다.³⁰ 이와 같은 동학교단의 분화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동학접주 장두재(張斗在)는 1894년 7월 9일(음)에 대원군과 합세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한다는 1급 정보를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에게 편지를 보내 공유하면서 ‘앞으로 도회(都會)를 열지 말라’는 교주 최시형의 지시를 의리가 없는 행동으로 비난하였다.³¹ 또한 당시 도내 두령(頭領) 40여 명은 전봉준, 손화중이 하는 일이 교외지사(敎外之事)로 상관하지 말자는 문서를 만들어 돌리기도 하였다.³² 이처럼 동학교단이 분화하는 가운데 김덕명은 전봉준 계열의 접주로 금구 원평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1차, 2차 봉기 과정에서 김덕명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894년 고부군수 조병갑

27 이러한 변란세력은 정감록 등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동학교단 내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필제이다(연갑수, 「이필제 연구」, 『동학학보』 6, 동학학회). 김개남 역시 이러한 변란세력의 범주 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8 이회근, 위의 논문, 1998, 76~78쪽.

29 이회근, 박사학위 논문, 1997, 123쪽.

30 이회근, 박사학위 논문, 1997, 121쪽.

31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文書』(1), 「東學黨會審顛末」, 1895년 8월 2일(『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9권).

32 『金洛鳳履歷』(『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7권), 甲午十月.

(趙秉甲)의 탐학에 항거하여 발생한 고부민란은 동학교단의 조직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당시 전봉준이 봉기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무장(茂長)의 손화중, 태인(泰仁)의 김개남, 금구(金溝)의 김덕명, 태인(泰仁)의 최경선 등과 함께 의논하였다.³³ 또 전봉준은 손화중, 김개남과 연명으로 창의문을 발표하고 정월 초순경 전봉준은 구미란(龜尾里)에서 남하하여 금구의 김덕명의 집과 태인의 최경선의 집에 들러 의논한 후 병력을 모아 14일에 고부를 공격하였다.³⁴ 즉 김덕명은 전봉준과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봉기 기획 단계부터 전봉준 계열 지도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백산집회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난다. 『동학사초고본(東學史草稿本)』에 따르면 백산집회의 중심 인물은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최경선, 김덕명으로 이 가운데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을 ‘전라일도(全羅一道)의 최고두령격’으로 지칭하였다.³⁵ 이는 봉기 초기에 김덕명이 가진 전봉준 계열 동학교도 내의 위상을 드러내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김덕명은 직접적인 전투 현장에는 나가지 않고 금구에 도소(都所)를 열고 후방에서 자문 및 군량 지원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주화약 이후 원평에 대도소가 설치되고 이를 기반으로 전봉준이 전라우도를 총괄하였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이다.³⁶

2차 봉기에도 김덕명은 전봉준 계열 농민군의 핵심 참모로 역할을 한다. 당시 전봉준은 대장이 되어 전라도의 대군을 통솔하고 전주성에 웅거하였으며, 이때 손화중과 김덕명은 총지휘(總指揮)가 되어 참전하였다.³⁷ 이즈음 제주 장두재(張斗在)가 ‘대원군의 의지를 받아 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토벌하려 한다’는 편지를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에게 보낸 것에서 그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³⁸ 하지만 이후 봉기 과정에서 김덕명의 활동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1차 봉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후방 지원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판결문에 ‘금구 지방에서 무리를 모아 관고(官庫)의 군물(軍物)을 약탈하고 민간의 돈과 곡식을 빼앗았다’³⁹라는 문구로 보아, 후방에서 군수물자를 확보하여 농민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33 「東學亂과 古阜陷落」, 『東學史草稿本』(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권).

34 「倡義文 內譯」, 『東學史草稿本』(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권).

35 「檄文」, 『東學史草稿本』(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권).

36 정성미, 위의 논문, 2018, 185쪽.

37 「再度舉義」, 『東學史草稿本』(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권).

38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文書』(1), 「東學黨會審顛末」, 1895년 8월 2일(『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9권).

39 「제20호 판결선고서원본 김덕명(金德明)」, 『東學關聯判決宣告書』(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2).

4. 일본군의 초멸작전과 금구 원평

1894년 11월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일본군 및 관군의 집중 포화에 의해 크게 패하였다. 패전 이후 약 3천여 명의 병력이 논산전투에서 다시 패하고, 11월 19일경 전주로 후퇴하였다. 전봉준은 전라감사의 집무처였던 선화당(宣化堂)에 머물며 잔여 병력을 수습하였고, 11월 23일에는 금구 원평으로 이동하여 재정비에 들어갔다. 공주전투 이후에도 농민군이 원평에서 다시 전의를 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김덕명의 지원 기반 덕분이었다. 원평은 전라도 평야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마을 앞에는 원평천(院坪川)이 흐르고 뒤에는 해발 60m가량의 완만한 야산이 있어 방어에 유리하였다. 이 시기 김덕명은 전봉준계 동학교도들의 핵심 거점인 금구 지역의 대접주로서 군량과 인력을 제공하며 농민군의 후퇴와 정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이를 따라 농민군을 토벌하고자 하였던 일본군과 관군도 역시 금구 원평 지역으로 진군하였다. 11월 25일 관군과 일본군은 원평 구미란에서 전투를 벌인다.⁴¹ 관군 및 일본군과 농민군은 천 보의 거리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포를 쏘면서 전투가 벌어졌다.⁴² 이때 농민군은 37명이 전사하였고, 관군 및 일본군의 사상자는 없었다. 27일에도 농민군이 금구에서 태인으로 밀려나며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을 받았고, 그 결과 농민군은 40명이 전사하고 50명이 생포되었다.⁴³ 이 전투로 금구에서 태인에 이르는 일대는 아래의 사료와 같이 처참히 파괴되었다.

(전략) 25일에 적을 토벌한 뒤라 불에 탄 가게와 여염집이 잇달아 40여 집이었습니다. 비류가 저장해둔 곡식 몇 백 섬과 민가의 물건이 모조리 불에 탔기에 보기에 참으로 근심스럽고 참담하여 약간의 흠어진 백성을 불러서 우선 아직 불타지 않은 집에 머물면서 차차로 집을 지어 살 곳을 마련하라고 더욱 각별히 타일렀습니다.

17리 쯤을 가서 태인(泰仁) 석현점(石峴店)에 도착하니 수십 채의 인가가 역시 불에 타버려 연기와 불꽃이 아직도 가득하여 몹시 참담하고 절통하였습니다. (중략) 태인읍에 도착하니 700~800의 가호가 또한 불에 타버렸는데 “모두 비류들이 흠어질 때에 불을 지른 것이다”라고 합니다. 몇 백의 읍내의 집도 관아 건물들과 함께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유랑하는 백성을 불러서 만방으로 타이르니 조금씩 와서 모였으나, 혹 멀리 도망한 자도 있으며 또 비류들의 위협에 못 이겨 따른 자도 있어서 끝내 안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중략) 금구현 아래로 100리 되는 길에는 객점과 여염집을 말할 것 없이 원평과 석현이 모두 불에 탄 외에는 가끔 한두채가 불에 탔지만 인가에서 밥짓는 연기가 아주 끊어지고, 사는 백성들이 없으니 보는 바가 절통하여 이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

40 정성미, 위의 논문, 2018, 185~186쪽.

41 『순무선봉진등록』 11월 25일.

42 『순무선봉진등록』 11월 26일.

43 『순무선봉진등록』 12월 2일.

니다. (후략)⁴⁴

당시 숨진 동학농민군의 시신은 한 달 가까이 거두지 않아 썩어 시신의 팔과 다리를 개가 물고 다니자 선달 그름이 되어서야 주민들이 구미란 뒷산에 몇 십구씩 묻었다고 합니다. 당시 40여 호에 이르던 구미란 마을은 두 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불에 탔으며, 전쟁이 끝나고서도 벽장속이나 우물 속에 숨었던 농민군이 관군에게 넘겨지는 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쓰이는 ‘이삼대 쓰러지듯이 쓰러졌다.’거나 ‘너한테 죽으려면 갑오년에 유탄에 맞아 죽었다.’라는 말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현재 구미란 마을의 촌로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 까지도 마을 인근에 연환이 남아 있어 엇과 바뀌서 먹었다고 합니다.⁴⁵

이처럼 금구부터 태인에 이르는 지역은 마을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피해는 전투가 격렬했던 것도 원인이겠지만, 당시 일본군의 작전 방식 역시 염두해 두어야 할 부분이다. 당시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던 방식은 바로 초멸(剿滅)이었다. 일본군의 방침이 초멸로 전환된 것은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의 1894년 10월 27일자 지령에 서였다. 여기서 초멸의 의미는 당시 주조선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말에 따르면 “인민을 많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과 등을 잡고 서류를 압수해서 그 근원을 뿌리 뽑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전쟁 과정에서 이러한 방침은 지켜지지 않았다. 일본군의 동학 토벌은 결국 말 그대로 동학 도라면 모두 죽여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목적은 훗날의 재기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물론 학살은 후퇴하며 남하하는 동학농민군을 관군과 일본군이 따라가면서 점차 강도가 심해졌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본격화되었으나, 박찬승에 따르면 일본군과 관군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초멸의 방침은 토벌 초기부터 실행되고 있었다.⁴⁶

이처럼 금구 원평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유는 단순히 전투의 격렬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순무선봉진동록』의 기록에 따르면 관군과 일본군은 금구-태인 일대에서 두 차례 전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가와 객점 수백 호가 불타는 등 지역사회가 거의 전면적으로 파괴되었다. 이러한 피해 양상은 일본군의 ‘초멸’ 방침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1894년 10월 27일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내려온 지령에는 동학농민군 토벌의 목적을 ‘거과를 체포하고 문서를 압수하여 그 근원을 뿌리 뽑을 것’이라 규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현지의 ‘초멸’은 이 지침을 넘어 농민군의 잔여 조직과 그 지역 기반 자체를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금구 원평은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 이후 전봉준 계열 농민군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였고, 2차 봉기 시기에는 전봉준이 공주 패전 후 병력을 수습하고 재정비한 후퇴지였다. 따라서 11월 25일 구미

44 『순무선봉진동록』 11월 30일.

45 지역 어른들에게서 들었다는 향토사학자 고 최순식의 전언이다(정성미, 위의 논문, 2018, 189쪽에서 재인용).

46 박찬승,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東學徒) 학살』, 『역사와 현실』 54, 한국역사연구회, 2004, 40~45쪽.

란전투 이후 태인까지 이어진 관군과 일본군의 진격 과정에서 이 지역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것은 단순한 전투의 부산물이 아니라, 농민군의 잔여 세력이 결집한 지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재봉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으로 이해된다. 결국 금구 원평 일대의 피해는 전봉준계 농민군의 후퇴로 인해 전투가 집중된 결과이자, 일본군과 관군이 농민군의 조직적 기반을 무력화하려 한 초토화 작전의 구체적 사례였다.

5. 결론

이상으로 금구 지역의 대접주 김덕명의 활동에 대하여 교단의 분화와 그 가운데서 그의 위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김덕명은 동학교단의 확대와 함께 진행되는 전봉준 계열의 분화에 함께 하였던 인물이었으며, 이후 전봉준계 동학교도들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특히 1차 봉기 당시 전봉준이 금구 원평을 중심으로 동학도를 규합하는 것으로 보아 김덕명은 전봉준 계열의 동학교도들이 전라도를 주도하는 주요한 계열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주화약 이후 집강소 단계에서도 금구 원평 지역은 동학농민군의 중요한 지역적 기반으로 역할을 하였고, 특히 2차 봉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금구 원평 지역이며, 그곳의 중심인물이었던 김덕명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처벌을 받았던 61명의 동학교도 가운데 김덕명은 2차 봉기 당시 전투에 직접 참여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에도 사형을 당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주전투의 패배 이후 원평전투와 태인전투를 거치면서 일본군이 초멸작전을 펼치며 금구 원평 지역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 이러한 초멸작전의 목표는 바로 다시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금구 원평 지역의 심각한 피해는 역시 이곳이 바로 제2차 봉기를 주도한 전봉준계 동학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바로 이 지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文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東學史草稿本』

『東學關聯判決宣告書』

『大先生事蹟』

『金落鳳履歷』

『東徒問辨』

『聚語』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증언록』

박찬승,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東學徒) 학살」, 『역사와 현실』 54, 한국역사연구회, 2004

송정수, 「전봉준 장군의 유동생활과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전북사학』 39, 전북사학회, 2011

연갑수, 「이필제 연구」, 『동학학보』 6, 동학학회

이현희, 「19세기 한국사회와 교조신원운동-동학농민혁명의 배경분석-」, 『동학학보』 8, 동학학회, 2004

이희근, 「東學敎團과 甲午農民蜂起」,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이희근, 「1894년 동학지도자들의 시국인식과 정국구상」, 『한국근현대사연구』 8, 한국근현대사학회, 1998

정성미, 「동학농민혁명지도자 김덕명의 활동과 원평」, 『동학학보』 49, 동학학회, 2018

「금구원평집회와 김덕명 금구대접주의 활동」 토론문

정성미 | 원광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김덕명 연구의 일환으로, 그를 1893년 금구·원평집회와 1894년 원평전투의 배경이 되는 인물로 보는 점은 종래 연구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아울러 필자는 김덕명의 가계와 금구·원평 지역의 사회적·지리적 특성, 동학교단의 분화 속에서 김덕명의 위상, 일본군과 관군의 진압 과정에서 금구·원평 지역이 입은 피해와 그 역사적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단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필자의 논지 전개 과정에서 김덕명을 전봉준계 접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금구·원평 집회를 보은집회의 종교적 지향과는 달리 정치사회적인 개혁 집회로 규정하고 있는 논지는 쉽게 공감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토론자로서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한다.

1. 김덕명은 전봉준계 접주였을까?

김덕명과 전봉준은 동학교단에의 입도 시기나 나이, 대접주 김덕명 포가 가지는 원평에서의 인적·물적자원 등을 고려할 때, 김덕명이 전봉준계 접주라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1893년 교조신원운동 과정이라면 더욱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김덕명의 동학 입도 시기는 1886년경, 김개남·손화중은 1884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봉준은 1890년대 초(1891년 설)로 알려져 있다. 김덕명은 원평 지역을 중심으로, 김개남은 산외면 일대와 임실 지역 그리고 손화중은 정읍 일부와 고창 일대에서 활동하였고, 전봉준은 가장 늦게 동학에 입도하여 김덕명 포에 들어가 1892년 고부 접주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1890년대 이후 김덕명은 점차 교세를 확장하여 지금의 김제, 정읍 지역인 금구와 태인 일부, 고부 일대로 넓혀 이 지역 관내는 모두 김덕명 포에 속하였으며, 주산의 최경선 역시 김덕명 포에 속하였다. 보은집회 때 운량도사의 직책을 맡은 전봉준은 김덕명 포의 물적자원을 공급하였고, 이 시기 해월 최시형은 포접제를 공식화하며 금구의 김덕명을 대접주로 임명하게 되는데, 바로 김덕명의 이러한 공적을 높이 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장기포 이후 전봉준은 손화중과 김덕명을 설득하며 봉기에 참여시키고 있다. 백산대회 때 김덕명 포는 2천 명으로 김개남(1천 3백), 손화중 포(1천 2백)에 비하여 그 규모도 차이가 있다. 당시

김덕명이 총참모에 임명된 것 역시 그는 전봉준보다 10살이 많은 고령으로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것보다 후방에서 전투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학교단 내에서 최시형과의 관계 등 여러 면에서 김덕명은 지위는 전봉준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교조신원운동기 전봉준은 김덕명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필자는 최시형계-동학 합법화 세력(보은집회), 전봉준계-근왕주의적 개혁 세력(무장포고문), 김개남계-변란을 통한 체제 전복 세력(개국왕으로 칭함)으로 규정하고, 이 부분에서 김덕명이 전봉준과 뜻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전봉준계가 김덕명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시기 각 지도자의 지향점에 대한 분화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교조신원운동 시기 교단 내의 분화라고 보는 것은 논지의 비약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덕명을 전봉준계 접주로 규정하는 것은 당시의 여러 조건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2. 보은집회와 금구·원평집회 성격 규정에 대하여

필자는 금구·원평집회를 보은집회의 종교적 지향과는 다른 정치사회적인 개혁 집회로 규정하고 있다. 본문을 보면,

“보은집회가 교조 신원을 위한 평화적 탄원운동의 성격을 띠었던 것과 달리, 금구원평집회가 이미 정치적 요구와 행동성을 수반한 사회적 항의운동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정치적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행동 집회로 전환되고 있었다. 즉, 금구원평집회는 보은집회의 종교적 색채를 탈피하여 정치적 성격이 강한 대중운동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시점이었다.”

라고 하였다. 보은집회는 교조 신원은 물론이고 척왜양을 추구하는 정치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었다. 금구집회 역시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금구집회의 주동 인물들이 기존의 동학 지도부와 전혀 다른 노선과 목표를 가졌다고 보기도 힘들다. 두 집회가 서로 연락 관계를 맺고 있었고, 금구집회 참가자들이 보은집회에도 참가하였다는 점에서, 금구는 보은집회로 가던 동학 교도들의 중간 집결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은집회와 금구집회의 성격 차이를 규정하려면 그 근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교조신원운동은 동학교도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수탈을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요구를 내포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이다. 사실 교조신원운동 자체가 정치집회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은 이미 ‘삼례집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삼례집회 이후 무장군수에게 빼앗긴 지목전을 되돌려받는 것 등의 일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김덕명을 비롯한 전

봉준, 손화중, 김개남, 서장옥, 황하일 등이 이 지점에서 지향점이 같아 교분도 두터워졌으며, 이러한 정치적 경험은 후일 개혁사상을 실천에 옮기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면 금구집회는 삼례집회의 연장선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필자가 말하는 종교적 색채를 탈피하여 정치적 성격이 강한 대중운동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시점은 고부봉기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3. 일본군 초멸작전의 피해지-금구전투(구미란전투)

필자는 원평전투의 피해가 컸던 이유가 김덕명의 존재와 일본군의 초멸작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일본군과의 전투가 있었던 대부분의 전투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물론, 호남 주력이었던 전봉준이 전주를 거쳐 원평으로 퇴각한 이유는 김덕명 포의 세력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일본군의 초멸작전은 공주전투 이후에 벌어진 어느 지역 전투에서나 가옥을 불태우고 농민군 참여자를 현장에서 대규모로 처형하는 등의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이를 금구·원평 지역의 특수성으로 보기에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만일 금구·원평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본다면 역시 그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보충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

원평집강소를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민주주의 실현

배향섭 | 성균관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근대역사학이 성립된 이후 한국(물론 대부분의 비서구가 모두) 현실에서도 역사인식 면에서도 서구 혹은 유럽과 그들이 먼저 성취한 근대는 추구해야 할 목표였고 기준이었다. 그러나 백 수십여 년이 지난 현재 서구도 근대도, 그들을 목표로 ‘발전’의 길을 맹렬히 추구해왔던 한국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하였다. 이처럼 ‘현실’이 매우 많이 달라진 만큼 거기에 규정된 역사인식 역시 새롭게 조정되어 나가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였다. 한국이 피식민지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1인당 GDP 면에서 식민지의 모국을 뛰어넘은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GDP는 세계 12위이다. 세계 145개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는 2025년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했습니다. 전년도 순위와 동일하며, 영국, 일본,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가 한국의 뒤를 이어 6위~10위에 자리 잡았다.

더욱 강조되어야 할 점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이다. 음악, 영화, 드라마, 패션, 화장품, 음식, 관광 등 대한민국의 문화 전반이 한류(韓流, Korean Wave/Hallyu)라는 신조어로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백범 김구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그토록 원하던 나라가 된 것이다.¹ 나아가 지난 10여년간 대통령 탄핵을 두 차례나 이끌어낸 한국 시민들의 민주 역량은 ‘K-민주주의’ 혹은 ‘빛의 혁명’ 등으로 불리며 역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 선진국가들로부터 배워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탄핵으로 2017년에는 독일의 비영리 공익·정치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으로부터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이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² 이때 미국과 유럽의 언론에서는 “오히려 미국과 유럽인들이 한국인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지 배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사들을 실었다.

그동안 한국사 이해는 서구중심주의/근대중심주의에 입각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식민사학을 비판하고 우리 역사도 서구와 같은 ‘온전한 결로’를 걸었음을 확인하려는 노력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역사가 서구에 비해 길게는 수백 년 뒤진 ‘후진’ 역사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한 과정이기도 했다. 동학농민혁명도 마찬가지이다. 동학농민혁명은 그보다 100여 년 앞서 일어난 프랑스

1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2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일의 첫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뜻에 따라 1925년 설립되었으며, 독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정치 재단이다.

혁명이나 미국혁명, 200여 년 전의 영국혁명, 37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독일농민전쟁 등 서구가 먼저 걸어갔던 길, 먼저 수행한 경험들의 “아류(亞流, epigone)”를, 그것도 많게는 수백 년 뒤진 아류를 확인하는 데 그쳐버릴 수 있다.

이 경우 동학농민혁명은 인류사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분석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데 사실상 ‘무의미’한 경험이 되어버릴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냉엄한 국제질서 인식의 필요성, 부정부패한 무리들에 대한 과감한 척결 의지, 무도한 침략에 대한 결기 있는 저항 등을 당연히 배우고 실천해 나가야 하지만, 다른 한편, 위기에 처한 서구의 민주주의나 ‘근대’ 문명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들을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³ 동학농민혁명이 가진 현재성을 새롭게 구성해 내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원평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해 두고자 한다. 이어 원평 집강소와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한 후, 원평집강소가 천민 출신의 동록개가 기부한 것이라는 점을 단서로 집강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동학농민혁명과 원평

1) 교조신원운동과 원평

원평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다. 동학교세가 확산되는 1884년부터 교단에서는 六任制를 실시하여 조직의 정비를 꾀하였으나,⁴ 교도가 급증하는 1890년대에 들어서는 획일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최시형은 1891년에 道統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 正淵源과 禁淆雜을 강조하는 通諭文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교도들끼리 서로 분쟁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도통의 宗脈이 문란해져만 갔다. 교단 내의 이러한 분위기는 특히 이 무렵 급격히 증가한 호남지방의 교도들에 대해 “도를 아는 자가 드물다”고⁵ 하였듯이 道보다 다른 데 더 큰 뜻을 가지고 入道한 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3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따르면 가장 선진적이었던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한국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국가들의 사례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 한국 세계 21위, 미국 25위, 프랑스 29, 이탈리아 33위
- 2019 : 한국 23, 일본 24, 미국 25, 이탈리아 35
- 2020 : 한국 23, 프랑스 24, 미국 25, 이탈리아 29위
- 2021 : 한국 16, 일본 17, 영국 18, 프랑스 22, 미국 26, 이탈리아 31
- 2022 : 한국 24, 미국 30, 이탈리아 34
- 2023 : 한국 22, 프랑스 23, 미국 29, 이탈리아 34

- 2024 : 한국 32, 독일 13위, 일본 16위, 영국 17위, 프랑스(7.99점) 26위, 미국(7.85점) 28위. 프랑스, 미국,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이 발생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격하되었다.

4 「天道教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壹)』, 430쪽.

5 위와 같음, 436쪽.

도가 아니라 다른 데 더 큰 뜻이 있었던 자들 가운데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변혁 지향 교도들이 적지 않았다. 변혁지향 교도들이 대거 입도한 배경은 1892년 8월 손화중苞가 관련된 고창 선운사 비결 사건에 대한 오지영의 평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불같은 指目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물밀듯이 동학에 들어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道를 타고 온다는 것보다도 秘錄 그것이 道人의 손으로부터 발견되었다는 것을 異常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었던 때문이라 함이 과언은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하면 世上에는 큰 가뭄이 들어 만물이 모두다 말라죽으려 할 즈음에 때마침 동학이라는 바람이 불어 구름을 일으키고 단비를 장만하는 機微의 속에서 自然의 衝動으로 그리함인가 한다.⁶

비결 사건을 계기로 ‘세상이 바뀔 것을 바라는’ 민중들이 큰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듯이 동학에入道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동학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종의 메시아인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때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교도들의 입도는 주로 무장·고창·영광·홍덕·고부·부안·정읍·태인·전주·금구 등 훗날 농민전쟁의 중심세력이 형성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한편 1893년 3월 보은에서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라도 금구 원평에도⁷ 동학교도 만여 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⁸ 이들도 척왜척양을 주장하였으며, “인천 제물포로 직향하려 한다”고 聲言하기도 하였다.⁹ 또 금구집회에 모인 교도들이 3월 20일경 보은으로 올라온다는 소문이 관군 측에 정탐되기도 하였다.¹⁰ 김윤식은 금구집회의 주도자 황하일과 손화중이 만여 명을 이끌고 3월 21일 보은에 도착한다는 私通이 있었다고 하였다.¹¹ 보은에 살던 金容穆은 3월 23일 무렵 “호남과 호서의 교도들이 合陣하여 그 위세가 늠름하다”라고 하여 금구의 교도들이 보은으로 합세한 듯이 기록하였다.¹² 또 어윤중은 보은의 교도들이 해산한 다음인 4월 5일 금구로 향하다가 금구로부터 보은으로 가던 400여 명의 교도들을 진산에서 만나 이들을 효유하여 해산시켰다.¹³

6 『東學史』(草稿本), 『총서』 1, 437~439쪽. 선운사 비결 사건에 대해서는 남원 유생 金在洪이 쓴 『嶺上日記』에도 언급되어 있다(『총서』 2, 271~272 참조).

7 보은집회와는 별도로 금구집회가 열렸다는 사실은 鄭昌烈, 1982, 『東學教門과 全瓚準의 관계』, 『19世紀 傳統社會의 變貌와 民衆意識』,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趙景達, 1982, 『東學農民運動과 甲午農民戰爭의 歷史的 性格』,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9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

8 李復榮은 ‘不下數萬’으로(『南遊隨錄』 癸巳 3월 29日條, 『총서』 3, 131쪽), 김윤식은 만여 명으로(『續陰晴史』, 262·264쪽), 崔永年도 만여 명으로(『東徒問辯』, 『東學亂記錄』 上, 155쪽) 기록하고 있다.

9 李復榮, 『南遊隨錄』 癸巳 3월 29日條, 『총서』 3, 131쪽; 崔炳鉉, 1924, 『南原郡東學史』, 『續陰晴史』, 262·264쪽 참조. 한편 金在洪에 따르면 “三月望間傳聞 三南東學輩都會于各處 忠淸則會于報恩 嶺南則會于密陽 本道則會于金溝 衆各至數萬 使徒之服色着無 袖青周衣 袂口紅錦云”이라 하여 같은 무렵에 경상도 밀양에서도 동학교도들의 집회가 있었다고 한다(『嶺上日記』 『총서』 2, 274쪽).

10 『聚語』, 111쪽.

11 『續陰晴史』, 264쪽.

12 『白石書牘』, 『총서』 3, 癸巳 3월 23日, 317쪽.

13 『續陰晴史』, 上, 269쪽.

원평에서 별도의 집회가 개최된 사실은 다른 데서도 확인된다. 우선 금구에 동학교도가 모이자 금구군수는 원평 주민들을 招致하여 교도들에게 술과 음식을 공급해 주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교도들은 관아에까지 들어가서 恐嚇하였으며, 전주 감영에도 掛書를 보내 3월 25일에 전주성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였다.¹⁴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금구에 모여 있던 교도들도 4월 5일 이후에는 해산하였다.¹⁵

또 스스로 “계룡산에서 開國하라는 天命을 받았다” 하며 領相 吳泰源, 左相 金炳一, 右相 吳啓源 등을 미리 정해둔 바 있던 일단의 무리들도 “먼저 滅洋倭한 후에 무리를 불러 모아 大小李閔을 盡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의 실현을 위해 “해마다 상경하여 시세의 추이를 엿보았고, 갑신정변 때도 四賊과 왕왕 상종을 하였으며 仁源, 愚葉, 水演 등이 금구 원평의 都會에 참여하였고, 巨葉을 보은도 회에 투입하였다”고 하였다.¹⁶

또 <남원동학사>에도 원평집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보은집회 이후 대부분의 교도들은 해산하여 귀가하였다. 그러나 동학에 대해 또 동학금단을 빙자하여 민간에 대해서까지 더욱 극심해진 관리와 양반 사족들의 횡포와 침탈은 교도들 사이에 극단적인 위기감을 조성하였고, “또 지목이 더욱 심하여 각 군 각 면에 향약계(鄉約契)를 설립하고, 보은 및 원평집회에 참례하고 돌아온 도인은 狗肉을 強飼하고 (道家不食一四足之惡肉) 압박이 무쌍하여 어떤 말을 하든지 언필칭(言必稱) 동학하던 놈이라 하였다.” 하여 향약계를 조직하여 교도를 핍박하고 개고기까지¹⁷ 강제로 먹였다는 기록은 그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 최근 2025년 9월 30일 개최된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에서 『이풍암공신행록』을 분석하여 발표한 최진욱의 글에서도 전봉준이 원평집회를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월에 다시 충청도 보은군(報恩郡) 장내(帳內)에 회집하여 처음으로 창의소(倡義所)를 설치하였다. 그때 고부군(古阜郡)의 전봉준(全奉準)도 전라도 금구군(金溝郡) 원평(院坪)에 회집하였는데 내용자(來應者)가 거의 수만 명에 이르렀고 법령(法令)이 엄정(嚴正)하고 모두 한 마음으로 단체를 이루었다.

14 「南遊隨錄」, 『충서』 3, 131쪽.

15 『續陰晴史』 上, 269쪽.

16 「東學文書」, 『충서』 5, 47~57쪽.

17 崔炳鉉, 「중리원사 부 동학사」,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충서』 1, 45쪽. 수운 최제우는 포덕 초기의 포덕식에서는 소와 양, 돼지고기를 사용하였으나, 1863년 8월 이후 포덕식에서는 육류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先生布德之初 以牛羊猪肉通用矣 至於癸亥(1863년)八月 先生願予傳道之日此道兼儒佛儒三道之教 故不用肉種事”, <통유>, 「동경대전」, 『충서』 26, 102쪽). 또한 평시에도 동학교도들은 닭고기와 개고기를 먹지 않았고(『梧下記聞』, 109쪽 및 「避亂錄」, 『충서』 9, 28쪽), 혹은 ‘鷄 狗 酒 麵’을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韓若愚, 「柏谷誌」, 『충서』 11, 629쪽).

2) 제1차 봉기의 시작과 원평

오지영은 「東學史(草稿本)」의 〈倡義文「內譯」〉이라는 절에서 제1차 봉기의 시작과 원평 관련에 대해 흥미로운 언급을 하고 있다.

〈倡義文「內譯」〉

倡義文을 世上에 傳布하고 이리서든 날은 正月 初旬間이었었다. 全瑋準이 全州 龜尾里(龜尾里)으로부터 南으로 向하든 晝에 同行된 사람은 徐璋玉 宋喜玉 等과 其外에 몇사람이 잇었다. 一說에는 雲峴宮 집사람 羅星山과 召募使 李基榮 等도 同謀가 잇었다고 하는 것이며, 儒林側과 裸負商 等이며 油·鎗·岩(山)·糖·商 等이며 술장사派까지라도 서로 連絡을 지엿섯든 것이다. 全瑋準은 그길로 金溝 金德明의 집을 거쳐 다시 泰仁 舟山里 崔景善의 집에 들어 議論을 定한 後 道人中 久勤이오 義勇心이 잇는 사람 三百名을 다리고 그날밤에 古阜 말목장터(馬項市)로 向하엿었다. 이새 古阜 人民 數千名은 約束과 갓치 그날 밤에 한곳에서 모이게 되었었다. 全瑋準은 그 時로 軍令을 發하야 點考를 맞친 後 그곳서 略干의 銃槍劍棒 等を 收拾하여 가지고 그 밤에 바로 古阜邑을 지쳐드러갓었다 이새는 正月 十四日 첫새벽이라. 密約이 잇든 茂長 孫和中包와 泰仁 金開南包 사람들이 그 時刻으로 古阜邑을 向하야 모와 드렸었다.¹⁸

「동학사」의 이 부분에는 오류가 많다. 〈창의문〉이 나온 장소와 시점 역시 최근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다.¹⁹ 다만 그것이 고부봉기 혹은 동학농민혁명 어느 쪽이 시작 시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전봉준이 거사를 앞두고 서장옥과 송희옥과 함께 장도에 오른 출발지가 구미란이었고, 처음 만나 논의를 한 사람이 금구의 김덕명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3) 집강소 시기 농민군의 활동과 원평

〈전주화약〉 이후 전봉준은 전주를 나와 5월 8, 9일간 김제를 거쳐 5월 10일경 태인에 도착하였다.²⁰ 이어 5월 17일 오전 10시경에는 수백 명의 농민군이 태인에서 정읍 북면 漢橋를 거쳐 蓮池店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정읍에서 하루를 잔 다음 5월 18일 오후 2시경 장성 쪽으로 향해 갔다. 이것은 5월 8일 전주화약 이후 태인에 있던 전봉준이 이원회가 서울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다시 한번 폐정개혁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정읍으로 이동한 것이다.²¹

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의 동향은 전체적으로 평온을 유지하는 분위기였으나, 농민군이 해산하는 경로나 고부, 태인 등지에서는 소규모의 농민군에 의한 부잣집이나 吏胥輩에 대한 공격 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27개조의 폐정개혁 요구안을 국왕에 상주하겠다는 초토사 홍계훈의 약속은

18 「東學史(草稿本)」, 『총서』 1, 454~455쪽.

19 배항섭, 「『동학사』의 제1차 동학농민전쟁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내용분석」, 『한국사연구』 170, 2015 참조.

20 「全瑋準供草」, 四招問目 369쪽.

21 「隨錄」, 234~235 ; 「兩湖電記」, 153쪽.

지켜지지 않았다. 또 전주 철수 직후 김학진은 전라도 각 읍에 原結에 대한 田稅 이외의 모든 잡세를 혁파한다는 지시를 내렸으나, 각 읍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²²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폐정개혁안>을 상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폐정개혁 활동을 ‘집강소’ 혹은 ‘도소’ 활동을 위해 김학진과 논의를 이어갔다.

<전주화약> 직후의 시점에 김학진은 전라도 53개 군현에 글을 보내 농민군이 해산하였으니 그 이전처럼 공격하지 말 것과, 병기를 반납하지 않고 모여서 행패를 부리는 농민군에 대해서만 체포할 것을 지시하였다.²³ 그러나 5명 혹은 6-7명씩 나누어 해산하고 있던 농민군은²⁴ 관군 측의 약속과 달리 체포되어 처형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전주 해산 바로 다음 날 홍계훈은 전주에 살던 농민군 6명을 체포하여 포살하였다.²⁵ 금구와 나주 등지에서는 농민군이 체포되어 참수당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²⁶ 5월 14일경에는 전봉준이 머무르고 있던 태인에서도²⁷ 귀가 중이던 농민군들이 체포되거나 귀가하는 농민군의 집에 관속들이 난입하여 집을 파괴하는 사태가 일어날 정도였다. 이에 따라 돌아갈 곳이 없게 된 고부, 태인, 김제, 부안, 무장, 장성 등지 농민군들은 50~60명, 혹은 10여 명, 5~6명씩 모여 饑戶에게 음식을 토색질하여 허기를 채우고 있었다.²⁸

이에 따라 청일군대의 철수를 급선무로 판단하고 있던 전봉준은 우선 순변사와 전라감사에게 농민군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 농민군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해 줄 것과 폐정개혁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전봉준은 김학진에게 나주와 금구의 수령에 대해서도 파직을 꾸준히 요구하였고, 7월 18일 금구 현령 김명수는 자기가 관할하는 금구 경내에서 땅과 산을 買占한 행위가 국법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파직되고 의금부로 잡혀 올라갔다.²⁹ 나주목사 閔種烈과 나주 영장 李源佑도 파직하게 하였으나,³⁰ 이후에도 나주목사 민종렬은 후임자의 부임을 막으면서까지 수성군을 조직하여 농민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때에도 전봉준은 그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감사 김학진의 서찰을 들고 찾아가 담판을 지었다. 그 결과 비록 나주에 농민군 집강소를 설치하지는 못하였으나,³¹ 8월 17일 김학

22 「嶺上日記」, 甲午 5월 18일, 『총서』 2, p. 284.

23 「草亭集」, 甘結五十三州, 『총서』 5, pp. 405~406. 「초정집」에는 이 감결이 4월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해산한 다음의 정황을 담고 있으므로 5월에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24 「隨錄」, 214쪽.

25 「隨錄」, 213쪽.

26 「東匪討錄」,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一八九四年의 農民戰爭篇 1』, p. 361

27 전봉준은 전주를 나와 5월 8, 9일간 김제를 거쳐 5월 10일경 태인에 도착하였다(『全瑋準供草』, 四招問目 369쪽). 이어 5월 17일 오전 10시경에는 수백 명의 농민군이 태인에서 정읍 북면 漢橋를 거쳐 蓮池店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정읍에서 하루를 잔 다음 5월 18일 오후 2시경 장성 쪽으로 향해 갔다. 이것은 5월 8일 전주화약 이후 태인에 있던 전봉준이 이원회가 서울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다시 한번 폐정개혁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정읍으로 이동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隨錄』, pp. 234~235; 「兩湖電記」, p. 153). 따라서 5월 14일 현재 전봉준은 태인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8 「兩湖招討謄錄」, 『東學亂記錄』 上, p. 216; 「兩湖電記」, pp. 149~15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p. 94~95.

29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7월 18일, 19일조

30 「오하기문」 2월, 195쪽.

31 「金城正義錄」 甲編; 「全瑋準供草」, 『東學思想資料集』 1, 371쪽.

진이 조정에 민종렬의 仍任을 특별히 요청하여 국왕의 승낙을 받는 것으로 보아³² 모종의 타협을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강제 점령은 전봉준과 김학진 사이에 〈관민상화〉가 이루어진 중요한 배경이었다. 양자 간에 타협이 이루어진 것은 7월 6일이었고, 이 담판에서 두 사람은 서로 타협하여 ‘官民相和之策’을 마련하였다. 金鶴鎭은 7월 8일³³ 전라 각 읍에 감결을 보냈다. 현재 확인되는 7월 8일 무주로 보낸 감결의 핵심 내용은 “이번 달 6일에 전봉준 등은 그들의 무리를 이끌고 감영으로 來會하여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다음, ‘각 읍의 집강에게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할 것’을 굳게 약속하였다.”고 하였다. 전주화약 직후인 7월 8일 鳳翔面 九尾里로 간 전봉준도³⁴ 열읍의 집강소에 다음과 같은 통문을 보냈다.

지금 우리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오로지 백성들을 위하여 폐해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저 교묘하게 속이고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이 함부로 설치며 평민들을 괴롭히고 마을을 파괴하며, 하찮은 불만이나 작은 잘못이라도 걸핏하면 반드시 보복하고자 한다. 이들은 바로 덕을 배반하고 선을 해치는 무리일 뿐이니 각 읍의 집강들은 명확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 一. 이미 수거한 총, 창, 칼, 말과 이미 관청에 반납한 것은 각 접주에 통보하여 총, 창, 칼, 말의 수효와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두 개의 책으로 엮어 巡營의 관인을 받은 다음 하나는 감영에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각 집강소에 돌려보내 보관하게 하여 나중에 참고토록 할 것
 - 一. 역참에서 쓰는 말과 상인들의 말은 각각 본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
 - 一. 지금부터 총과 말을 거두어들이는 일은 일체 금하고 돈과 곡식을 강제로 요구하는 자들은 이름을 적어 감영에 보고하여 군율에 따라 조치토록 할 것
 - 一.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과 私的 채무를 받아내는 일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일체 행하지 말 것
- 만약 여기에 열거한 것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감영에 보고하여 법대로 처리하도록 한다.³⁵

두 개의 글은 그 내용이나 문구, 강조점 등에서 차이가 없지 않지만, 일종의 “공동성명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며, 집강소가 ‘공식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집강소 시기에 원평은 전봉준이 활동한 중심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관찰사가 감영으로 전봉준 등을 불렀다. 이때 성을 지키던 군졸들은 각자 총과 창을 쥐고 좌우에 정렬하였다. 전봉준은 높은 관과 삼베옷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오면서 조금도 꺼리는 기색이 없었다. 관찰사가 관

32 『日省錄』, 고종 31년 8월 17일조; 「啓草存案」, 갑오 8월 17일, 『各司謄錄 63 : 啓草存案 外』, 2쪽.

33 『隨錄』, 277쪽.

34 『隨錄』, 247쪽.

35 『梧下記聞』 2필, 182-183쪽; 『隨錄』, 277-278쪽. 오하기문에는 이 통문이 구례에 도착한 것이며, 그 날짜가 7월 12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민(官民)이 서로 화해할 계책을 상의하고 각 군(郡)에 집강(執綱)을 두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동도가 각 읍을 할거하고 공청(公廳)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서기(書記)·성찰(省察)·집사(執事)·동몽(童蒙)과 같은 임원을 두어 완전히 하나의 관청을 이루었다. 집강소는 날마다 백성들의 재물을 뒤져서 뺏는 것을 일삼았다. 이른바 읍재(邑宰, 수령)는 이름만 있을 뿐 행정을 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읍재를 내쫓고 이서(吏胥)들은 모두 동당(東黨)에 입적(入籍)하여 목숨을 보존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봉준은 수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금구 원평에 웅거하면서 전라좌도(全羅左道)를 호령하였으며, 김개남은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남원성(南原城)에 웅거하면서 전라좌도(全羅左道)를 통할하였다. 그 나머지 김덕명(金德明)·손화중(孫化中)·최경선(崔景善) 등은 각각 어느 한 곳에 웅거하였는데, 그들의 탐학과 불법은 개남(開南)이 가장 심하였다. 전봉준은 동도에 의지하여 혁명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거괴(巨魁)들은 각자 스스로 대장이라 칭하면서 가렴주구(苛斂誅求)만을 일삼을 뿐 약속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봉준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태로 7·8월에 이르렀지만, 저들의 불법이 갈수록 더욱 거세져서 부호들은 거의 모두 흩어졌다. 아울러 천민들은 모두 날뛰면서 재물을 토색질할 뿐 아니라, 목은 원한을 갚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호남 일대는 혼란한 세상이 되었다.³⁶

1894년 7월 6일 전라감영에는 전라좌우도소(全羅 左右都所, 집강소의 상위조직)가 설치되고 전봉준의 수하인 송희옥이 도집강(都執綱)을 맡았지만, 최고 지도자 전봉준은 원평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을 시사한다. 물론 원평집강소는 금구 용계동 출신의 대접주 김덕명(金德明)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봉준 역시 이미 제1차 봉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 논의할 정도로 가까웠던 김덕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활동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제2차 봉기의 시작과 원평

『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는 都執綱 宋熹玉이 9월 6일 각지 농민군들에게 띄운 거병을 촉구하는 서신이 실려 있다.

[全琫準의 부하 宋熹玉이 黨員들 앞으로 빨리 擧兵하자고 보낸 서신]

앞으로 더 일을 계획하고자 삼가 묻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수하도록 봉양하시고 모두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接下는 전과 같이 지내오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엿그제(日昨) 雲邊으로부터 효유문을 가지고 두 사람이 왔는데 의심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 그 대책을 의논하고자 都會所를 철폐하고 龜村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러데 과연 어제 저녁(昨暮) 또 두 사람이 비밀리에 내려왔기에 상세히 그 전말을 알아본즉 과연 개화파에게 먼저 효유문을 발하고 뒤이어 秘計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려온 두 사람을 즉시 가두어 두고 엄중히 지켜 서로 말을 통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밤도 아랑곳없이 올라왔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호남지방에도 이런 일

36 鄭碩謨, 『甲午略歷』, 『총서』 5.

이 있어서 벌써 발각되어 잡혀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일은 속히 행하면 萬全策이 되고 늦으면 기밀이 발각되는 것이므로 이를 양찰하시고 날듯 빨리 오시어 큰일을 할 기반을 일으키게 해주시기를 천 번 만번 빕니다. 호서지방에서는 10일에 모였을 때 한 쪽에서 올라갔다고 하니 그렇다면 연이어서 뒤쫓아간 다음에야 일이 완전하게 합치될 수 있을 것이니 예사롭게 여기지 마시고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아직 갖추어 올리지 못합니다.

甲午 9월 6일

接弟 宋憲玉 再拜

(위는 전봉준의 친척이자 그의 부하인 宋憲玉이 黨員 앞으로 보낸 서면으로서 이번에 국왕의 밀지가 있었으니 조속히 거병하자는 뜻을 기술한 것임)³⁷

9월 초(9월 6일의 편지에서 엿그제<日昨>로 표현하고 있음)에 대원군의 효유문을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 두 사람을 만났고, 그 다음 날은 전주의 도회소를 철폐하고 龜村(龜尾卵을 말하는 듯함-필자)으로 옮겨왔다고 하였다. 또 「隨錄」에서는 9월 2일 송희옥이 대원군의 효유문을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온 두 사람의 主事를 만났고, 그 다음 날은 그가 거느리고 있던 농민군을 이끌고 전주성을 빠져 나갔으며, 9일에는 都所 執綱의 諸人이 罷去하였다고 하였다.³⁸ 따라서 늦어도 9월 9일 무렵에는 사실상 집강소 시기는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송희옥이 전주 대도소를 철폐하고 원평으로 갔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 「갑오약력」에서 밝히고 있듯이 “무리를 거느리고 금구 원평에 웅거하면서 전라우도를 호령”하던 전봉준에게로 갔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도소를 철폐한다는 사실은 매우 엄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전봉준의 결정이 전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평집강소의 의미 : 집강소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1) 원평집강소의 실상

이이화에 따르면 원평은 농민군 5대 지도자로 꼽는 김덕명의 세력권이기도 하지만, 전봉준이 한때 살기도 해서 전봉준의 세력 기반이 튼튼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또 7월 6일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이 협의해 각 고을에 집강소를 두기로 합의하고 나서 전봉준은 원평에 도집강소를 두었다는 단편적 기록이 전해진다고 하였다. 앞서 「갑오약력」에 언급된 “전봉준은 수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금구 원평에 웅거하면서 전라우도(全羅右道)를 호령하였”다는 내용도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후 정치인, 외교관이나 기자뿐만 아니라, 상인, 유학생, 관광객을 가

3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8, 55~56쪽.

38 「隨錄」, 296쪽.

장한 첩보원을 보내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낭인(浪人) 계열의 인물들도 준동하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직접 전봉준을 찾아가 ‘내전’을 부추기거나 회유함으로써 농민군을 통해 대륙 침략의 단서를 쉽게 열어가려 하였다. 그 가운데 서울에 있던 일본인 우미우라(海浦篤彌)도 이런 부류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친구인 의사와 약사 두 사람과 함께 7월 초순 서울을 떠나 전봉준을 만나러 남행하였다. 이들은 물어 물어 전봉준의 행방과 거처를 수소문하며 찾아가서 드디어 원평집강소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전봉준을 만나지는 못하였지만(능주에서 전봉준을 만난 뒤 서울로 귀환했다), 정오 무렵부터 오후 2시까지 약 2시간 정도 그곳에 머무는 동안 직접 보고 들은 원평집강소의 동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우미우라가 서울로 도망간 뒤 기록한 「東學黨視察日記」가 그것이다. 일기에는 원평집강소의 실상이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이다. 7월 17일 원평집강소에 도착하기 이전까지의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94년) 7월 5일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 약통을 말에 싣고 도검을 어깨에 메고 서울을 출발하여 5시 30분 수원 도착, 7월 6일 아침 6시 30분 수원을 출발, 오후 2시 30분 진위에 도착, 7월 7일 오전 5시 20분 진위를 출발, 오후 8시 20분 목천 인근에서 숙박하였다. 7월 8일 오후 4시 금강의 지류인 동진강(東津江)을 건너 숙박, 7월 9일 청주에 도착, 7월 10일 오전 7시 청주를 출발, 오후 6시 보은에 도착, 7월 11일 청산, 7월 12일 오전 7시 나는 또 안내자(案内者) 1명을 데리고 산을 넘어 황하일을 방문하였다. 집문 또한 이미 잠겨 있었다. 오후 2시 30분 보은을 출발하여 걷기를 약 30리 정도하여 「타등」 주막에 투숙하였다. 7월 13일 옥천을 거쳐 진산(珍山)을 지나 10리에 있는 「요강월」 주막에 투숙, 7월 14일 「요강월」을 출발하여 오후 8시 고산(高山) 영내의 「산구촌」 주막에 숙박, 7월 15일 오전 4시 「산구촌」을 출발하여 11시 30분 전주에 도착, 20리 여 수정리(葦亭里) 장두식(張斗植)의 집에 숙박하였다. 두식은 약을 사고파는 자로 우리들은 동업인 까닭에 서로 친하였다. (그에게) 비밀리에 동학도의 소식을 물었다. 그는 소리를 작게 하여 말하기를 동학도 수괴(首魁)의 성은 전, 이름은 명숙(明淑)으로 고부에서 태어나 전주에 살며 재덕을 겸비하였다고 한다. 전주 싸움에서 도망하여 목하 전주 이 남에 있다고 한다. 나머지 동학당은 금구에 모인다는 설이 있고 금구에 가도 또 한(그들에 대한 정보) 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금구는 전주에서 30 리로 우리들은 이곳에서 의기(意氣, 득의한 마음)를 약간 떨쳤다. 그러나 금전을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곧 두식에게 알선해주도록 하여 휴대하고 있는 한냉 사(寒冷紗) 및 남은 은화를 팔아 겨우 여행길의 여비를 조달하였다. 7월 16일 오후 5시, 60리 정도를 보행하여 간신히 금구에 도착하였다. 동학도가 모이는 곳을 묻자, 곧 이 지역에서 20, 30리 되는 곳에 있다고 한다. 해는 마침 어두워지려고 하였다. 또 발은 대단히 피곤하여 숙박할 곳을 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 곧 토민(土民)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또한 권유하여 이 지역에서 20여 정(町) 떨어진 호농(豪農) 장영창(張榮昌)의 집에 이르러 1박을 청하였다. 주인이 승낙하여 겨우 이 집에 숙박하였다. 동학도가 이 지역을 지나갔는데 이 집에 와서 침식을 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이로 보아 창고가 대단히 풍요로워 보이는데 (동학도는)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고 갔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이 사람의 성격은 온후하여 우리들을 대하는 것이 거의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 밤 영창과 이야기 하였는데, 대도소(大都所) 전명숙은 옥과

(玉果)에 있고 그 여 당(餘黨)은 이 지역을 지나 20리의 원평(院坪)에 있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다음은 원평집강소에서 겪은 일을 기록해 놓은 전문이다.

7월 17일 일부러 화려한 복장을 입고 오전 8시 눈을 떠 장씨의 집을 나와 팔을 걷어붙이고 원평 땅을 향해 2리 가까이를 가 정오경에 원평에 도착했다. 황건(黃巾)을 머리에 두르고 화승총을 어깨에 메고 오는 자와 만났다. 내가 그를 불러 도소(都所)가 있는 곳을 물었더니 그는 기뻐하며 우리들을 인도해 갔는데, 길 옆에 작은 언덕이 하나 있고 소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노란 두건을 멘 자, 보라색 두건을 멘 자, 녹색 두건을 멘 자 대략 40~50명이 있었는데, 모두 화승총을 휴대하고 좌우로 뒤섞여 있었다. 총과 두건을 갖고 있지 않은 자 또한 대략 120~130여 명으로 서로 왕복하였다. 우리들 일행이 도착하자 도로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자 중앙에 세 명이 거만스럽게 앉아 있었다. 먼저 도소가 누구인가를 물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답하기를 “도소는 즉 저 사람과 나다.”라고 하였다. 나는 바로 붓을 들어 적었다. “그대들은 잠시 앉아라. 우리가 알릴 것이 있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이곳에 왔다.”라고 하였다. 또 좌우를 물리도록 명하였다. 그들은 단지 그대로 따랐다. 잠시 뒤 내가 묻기를 “일본군과 청군이 조선에 온 까닭을 아느냐, 모르느냐?”고 하였다. 그들은 문자에 능숙하지 않고 주저하며 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기를, “청국은 일찍부터 귀국을 멸망시키고 국왕을 폐출함으로써 청나라의 하나의 성(省)으로 삼으려는 생각이 있다. 그대들이 고부지방에서 한 차례 의거를 일으켰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리(統理) 원세개(袁世凱)는 몰래 혜당(惠堂) 민영준(閔泳駿)을 권유, 협박하여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게 했다. 청군이 오는 이유는 하나는 그대들을 살육하고 또 하나는 귀국을 멸망시키려는 생각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대들의 의거를 찬동하여 청국의 야심을 격파하고 형제가 서로 돕고 입술과 이가 서로 의지하는 까닭으로 신병(神兵) 수만 명을 한성으로 보낼 것이다. 대체로 그대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내정의 개혁을 이루고 또한 외적을 토벌하려고 할 뿐이다. 생각건대 그대들의 뜻이 어떻든 간에 그대들이 이미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알려졌다. 그대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에 대처하려 하는가.”라고 하였다. 그는 겨우 붓을 들어 답하기를 “우리들이 이곳에 모인 까닭은 원래 보국안민을 위하는 것뿐이다. 그렇지만 일의 대소 경중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대도소(大都所)의 명에 따른다. 그대들이 만약 알리고 피할 것이 있다면 바라건대 대도소에 가서 말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대도소가 있는 곳을 물었더니 지금 옥과에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날마다 거처가 일정하지 않다. 가는 도중에 시장 사람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바에 대해 일일이 답하지 않았지만 이치에 따르고 깊이 의(義)에 감동하는 기색이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드러났다. 그들이란 즉 조원집(趙元執)과 김윤희(金允浩) 두 사람으로 연령이 모두 아직 4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른바 금구(金溝) 회소(會所)의 도소(都所), 즉 통령(統領)으로서 그밖에 도찰(都察) 모, 성찰(省察) 모, 일포(一砲) 모, 이포(二砲) 모라는 자가 있어 병력 1천명으로 이를 금구 회소가 통솔한다고 한다. 짐꾼이 사방에서 쌀과 보리를 운반해 오는데, 이것은 징발한 것으로 보인다. 표수(倭數)가 대략 30여 표(倭)이다. 우리들은 이로부터 남쪽 옥과로 가기로 논의해 결정했다. 먼저 오찬을 하기 위해 도소에 전달해 두세 명으로 하여금 우리들을 음식점으로 안내하게 했다. 식사가 끝난 뒤 조

(趙) 도소가 와서 송별의 말을 했다. 오후 2시 동학도인 10여 명의 전송을 받으며 원평을 나와 7시태인(泰仁)을 지나 1리 거리에 있는‘독박리’ 주막에 투숙했다.

18일 오전 5시 ‘독박리’를 출발해 담양(潭陽)으로 향했다. 대체로 대도소는 광주에 있다는 설이 있다.³⁹

전봉준을 대도소라 지칭하고 있으며, 그는 지금 옥과에 있지만, 수시로 각기를 순회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금구 회소’의 도소=통령은 아직 40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조원집(趙元執)과 김윤호(金允浩) 두 사람이라는 점, 그 아래 도찰(都察), 성찰(省察), 일포(一砲), 이포(二砲) 등의 직책이 있으며, 이들이 1천 명 정도의 농민군을 통솔하고 있다는 점, 사방에서 쌀과 보리 등 아마 군량으로 쓸 곡물을 징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덕령은 아마 금구와 원평 등을 모두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도소’를 직접 맡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도소’ 곧 전봉준이 농민군을 총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 집강소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서구중심적 근대중심적 인식에 의한 접근은 리차드 피트(Richard Peet)가 지적했듯이 한국의 역사 경험에 대한 이해가 서구의 사고방식에 지배되고, 서구에 대한 모방과 무비판적 방식에 길들여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⁴⁰ 예컨대 동학농민전쟁을 독일농민전쟁이나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의 아류(亞流) 정도로 이해하면서 자랑스러워하거나, 세계 몇 대혁명 등등의 표현으로 만족해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⁴¹ 또 한국사의 독자적 경험 내지 개성은 발언할 자격이나 역사적·현재적 의미를 박탈당한다. 서구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은 역사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채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억압, 외면되거나 왜곡되거나, 서구의 길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사라져야 할 것들로 폄하된다. 어느 쪽이든 한국의 독자적 경험은 전근대사상을 구성할 때도 주변으로 밀려나지만, 특히 근대 이후의 역사에 대해 발언할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창의적 사고, 독창적인 문제 제기나 분석방법의 제시가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39 우미우라(海浦篤彌), 『東學黨視察日記』,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25.

40 Peet, Richard, "Social Theory, Postmodernism, and the Critique of Development", Edited by Georges Benko and Ulf Strohmayer, *Space and Social Theory: Interpreting Modernity and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1997, pp.83~84.

41 동학농민전쟁을 프랑스혁명, 루터의 종교개혁, 영국의 청교도혁명(크롬웰의 정치개혁), 미국혁명 등과 비교하는 연구는 1920년대부터 쏟아졌고, 이러한 인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고광규, 「동학당과 갑오역」, 『학지평』 21, 1921.1, 56~57쪽; 황의돈, 「민중적 규호의 제1성인 갑오의 혁신운동」, 『개벽』 22, 1922.4, 17~18쪽; 김병준, 「동학군도원수 전봉준」, 『별건곤』 14, 1928.7, 13쪽 등 참조. 또 북한에서도 「갑오농민전쟁은 비록 투쟁 강령에서의 제한성과 전략전술의 미숙성, 무장에서의 열등성으로 하여 실패하였으나 인민의 반봉건, 반침략 투쟁과 나라의 근대화를 강력히 추동한 애국적, 진보적 성격으로 하여 조선력사 발전을 힘 있게 떠밀고 근대 조선의 역사를 빛나게 장식한 거대한 사변으로 되었으며 중국의 <태평천국>농민전쟁, 인도의 시파이 폭동과 함께 아세아의 3대 항전으로 19세기 아세아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벽종을 크게 울린 특기할 역사적사변으로 되었다」고 하여 중국과 인도의 역사적 대사건에 견주어 평가하기도 했다(허종호, 「갑오농민전쟁의 성격과 특징」, 원종규 외, 『갑오농민전쟁 100돌기념논문집』, 집문당, 1995(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179쪽). 지금도 동학농민전쟁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거나, 또 그것이 가진 개성적 측면에 대한 접근보다는 프랑스혁명 등의 아류로 이해하는 데 만족하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조차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⁴² 조선 사회의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이고 있던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간들은 서구중심적, 근대중심적 시간관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독자적인 이해를 하려는 시도도 거의 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우리의 언어로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태도나 접근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가진 개성적 측면을 몰각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전개되어 온 과정, 나아가 앞으로 나아갈 인류사의 방향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만다.

따라서 조선 후기 이래 아래로부터 형성되어 가던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들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집강소의 경험에 내포된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선 후기 이래 민중의 분투에 의해 아래로부터 형성되어 가던 새로운 정치체제 구상의 단초는 멀리 임진왜란 이후 시작된 상하합계, 혹은 그 이전부터 찾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8세기에 들어 시작된 총액제와 공동납 제도의 시행이었다. 이때부터 새로운 부세 운영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회’류의 새로운 논의 구조와 ‘민중공론’의 성격을 띤 새로운 공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일부에서는 관권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상, 그리고 신분적·경제적 차별 없이 가호(家戶)마다 1명의 대표-물론 성인 남성 중심가 참여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좀 더 진전된 ‘공론’ 형성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어 민란을 거치며 향촌 차원의 새로운 논의구조는 더욱 진전되어 갔다. 예컨대 진주에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사노(私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진행 과정에서도 주도층에 노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고성민란의 〈민회소〉 사례에서 보이듯이 주민들은 ‘민중공론’을 기초로 수령과 협상을 통해 〈사실소〉라는 일종의 읍정(邑政) 감찰기구를 만들고, 그 실무자로 자신들이 선정한 인원들을 보냄으로써 군수의 권한을 견제, 감시하는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민회’의 경험과 그에 대한 감각은 동리→면→군현→도→중앙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중앙집권적 정치시스템과 결부되면서 동학농민군에 의한 중앙정부의 혁신 요구로 이어졌고, 이는 더 진전된 새로운 질서의식, 나아가 중앙 차원의 새로운 정치체제 구상으로 연결되었다. 우선 민란 당시 ‘민회’, ‘민회소’ 등 아래로부터 형성해 간 새로운 정치질서와 관련한 경험,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전제로 한 보국안민의 주체라는 동학농민군의 자각은 정치질서 내지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더욱 진전된 구상과 가능성을 만들어 갔다.⁴³

동학농민전쟁 시기 보국안민의 주체로서의 자각, 그리고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고 인정과 민본을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는 향중공론만이 아니라 국정 차원에서도 사농공상이 신

42 Alatas, Syed Farid, "On Indigenization of Academic Discourse", *Alternatives: Global, Local, Political*, 18:3, 1993, p.308.

43 배향섭, 「19세기 후반 민중운동과 公論」, 『한국사연구』 161, 2013; 「19세기 향촌사회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공론의 대두-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새로운 정치질서-」, 『조선시대사학보』 71, 2014 참조.

분적 차별 없이 한마음으로 논의하고 협력하여 보국안민을 실현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사농공상이 함께 협력하여 국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 곧 새로운 공론, 나아가 새로운 정치질서를 향한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농민군은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농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진전된 새로운 논의기구를 창출해 나갔다.

우선 동학농민전쟁 당시 전주에 살던 유생 정석모(鄭碩謨)는 농민군이 전라도 각 군의 공해(公廨)에 집강소를 둔 사실과 집강소 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⁴⁴ 집강소는 대체로 각 군현의 관아에 설치되었고 서기(書記)·성찰(省察)·집사(執事)·동몽(童蒙)과 같은 임원을 두고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또 오지영의 『동학사』에 따르면 군현마다 집강소를 두고 집강을 책임자로, 그 아래 의원 혹은 의사원(議事員) 십수 인 혹은 ‘약간 명’을 두고 협의체로 운영하였다고 한다.⁴⁵ 집강소의 이러한 구성과 운영원리 역시 민란 당시 ‘민회’, ‘민회소’ 등 아래로부터 만들어 간 새로운 정치질서와 관련한 경험과 보국안민의 주체라는 자각이 결합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농민군이 일찍부터 사농공상의 사업지민(四業之民)이 동심협력하여 위로는 국가를 돕고 아래로는 빈사(濱死) 지경에 이른 민생(民生)들을 편안케 하겠다고 했다는 점에⁴⁶ 근거해 보면 집강소 의사원의 자격 조건에는 신분적·경제적 차별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평집강소가 천민출신의 동록개가 기부한 집에 설치되었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경험을 단지 서구가 먼저 달성한 민주주의의 아류 정도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서구의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서구가 만들어 간 대의제 민주주의와 결을 달리하는 면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엄 촘스키(Noam Chomsky)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주의에는 출발부터 귀족적 요소와 불평등한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 헌법의 주요 설계자인 제임스 매디슨(James Maddison)은 그 시절 전세계 누구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였지만, 부유층의 수중에 권력을 두는 방식으로 체제를 설계해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가난한) 다수에 대항해 부유한 소수를 보호하는 기구인” 상원이었다. 당시 상원의원은 20세기 초까지도 선출직이 아니라 주의회에서 선정되었고 임기가 길었으며 부유층에서 뽑혔다. 매디슨이 말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다. 상원은 대부분의 권력을 가졌지만 국민들과는 가장 거리가 멀었다. 반면 국민들과 더 가까운 하원은 역할이 훨씬 미약했다. 일반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민주화 경향, 즉 아래로부터의 압력은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1920년대에 여성들은 투표권을 쟁취했고, 노예들은 1960년대에 공식적인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귀족적 요소와 민주적 요소의

44 鄭碩謨, 『甲午略歷』, 『총서』 5, 417쪽.

45 吳知泳, 『東學史』, 永昌書館, 1940, 126.

46 『東匪討錄』, 『총서』 6, 176쪽;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 : 1894年の農民戰爭篇』, 320~321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0쪽; 『內亂實記 朝鮮事件』, 『총서』 25, 192~193쪽; 『東京朝日新聞』, 明治 27年 6月 8日, 『총서』 22, 354~355쪽; 『萬朝報』, 明治 27年 6月 7日, 『총서』 22, 407~408쪽.

분열은 미국 역사를 관통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⁴⁷ 얀 네더빈 피터스(Jan Nederveen Pieterse)는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영국 상원의회와 많은 유럽의회에 있는 상원들은 지주들과 귀족, 농업적 이해의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역할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농업적 이해는 ‘후기봉건(late-feudal)’적 성격이라고 하였다.⁴⁸

4. 나가는 말

20세기 후반 들어 서구의 역사적 경험이나 그들의 ‘근대’가 더 이상 추종의 대상만이 아님은 더욱 자명해지고 있다. 그것은 ‘근대’가 만들어 낸 대표적인 성취로 인식되어 온 ‘민주주의’조차⁴⁹ 글로벌한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근원적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대체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민주주의의 위기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⁵⁰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극히 형식적인 의미 말고, 근대 민주주의가 평등을 내세운 적은 결코 없으며, 민주주의에는 불평등과 배제, 차별이 필연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⁵¹ 이처럼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국내적인) 불평등이나 차별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⁵² 글로벌화에 따른 자본의 국제화와 다국적 기업의 확산은 민주주의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47 노엄 촘스키 지음, 유강은 옮김, 『불평등의 이유 :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10가지 원리』, 이테아, 2018, 20~28쪽.

48 Pieterse, Jan Nederveen, "Multipolarity Means Thinking Plural: Modernities," *Protosoci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26, 2009, pp.19~35 참조.

49 중세를 상징하는 ‘봉건적’ 공동체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민사회에 근거하여 발달해 간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함께 ‘근대’를 이끌어간 양대 축이었다는 이해가 일반적이다. 민주주의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의 ‘초기값’ 설정처럼) 모든 시대와 사회적 풍토에서, 일종의 일반적인 규칙처럼 존중받는 몇 안 되는 압도적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그 잠재적 의미에 대해서는 간단한 또는 안정된 기표-기의 관계가 없다.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풍성하고, 시사하는 바가 많고,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용어이며, 이러한 사실이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잠재적인 정치적 무기로 만든다.” 마이클 사워드, 강정인·이석희 옮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까치, 2018, 56쪽·39~40쪽.

50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2008년 금융위기(Lehman Brothers 사태)를 계기로 터져나온 미국 서민층의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는 “월가를 점령하라”의 직접적인 계기는 경제시스템의 불공정, 불투명성 때문이지만, 정치 역시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희생시켜 상위 계층에게 이득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하였다. 또 그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나머지 구성원들을 희생시키는 법률체제를 지지하는 경제 엘리트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경제시스템의 불평등과 불공정이 가져온 위기는 민주주의 약화, 공정성과 정의 등의 가치 훼손,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로 연결된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열린책들, 2013, 36~41쪽.

51 웬디 브라운, 『오늘날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이다』, 조르조 아감벤 외, 김상운 옮김,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 난장, 2010, pp.94~97.

52 20세기 후반 자본주의가 인기를 누리게 된 근거였던 계층 상승의 약속은 너무나 높고 믿지 못할 것이 되어 버렸다. 재능이나 자신의 노력을 훨씬 넘어서서 출신이란 요소가 어떤 개인이 사회적 소득과 재산 피라미드의 정상에 특별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음을 결정한다. 자라 바겐크네히트 지음, 장수한 옮김, 『풍요의 조건 : 자본주의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법』, 제르미날, 2018, 23쪽.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⁵³ 홉스봄(Eric Hobsbawm)은 “민주주의는 정부의 최악의 형태이다. 다만 다른 모든 형태는 우리가 이미 시도해 봤을 뿐이다.”라고 한 처칠의 지적에 일정한 동의를 표하면서 특히 국민국가의 영토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세계화와 초국적 기업에 의해 야기되는 지구적 환경문제 등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민주주의는 희망적이지 않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또한 그는 시장으로의 참여가 정치로의 참여를 대체하였고, 소비자가 시민의 자리를 대신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의민주주의와 ‘대중의 뜻(people’s will)’이 21세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며 민주주의와 대중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기도 하였다.⁵⁴ 세계화와 초국적 기업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는 지구적 환경문제뿐만 아니다. 오늘날 불평등과 부패 역시 글로벌한 차원의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1세계의 자본과 국가권력은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3세계 권력자들의 부패와 불평등에 눈 감거나 공모하고 있다는 비판도 그런 면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점에서 선진국 시민들의 안일과 욕망 충족은 제3세계의 부패와 환경 파괴를 대가로 한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환경 파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⁵⁵

근대 서구 문명이 식민지와 식민지 착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근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유럽의 국가들은 대체로 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갔으며, “민주시민”들의 협조 속에 ‘문명’의 이름으로 스스로 ‘야만’으로 규정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식민주의적 침략과 폭력, 그에 수반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약탈, 노예무역과 인종차별 등 ‘야만적’ 행위를 무수하게 자행하였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약탈을 대가로 서구의 ‘민주시민’들은 풍요와 안락, 복지를 누렸다. 이 점에서 국내의 “민주주의”와 식민 지배 및 제국주의 침략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반성과 화해는 일부 국가들에서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많은 제국주의 침략 국가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⁵⁶

또한 네그리와 하트는 ‘Occupy Wall Street운동’을 목도한 후 “민주주의가 경제 위기의 타격으로 비틀거리고 있으며, 다중(multitude)의 의지와 이익을 대변하는 데 무력하다면, 이제는 그러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여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해 근원적 의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민주적 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⁵⁷

53 “무엇이 민주적인 지배가 적용되기에 적절한 집단이나 공동체 또는 단위인가? 국민국가가 아니라면, 그것은 지방인가? 지역인가? 세계인가? 강력한 기업의 고객들인가?”(마이클 사워드, 강정인·이석희 옮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까치, 2018, 161~162쪽). 낸시 프레이저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낸시 프레이저 지음, 김원식 옮김, 『지구화 시대의 정의』, 그린비, 2010).

54 Hobsbawm, Eric, Democracy can be bad for you, *New Statesman*, 5 March, 2001, pp.25-27.

55 “부자 나라의 시민들은 저개발, 권위주의적 국가에 대한 약탈, 그에 따른 빈곤에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Follesdal, Andreas & Pogge, Thomas, “Introduction”. In: Follesdal A., Pogge T. (eds) *Real World Justice*. Springer:Dordrecht, p.8.

56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향섭, 「한국 근대사 이해의 글로벌한 전환과 식민주의 비판 -기후변동과 역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역사비평』 145, 2023 참조.

57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The fight for ‘real democracy’ at the heart of Occupy Wall Street”, *Foreign affairs* 11, October 2011

이 같이 민주주의는 국가 내부에서든 글로벌한 차원에서든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근대가 만들어 낸 가장 훌륭한 시스템이자, 근대인들에 의해 “압도적 믿음” 가운데 하나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조차도 이제는 새롭게 질문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모두 ‘근대’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그 너머에 대한 상상과 고민을 요청하는 현실이라 생각된다. 여기에 최근 수개월간 지속되는 아마존 밀립의 화재가 상징하듯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기업, 개인들의 환경 파괴와 그에 공모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모습이 더해지면 ‘근대’ 너머에 대한 고민은 더욱 절실해진다.⁵⁸

서구와 근대를 기준으로 삼아 발전을 추구하고 그에 맞추어 역사 전개 과정을 이해해 온 역사인식과 서술방식은 더 이상 현재성을 가지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고, 현재를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역사 연구에서도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접근이 요청된다.⁵⁹ 서구가 걸었던 ‘근대 이행의 길’을 상정하고 그에 합치하거나 근사한 ‘근대적’, 혹은 ‘근대 지향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들을 강조해 온 서구·근대중심적 인식이나 접근은 반성되어야 한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비근대적, 반근대적이라고 판단되어 배제되거나 왜곡되어 온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다른 가능성, 근대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의 단서들을 재발견해 내어야 할 것이다.

58 그래서 최근 생태학적 민주주의의가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이 아닌 자연의 이해관계에 대한 책임성(자연의 대리 대표제)”, “세대를 가로지르는 책임성”, “번영하는 공동체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헌법적 책임성(생태학적 제한에 대한 헌법적 규정)” 등을 주장한다(마이클 사워드, 앞의 책, 209~213쪽).

59 예컨대 최근 피케티(Thomas Piketty) 역시 다음과 같이 단선적 발전론에 의한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기계적으로 이행한다는 이론은, 세계의 상이한 나라들과 지역들, 특히 식민본국과 식민지 사이를 비롯해 각각의 지역들 자체에서도 역시 관찰되는 역사적이며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궤도의 복잡성과 다양성들을 규명해 주지 못하며, 특히 이후 단계들을 위한 유용한 교훈들도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반추해보면, 대안들은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거라는 점이 확인된다. 발전의 매 단계에서 경제·사회·정치 체계를 구조화하고, 소유관계를 정의하며, 조세와 재정제도 또는 교육제도를 조직하고, 국가채무와 사적 채무 문제를 처리하는, 또한 여러 인류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다수의 방식이 있다. 과거의 다양한 역사적 궤도와 여러 미완의 분기들에 대한 연구는 엘리트주의적 보수주의와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혁명적 관망주의 둘 다에 잘 듣는 최상의 해독제이다”(토마 피케티, 안준범 옮김, 『자본과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2020, 21쪽).

「원평집강소를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민주주의 실현」 토론문

전경목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배항섭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원평집강소를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민주주의 실현」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조선 후기 이래 아래로부터 형성되어 가던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들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집강소의 경험에 내포된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54쪽)는 주장일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이어서 동학농민전쟁 이전의 각지의 민란을 통해 “‘민회’, ‘민회소’ 등 아래로부터 형성해 간 새로운 정치질서와 관련한 경험,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전제로 한 보국안민의 주체라는 동학농민군의 자각은 정치질서 내지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더욱 진전된 구상과 가능성을 만들어 갔다.”(54쪽)고 진단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단지 서구가 먼저 달성한 민주주의의 아류 정도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서구의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서구가 만들어 간 대의제 민주주의와 결을 달리하는 면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55쪽)고 결론지었다.

토론자는 조선 후기 지방사회에 대해 공부를 했으며 그것도 고문서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측면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동안 열람했던 자료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며 시각 자체가 매우 편향적이라 할 수 있는 데다, 동학농민전쟁과 관련된 자료를 섭렵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배항섭 교수님의 주장을 검증할 만한 지식이 없다. 그렇지만 배 교수님의 발표문을 꼼꼼히 읽어본 결과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동학농민전쟁이 우연히 발발한 조선 후기의 민란 중의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민란을 통해 거론되었던 수많은 정치, 사회, 경제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원인과 중국과 일본 및 조선의 정치 지정학적인 여러 원인 때문에 농민군들이 잔인하게 희생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는 대사건이었다. 따라서 보국안민의 주체라는 동학농민군의 자각은 정치질서 내지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더욱 진전된 구상과 가능성을 만들어 갔으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 전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가 먼저 달성한 민주주의의 아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또 나아가 동학농민전쟁을 통해 서구의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서구가 만들어 간 대의제 민주주의와 결을 달리하는 면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배 교수님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연구들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은 여전히 서구에서 보았던 여러 혁명의 아류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구 혁명의 아류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적 상황에서 빚어진 독특한 혁명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학농민전쟁의 연구 방향에 대한 배 교수님의 이러한 주장이 관철되려면 세부적인 연구 결과가 부합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발표문 1장 ‘동학농민혁명과 원평’ 및 2장 ‘원평집강소의 의미’ 전반부에서 집강소와 민주주의를 충분히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원평의 집강소에서 실시한 어느 정책이 민주주의와 연결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원평의 집강소에서 실시한 어떠한 정책이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논증하지 못했다. 또 그러한 정책이 ‘민주주의’라는 서구의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추후에 충분히 그리고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증명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토론자는 지난여름에 기행현의 『홍재일기』를 근거로 하여 근대 전환기 부안의 상황과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이라는 연구물을 발표한 바 있는데, 배 교수님과 같이 동병상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어서 잠깐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한다. 『홍재일기』에 따르면 19세기 부안현에서는 수령이 백성들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있으면 향회를 열어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 당시 향회는 양반은 물론 평민이나 천민들도 참여했다. 따라서 완전히 신분적인 차별없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신역이나 세금 등을 평민이나 천민이 전적으로 부담했던 때와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있다. 물론 수령이 무능했기 때문에 책임을 향회나 백성에게 전가하기 위해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전과는 매우 달랐다. 자치적으로 하다 보니 심지어는 양반들이 경제적 부담을 평민이나 천민에 비해 더 많이 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신분상의 차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수령이 주도하는 사회에 양반뿐만 아니라 향리들도 자유스럽게 참여했으며, 더군다나 향리들이 양반을 제치고 장원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기행현은 부안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양반이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양반들이 기피하는 훈집을 숙부와 함께 대를 이어가며 담당했다. 훈집은 먼 단위에서 행정실무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신분의 면민들을 만나서 실갱이를 해야 했고 또 읍에 들어가서는 여러 구실아치들을 만나야 했다. 심지어는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그의 동생이 대신 수령으로부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훈집의 역할을 해서 그랬는지 자연히 먼 내외뿐만 아니라 다른 고을의 양반과 향리 및 평민들과도 스스로 없이 잘 어울렸다. 또 물가에 관심이 많아 관내의 시장은 물론 인근 고을의 시장을 돌아다니고 직접 물건을 매매하기도 했다. 농사에 관심이 지대하여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이를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다른 양반들처럼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실용적이며 개방적인 사고를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동학농민군들이 관찰사에게 개혁적인 시정개혁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각 고을에 집강

소가 설치되었던 것들은, 적어도 부안현에 국한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관과 민이 서로간에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동학농민전쟁에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은 기행현과 같은 실용적이며 개방적인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을 보고 거기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라 추정했다. 물론 고백컨대 저의 주장이 매우 거칠고 논증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기행현은 전혀 혁명적이거나 개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양반으로 시대상에 따라 적응해서 살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동학농민전쟁이 새롭지도 않고 혁명적이지도 않은, 조선 후기에 흔하게 발생한 민란 중의 하나일 뿐인데 규모가 좀 더 컸을 뿐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궤변이라 하겠지만 자료나 역사는 평범한 것을 기술하지만 역사학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자료에서 새로움을 찾아내지 못하면 역사학은 존재하거나 존속할 수 없다.

사료를 보고 해석하는 시각이나 관점이 매우 중요하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치밀한 논지 전개도 중요하다. 아울러 자료의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 평민이나 천민의 입장에서 자세히 쓴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일기나 기록의 발굴이 된다면, 이러한 논쟁은 하루빨리 종식될 것이라 생각된다.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유족 증언

이병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1. 머리말

현재의 김제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김제군, 금구현, 만경현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논의는 주요 사건과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던 금구현(원평)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당시 독립된 행정구역이자 독자적인 활동 공간이었던 만경현과 김제군 지역의 활동상은 상대적으로 주변화되거나 금구 지역의 부속 세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체상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만경현과 김제군은 물론, 핵심 지역이었던 금구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활동을 지역별로 재검토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발표의 중요한 자료적 토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재까지 등록된 공식 등록자료이다. 지금까지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총 4,033명, 유족은 13,839명에 이른다. 본 발표는 이들 등록 자료에 근거하여 김제 지역 참여자들의 활동상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인적 정보 위에서 고찰할 것이다. 나아가, 공식 기록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혁명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참여자들의 삶을 유족 증언이라는 입체적 자료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활동의 폭과 깊이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2.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

1) 만경현

현재까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만경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표1)과 같이 모두 16명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경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이나 참여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록된 인원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지만, 실제로는 만경 지역에서도 상당수의 동학농민군이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만경 지역의 참여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그중에서 어떤 인물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주도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혁명에 참여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표1) 만경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¹

순서	참여자	참여 지역	참여 내용	출생 사망일	등록일자
1	곽자덕 (郭子德)	전라도 만경	곽자덕은 전라도 만경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사람들에게 맞아 사망함	미상~1895.1	2009.11.25
2	김공광 (金公光)	전라도 만경	김공광은 1894년 10월 전봉준의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 시, 전라도 만경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미상	2009.11.25
3	김공선 (金公先)	전라도 만경	김공선(異名 : 功善)은 1894년 10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시, 전라도 만경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미상	2009.11.25
4	김원봉 (金元奉)	전라도 만경	김원봉은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1894년 전라도 만경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관군에게 쫓김	미상	2009.11.25
5	박도원 (朴道源)	전라도 만경	박도원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전라도 만경에서 관군에게 체포됨	미상	2009.11.25
6	박봉관 (朴奉寬)	전라도 만경	박봉관은 접주(接主)로서 전라도 만경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순무영의 지시에 따라 처형됨	미상	2009.11.25
7	석구 (石九)	전라도 만경	석구는 관노 출신 접주(接主)로서 전라도 만경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관군으로부터 도망하여 쫓김	미상~1895.1	2009.11.25
8	손판구 (孫判九)	전라도 만경	손판구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1894년 전라도 만경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관군에게 쫓김	미상	2009.11.25
9	순익 (順益)	전라도 만경	순익은 관노 출신 접주(接主)로서 전라도 만경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체포되어 사망함	미상~1895.1	2009.11.25
10	유희원 (柳熙源)	전라도 태안·고부·만경	유희원은 1894년 3월 백산봉기 등 여러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만경으로 피신하였으나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되어 처형됨	1847.7.25.~1895.1.27	2008.05.20
11	임도원 (任道元)	전라도 만경	임도원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전라도 만경에서 관군에게 체포됨	미상	2009.11.25
12	정보경 (鄭甫景)	전라도 만경	정보경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전라도 만경에서 관군에게 체포됨	미상	2009.11.25
13	진성서 (陳聖瑞)	전라도 만경	진성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전라도 만경에서 관군에게 체포됨	미상	2009.11.25
14	진우범 (陳禹範)	전라도 만경	진우범은 1894년 3월 전라도 만경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관군에게 체포됨	미상	2009.11.25
15	진원필 (陳元弼)	전라도 만경	진원필은 접주(接主)로서 전라도 만경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순무영의 지시에 따라 처형됨	미상~1895.1	2009.11.25
16	홍인영 (洪仁永)	전라도 만경	홍인영은 접주(接主)로서 전라도 만경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순무영의 지시에 따라 처형됨	미상~1895.1	2009.11.25

만경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핵심 지도자는 진우범(陳禹範)으로 보인다. 오지영의 『동학사 초고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cdpr.go.kr/commit>)

“호남창의소(湖南倡義所) 재고부백산(在古阜白山) …… 다수(多數)한 도인(道人)을 영솔(領率)하고 온사람으로
 이는 이러하다 …… 금구(金溝)에 송태섭(宋泰燮) 조원집(趙元集) 이동근(李東根) 유공만(劉公萬) 유한필(劉
 漢弼) 유원술(劉原述) 최광찬(崔光燦) 김응화(金應化) 김사엽(金士曄) 김봉득(金鳳得) 김윤옥(金允玉) 김인
 배(金仁培) 김가경(金可敬) 등(等) 이오 김제(金堤)에 김봉년(金奉年) 조익재(趙益在) 황경삼(黃敬三) 하영운
 (河永雲) 한경선(韓景善) 이치권(李致權) 임예옥(林禮郁) 한진설(韓鎭說) 허성희(許成義) 등(等)이오 만경(萬
 頃)에 진우범(陳禹範)이오 …….”²

이 기록은 1894년 3월 백산에서 전개된 제1차 봉기에 진우범이 만경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한 지도자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천도교회사초고(天道教會史草稿)』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
 이 확인된다. 이 자료에는 “同年(1894) 三月에 …… 陳禹範은 萬境郡에서 …… 起包하다”³라고 기록
 되어 있어, 진우범이 제1차 봉기 당시 만경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이끈 지역 지도자였음을 뒷받침하
 고 있다. 진우범은 제2차 봉기 과정에서도 만경 지역의 지도자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천도교서
 (天道敎書)』에는 1894년 10월 각 지역에서 봉기를 주도한 인물들을 열거하는 대목에서 “만경 진우범
 (陳禹範)”⁴이 다시 등장한다. 이 명단에는 고부의 정일서, 태인의 김개남, 금구의 김덕명·송태섭·김응
 화 등과 함께 진우범이 만경 지역 대표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그가 제2차 봉기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만경의 동학농민군을 이끌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진우범은 동학농민혁명 종결 시점까지 만경의
 동학농민군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1895년 01월 16일 금구, 태인, 만경, 정읍, 김제, 고부, 부안에 발송한 감결

순무영을 첩파하고 남은 비적을 초포하는 일은 각 해당 지방관으로 하여금 조처하게 할 뜻을 군무아문의
 관칙에 의하여 겨우 별도의 관문을 발송하였거니와, 지금 각 읍의 도망간 비적의 괴수들은 거개 붙잡았고,
 또한 힘을 다해 잡아 바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오직 본읍만은 본디 비적의 소굴이었기 때문에 비적을 잡
 는 일에 다른 고을보다 배나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예사로 생각하고 더욱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하고 있
 니, 혹시 꺼리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또는 혹시 내용을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생각
 이 여기에 미치니, 참으로 몹시 놀랍고 통탄스럽다. 입렴(入廉)의 단서가 없지는 않지만, 장래를 보아서 이에
 별도로 신칙하니, 후록(後錄)한 여러 놈들은 과연 모두 체포되었는지, 또는 혹시 이름자가 서로 틀린 놈들인
 지 일일이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라. 만일 끝까지 은피(隱避)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날날이 붙잡아내
 고, 설령 귀화하는 놈이 있다 하더라도 일체 잡아 가둔 뒤에 귀화의 곡절을 또한 보고해 올 것이며, 그 밖의
 미처 수록하지 못한 놈도 특별히 정탐하여 끝까지 추적해서 붙잡고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하지 말라. 만일 혹
 시라도 사사로운 정리에 끌려 놓아준다면 당해 수리향(首吏鄕)을 군율로 처단하는 일을 단연코 그만두지

2 오지영, 「격문」, 『동학사 초고본』

3 『천도교회사초고(天道教會史草稿)』(천도교중앙총부, 1920; 『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9, 455쪽)

4 「제2편 해월신사」, 『천도교서』

않을 것이고, 또한 책임소제도 분명히 따질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조심하도록 할 것.

고부와 부안은 후록(後錄)과 별칙(別飭)이 없지만, 농친 여러 놈들을 일일이 추적해서 붙잡아내고, 만일 귀화하는 놈이 있거든 일체 잡아 가둔 뒤에 귀화의 곡절을 상세히 조사해서 일체 보고해 올 것이며, 그 밖의 미처 수록하지 못한 놈도 특별히 정탐하여 끝까지 추적해서 붙잡고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하지 말라. 만일 혹 시라도 사사로운 정리에 끌려 놓아준다면 해당 수리향(首吏鄕)을 군율로 처단하는 일을 단연코 그만두지 않을 것이고, 또한 책임소제도 분명히 따질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조심하도록 할 것.

김제(金堤) 송태섭(宋台燮)[자는 일진日眞, 호는 동암東菴], 대접주(大接主) 강문숙(姜文叔, 두여리斗如里 사람), 송양선(宋良先)과 주문상(朱文尙, 한곤리閑困里 사람), 황경삼(黃敬三, 죽신리竹新里 사람), 김정수(金景秀, 수월리水月里 사람), 장화숙(張化叔, 옥산리玉山里 사람), 김막중(金莫重, 옥거리獄巨里 사람)

금구(金溝) 김염한(金鹽漢), 김덕명(金德明), 김방숙(金方叔), 김덕민(金德敏)[호는 용계龍溪, 거야巨野 사람]. 만경(萬頃) 박도원(朴道源, 읍내 사람), 진우범(陳禹範)과 진성서(陳聖瑞, 소목산小木山 사람), 임도원(任道元, 옥동(玉洞) 사람), 김접주(金接主, 상리(上里) 사람), 정보경(鄭甫景, 읍내 사람).⁵

진우범은 1895년 1월 16일자 「금구·태인·만경·정읍·김제·고부·부안에 발송한 감결」에서도 확인다. 이 문서는 선봉장 이규태가 순무영의 명에 따라 각 지방 수령에게 동학농민군 잔여 세력을 색출할 것을 지시한 공문으로, 각 고을에서 체포하지 못한 주요 지도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명단 가운데 만경 항목에는 “박도원(朴道源, 읍내 사람), 진우범(陳禹範)과 진성서(陳聖瑞, 소목산 사람), 임도원(任道元, 옥동 사람), 김접주(金接主, 상리 사람), 정보경(鄭甫景, 읍내 사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진우범은 소목산(小木山)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만경읍내의 박도원·정보경, 소목산의 진우범·진성서, 옥동의 임도원, 상리의 김접주 등은 모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규태가 만경현령에게 이들을 조속히 검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소목산과 옥동, 상리는 현재 김제시 성덕면 일대로, 서로 인접한 지역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진우범은 동학농민혁명 초기부터 만경 지역의 농민군을 이끌었으며, 제2차 봉기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혁명 종결 이후에도 인근 지역 농민군을 규합하며 항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자료는 동학농민혁명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만경 지역에서만 확인되는 특별한 동학농민군의 활동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1월 초 7일 [同日]

만경현령이 보고합니다. 현령이 이제 겨우 부임하였습니다. 동도를 귀화토록 하고,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들여 곳에 따라 안착하도록 하는 일이 과연 급선무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장차 공문을 베껴서 거리와 마을에 게시하여 계속하여 집집마다 효유하러 하는바, 읍내의 거괴 박봉관은 스스로 ‘호남도의장(湖南都義將)’이라

5 「금구·태인·만경·정읍·김제·고부·부안에 발송한 감결」,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 1895년 1월 16일

고 일컬으면서 전후로 한 못된 짓과 침탈을 이루 다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가 10월 모일에 읍 밑에 있는 노령(奴令)과 상민·천민과 마을의 무뢰배 수백 명과 함께 특별히 사생(死生)을 같이 하는 계(契)를 맺고 약속하여 말하기를, “한 사람이 원한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죽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이달 19일에 약속 장소에서 장차 읍속 몇 십 명을 살해하겠다”고 온 읍을 놀라게 하므로 읍의 장정들이 출동하여 기회를 만들어 뒤쫓아 잡았습니다.

위의 박봉관은 읍에서 10리 쯤 되는 은밀한 대숲에서 붙잡았습니다. 같은 무리 가운데 홍인영은 ‘호남의사(湖南義使)’로 불리며 거리낌 없이 날뛰어 여러 가지로 행패를 많이 부린 자이며, 그곳의 접주 노비 순익(順益), 노비 석구(石九)는 모두 관노로 계의 괴수가 된 자인데 본디 완악하고 사나워 항상 “이교를 먼저 죽이고 읍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7월 이후로 외촌(外村)의 조금 부유한 반민(班民)과 읍내의 아전과 군교를 결박하여 잡아가서 먼저 주위를 틀고 또 곤장을 쳐서 가두고 돈과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에 온 경내가 물 끓듯 하여 거의 수령도 없고, 읍속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갑자기 붙잡힐 때에 노비 석구가 먼저 기미를 알아차리고 도망쳤으며, 노비 순익은 하늘의 그물이 새지 않아 먼저 붙잡혔습니다. 병기를 바치도록 독촉하는 자리에서 가두고 묶었는데 완강하게 실토하지 않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거둬들인 병기는 화약이 180근·포 64자루·환도 34자루·창 180자루·탄환 11두(斗)·염초(焰硝) 6근이며 이른바 ‘모살계(謀殺契)’의 책(契冊)도 거둬들였습니다.

마을에 사는 거괴 진원필은 옛 무리 중의 수접주로서 도소(都所)의 포사대장(砲士大將)을 겸임하여 멋대로 위협하는 명령을 행하고 섬과 육지 사이에 포사를 출동하여 백성을 학대하고 허다하게 못된 짓을 하였는데, 이미 법 밖의 일입니다. 퇴직한 아전 곽자덕(郭子德)은 호남의 대괴 김석운(金碩允) 도소의 서기(書記)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시하고 시켜서 사람들을 모함하여 재산을 탕진시켰습니다. 이 또한 이미 놀라운 일인데, 또 그 아들을 시켜 박봉관의 도소에 들어가서 노령을 사주하여 도리어 장교와 향리를 묶어 때리게까지 하였으니, 동류를 업신여기고 풍속을 상하게 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죽이는 것이 옳다”고 말하며, 잡아 대령할 때에 많은 사람이 함께 분노하여 일어나 몽둥이질이 집중되어 마침내 그대로 죽었습니다.

읍 밑에 있는 손판구(孫判九)·김원봉(金元奉)은 계를 주도한 괴수로 도망 중이며 아직 잡지 못하였으니, 노비 석구와 아울러 각별히 더욱 뒤쫓아 잡겠습니다. 앞서 말한 죄인 박봉관·홍인영·진원필은 칼을 채워 굳게 가두고 한편으로는 순영문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급히 보고합니다.

제(題): 새로 부임한 초기에 시행한 계책은 마땅함을 얻었다. 비류의 거괴를 죽이고 이후 깨끗이 쓸어 없앤 일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이미 순무영에 보고하였으니 회답에 의해서 시행할 것이며, 뒤를 이은 상황을 차례로 급히 보고하라. 그리고 부임하였다는 보고[到任狀]를 애초에 올리지 않은 것은 지시를 보지 못해서 그러한 것인지, 담당자의 일 처리가 소홀함을 면하기 어려우니 상세히 조사하여 징계한 뒤에 보고하라.⁶

이 자료는 『순무선봉진등록』으로 선봉장 이규태가 주고받은 공문을 모은 자료인데, 1895년 1월 7

6 「만경현령 보고」, 『순무선봉진등록』, 1895년 1월 7일.

일 만경현령이 선봉장 이규태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만경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령 부임 직후 현내의 동도(東徒) 귀화와 민심 수습이 시급한 과제로 언급되어 있으며, 특히 ‘호남도의장(湖南都義將)’ 박봉관과 ‘호남의사(湖南義使)’ 홍인영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수백 명의 무리를 이끌고 ‘사생계(死生契)’를 조직하여 반관권적 행동을 전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7월 이후 부유한 양반과 아전·군교를 결박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등 지역 행정권을 사실상 장악하였으며, 이로 인해 “온 경내가 수령도 읍속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보고서에 나타난 만경 지역의 조직은 매우 체계적이었다. 박봉관은 호남도의장, 홍인영은 호남의사, 노비 출신인 순익과 석구는 접주, 진원필은 수접주이자 포사대장, 아전 출신 곽자덕과 김석윤은 서기로 활동하였으며, 손판구 역시 계의 주요 인물로 언급된다. 이처럼 이들은 다양한 신분과 직역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생계’ 또는 ‘모살계(謀殺契)’를 조직하여 상당 기간 만경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들의 규모는 수백 명에 달했고, 화약 180근, 포 64자루, 환도 34자루, 창 180자루, 탄환 11두, 염초 6근 등 상당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된다. 이들의 강력한 무장과 조직적 활동은 만경 지역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체포된 인물 중 일부, 예를 들어 접주 순익은 심문 중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결국 이들 대부분은 체포되거나 처형되었으며, 이로 인해 만경 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이 후대 기록에서 상대적으로 희미하게 남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만경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① 동학교도 계열과 ② 사생계(死生契) 계열로 구분된다. 김공광, 김공선, 박도원, 임도원, 정보경, 진성서, 진우범 등이 동학 계열에 속하며, 곽자덕, 김원봉, 박봉관, 석구, 손판구, 순익, 진원필, 홍인영 등은 사생계 계열로 분류된다. 즉 만경의 경우 두 세력이 공존하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진우범의 근거지인 소목산은 만경읍내와 매우 인접한 지역이지만, 동학교도 계열과 사생계 계열 간에 협력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진우범은 만경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대표하는 핵심 지도자로서 1차와 2차 봉기, 그리고 그 이후의 저항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던 인물로 평가된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만경 지역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으로 신청한 사례가 전무하다.

2) 김제군

당시 김제군은 금구현이나 만경현에 비해 군현의 세가 컸었다. 그러나 이웃의 금구 특히 원평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여 상대적으로 활동의 실상이 확인되지 못하였다. 현재 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등록한 김제 지역 참여자는 총 27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단⁷

순서	참여자	참여 지역	참여 내용	출생 사망일	등록일자
1	강명선 (姜明善)	전라도 김제 충청도 서천	강명선은 전라도 김제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1월 21일 충청도 서천에서 체포되어 총살됨	미상 ~1894.11.21	2009.11.25
2	강문숙 (姜文叔)	전라도 김제· 전주	강문숙은 1894년 10월 전라도 전주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전라도 김제에서 관군에게 체포됨	미상	2009.11.25
3	김경수 (金景秀)	전라도 김제	김경수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전라도 김제에서 관군에게 체포됨	미상	2009.11.25
4	김경영 (金景榮)	전라도 김제· 전주	김경영은 전라도 김제 월촌면 봉월리 출신으로 동학에 입교하여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전주감옥에서 1년 고초를 겪음	미상~1918	2009.11.25
5	김막중 (金莫重)	전라도 김제	김막중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전라도 김제에서 관군에게 체포됨	미상	2009.11.25
6	김문환 (金文桓)	전라도 고부· 전주·김제	김문환은 1894년 부친 김삼목과 함께 고부, 전주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청주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후 김제로 피신함	1866.3.3.~ 1930.6.20.	2009.01.16
7	김봉연 (金奉年)	전라도 김제	김봉연은 1890년 전라도 김제에서 동학에 입교하고 1894년 3월, 9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1867.~ 1920.2.27.	2009.11.25
8	김사익 (金士益)	전라도 고창· 김제·나주	김사익은 고창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1894년 12월 25일 김제에서 관군에게 체포된 후 1895년 1월 4일 나주의 일본 진영으로 압송되어 사망함	1845.~ 1895.1.5.	2009.11.25
9	김용환 (金容煥)	전라도 김제	김용환은 김개남의 선봉장이었던 김중화(金重華)의 아우로 1894년 전라도 김제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으며, 관군의 방화로 전신 화상을 입는 고초를 겪음	1834.~ 1926.2.27	2025.09.25
10	나방환 (羅邦煥)	전라도 김제 충청도 서천	나방환은 1894년 서천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4월 김제로 이동하여 활동하다가 전사함	1838.1.3.~ 1894	2008.05.20
11	송양선 (宋良先)	전라도 김제	송양선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전라도 김제에서 관군에게 체포됨		2009.11.25
12	양응조 (梁應祚)	전라도 김제	양응조는 1894년 2월 2일 전라도 김제에서 동학에 입교한 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9년 체포됨	1866.~ 1926.2.4	2009.11.25
13	이치권 (李致權)	전라도 김제	이치권은 1894년 10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시 전라도 김제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하였다가 총살됨	미상	2009.11.25
14	임예욱 (林禮旭)	전라도 김제	임예욱은 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시 전라도 김제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미상	2009.11.25
15	장화숙 (張化叔)	전라도 김제	장화숙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전라도 김제에서 관군에게 체포됨	미상	2009.11.25
16	정서현 (鄭瑞玄)	전라도 김제	정서현은 접주로서 전라도 김제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에 수감된 후 1894년 12월 28일 총살됨	미상~ 1894.12.28	2009.11.25

⁷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cdpr.go.kr/commit/>)

17	조익재 (趙益才)	전라도 김제· 나주	조익재(異名 : 益在)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1894년 1차, 2차 봉기시 전라도 김제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25일 관군에게 체포된 후 1895년 1월 4일 전라도 나주의 일본 진영으로 압송됨	미상	2009.11.25
18	조철태 (趙徹泰)	전라도 김제	조철태는 1894년 10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시 전라도 김제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전라도 나주에서 총살됨	미상	2009.11.25
19	주문상 (朱文尙)	전라도 김제	주문상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전라도 김제에서 관군에게 체포됨	미상	2009.11.25
20	하영운 (河永雲)	전라도 김제	하영운은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김제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미상	2009.11.25
21	한경선 (韓景善)	전라도 김제	한경선은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김제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미상	2009.11.25
22	한경희 (韓景禧)	전라도 김제	한경희는 1894년 10월 전라도 김제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참여함	미상	2009.11.25
23	한진열 (韓鎭說)	전라도 김제	한진열은 1894년 10월 전라도 김제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참여함	미상	2009.11.25
24	함완석 (咸完錫)	전라도 김제· 부안	함완석은 김덕명 휘하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 부안 등의 전투에서 어깨에 총상을 입고 형 기택과 함께 피신	1868.2.11.~ 1912	2006.11.20
25	허성의 (許成義)	전라도 김제	허성의는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김제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미상	2009.11.25
26	황부현 (黃夫玄)	전라도 김제· 나주	황부현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25일 전라도 김제에서 관군에게 체포된 후 1895년 1월 4일 전라도 나주의 일본 진영으로 압송됨	미상	2009.11.25
27	황종모 (黃宗模)	전라도 김 제·고부	황종모는 1894년 3월 김제 지역 책임자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으나, 1895년 1월 일본군에게 붙잡혀 처형당함	1854.2.25. ~ 1895.1.13	2008.05.20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에 따르면 1차 봉기 과정에서 김제에서 ‘호남창의소(湖南倡義所) 재고부백산(在古阜白山) …… 다수(多數)한 도인(道人)을 영솔(領率)하고 온사람으로는 이러하다 …… 김제(金堤)에 김봉년(金奉年) 조익재(趙益在) 황경삼(黃敬三) 하영운(河永雲) 한경선(韓景善) 이치권(李致權) 임예욱(林禮郁) 한진설(韓鎭說) 허성희(許成義) 등(等)이오 ……⁸⁾와 같이 김봉년 조익재 황경삼 하영운 한경선 이치권 임예욱 한진설 허성희 등이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도교서』에는 ‘10월에 신사가 각 포 도인을 불러 만나 보시고 손병희로 하여금 각 포를 통솔케 하시다. 이때를 전후하여 포를 일으킨 사람을 셈할진대 …… 김제 김봉년(金奉年), 조익재(趙益在), 황경삼(黃敬三), 하영운(河永雲), 한경선(韓景善), 이치권(李致權), 임예욱(林禮郁), 한진설(韓鎭說), 허성희(許成義),⁹⁾라고 하여 2차 봉기 과정에서도 이들이 김제 지역의 지도자로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8 오지영, 「격문」 『동학사 초고본』

9 「제2편 해월신사」 『천도교서』

비해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동학사 초고본』에서 확인되는 3월 1차 봉기의 지도자와 『천도교서』에서 확인되는 2차 봉기의 지도자의 명단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이 김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지도적 위치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선봉장 이규태가 주고받은 공문을 모아놓은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에는 체포해야 할 동학농민군 명단을 군현별로 기록해 놓았다. 김제는 ‘김제(金堤) 송태섭(宋台燮)[자는 일진日眞, 호는 동암東菴 임, 대접주(大接主) 강문숙(姜文叔, 두여리斗如里 사람), 송양선(宋良先)과 주문상(朱文尙, 한곤리閑里 사람), 황경삼(黃敬三, 죽신리竹新里 사람), 김경수(金景秀, 수월리水月里 사람), 장화숙(張化叔, 옥산리玉山里 사람), 김막중(金莫重, 옥거리)¹⁰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조익재는 체포되어 나주 초토영으로 압송되고, 황경삼 역시 체포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나주 초토영으로 압송되었다는 것은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김제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활동했던 인물은 조익재와 황경삼이 아닌가 싶다. 강명선은 조금 특이한 활동 경로를 보이고 있다. 그는 김제 출신인데 충청도 서천에서 서산군수 성하영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¹¹ 이는 당시 김제 동학농민군 활동 반경이 충청도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시 동학농민군들은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교류를 통해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정서현은 김제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후 1894년 12월 28일 총살당하였다.¹² 황부현은 김사익, 조익재와 함께 체포된 후 1894년 1월 4일 나주의 일본 진영으로 압송되었다. 김제 지역은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금구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별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금구와 연합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3) 금구현(원평)

금구 원평 지역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핵심적 거점의 하나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김덕명 대접주의 본거지이자, 집강소가 설치되어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지도부가 활동을 전개한 중심지였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금구 원평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총 41명으로 확인된다. 그 구체적인 명단과 활동 내역은 표3)에 제시하였다.

10 「금구·태인·만경·정읍·김제·고부·부안에 발송한 감결」,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 1895년 1월 16일.

11 「서산군수 성하영이 보고함」, 『갑오군정실기』

12 「죄인록」, 『각진장출성책』

표3) 금구 원평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¹³

순서	참여자	참여 지역	참여 내용	출생 사망일	등록일자
1	김가경 (金可敬)	전라도 금구	김가경은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금구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미상	2009.11.25
2	김덕명 (金德明)	전라도 금구·고부·삼례·공주	김덕명은 1894년 전라도 금구에서 대접주로 백산봉기를 주도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인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1895년 3월 재판을 받고 처형당함	1845.10.27.~ 1895.3.29.	2008.05.20
3	김덕민 (金德敏)	전라도 금구	김덕민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전라도 금구에서 관군에게 체포됨	미상	2009.11.25
4	김방서 (金方瑞)	전라도 금구·익산·장흥·나주	김방서(異名 : 方西, 芳瑞, 邦瑞)는 대접주로서 1894년 집강소 시기, 2차 봉기 시 전라도 익산에서 활동하였고 동년 12월 전라도 장흥에서 활동하다가 관군에게 체포된 후 나주의 일본군 진영으로 압송되었고 이후 1895년 3월 무죄로 풀려났으나 1895년 4월 전라감사 이도재에게 체포되어 처형됨	미상 ~ 1895.4	2009.11.25
5	김방숙 (金方叔)	전라도 금구	김방숙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전라도 금구에서 관군에게 체포됨	미상	2009.11.25
6	김봉득 (金鳳得)	전라도 금구	김봉득은 1894년 11월 전라도 금구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미상	2009.11.25
7	김순여 (金順汝)	전라도 금구	김순여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1894년 전라도 금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피신한 뒤 1896년 봄 전라도 나주에서 재봉기를 모의하였다가 체포되어 같은 해 8월 전라도 전주에서 처형됨	1846.~ 1896.8	2009.11.25
8	김염한 (金鹽漢)	전라도 금구	김염한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전라도 금구에서 관군에게 체포됨	미상	2009.11.25
9	김우경 (金右京)	전라도 금구	김우경은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10일 전라도 금구에서 체포되어 처형됨	미상 ~1895.1.10.	2009.11.25
10	김윤오 (金允五)	전라도 금구	김윤오는 1894년 3월 전봉준이 기포할 때 전라도 금구에서 김인배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미상	2009.11.25
11	김윤호 (金允浩)	전라도 금구	김윤호는 1,000여 명을 거느리고 1894년 7월 전라도 금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미상	2009.11.25
12	김응화 (金應化)	전라도 금구	김응화는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금구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미상	2009.11.25
13	김익술 (金益述)	전라도 태인·금구	김개남 장군과 같은 도강김씨로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김개남 장군을 돕기 위해 전주로 가던 중 관군에 잡혀 금구에서 처형됨	1847.4.1.~ 1894	2019.12.17
14	김인배 (金仁培)	전라도 금구·순천·광양·경상도 하동·진주	김인배는 1894년 김덕명과 함께 고부 무장봉기부터 참여, 이후 영호대접주가 되어 순천, 광양, 하동, 진주로 진출하여 영호남 일대를 통할하며 활동하다 체포, 1894년 12월 7일 효수	1870.6.10.~ 1894.12.7.	2006.11.20
15	김인서 (金仁西)	전라도 금구	김인서는 전라도 금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4월 체포됨	미상	2009.11.25

13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cdpr.go.kr/commit/>)

16	김제국 (金濟局)	전라도 금구	김제국은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10일 전라도 금구에서 체포되어 처형됨	미상~ 1895.1.10.	2009.11.25
17	김현태 (金顯台)	충청도 공주 전라도 금구	김현태는 동학농민군으로 공주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1895년 1월 금구현에서 처형당함	1864~ 1895.1.10	2008.09.10
18	나재원 (羅載元)	전라도 금구	나재원은 전라도 금구에서 동학도로서 1894년 최흥식, 최만식 형제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피신	1878.2.6.~ 1903	2006.11.20
19	박사옥 (朴士玉)	전라도 금구·함열·장성	박사옥은 1894년 전라도 금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6년 전라도 장성에서 체포됨	미상	2009.11.25
20	박여장 (朴汝長)	전라도 금구·함열	박여장은 전라도 금구·함열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1월 관군에게 쫓김	미상	2009.11.25
21	백낙중 (白樂中)	전라도 금구	백낙중은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1894년 전라도 금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피신한 뒤 1896년 봄 전라도 나주에서 재봉기를 모의하였다가 체포되어 같은 해 8월 전라도 전주에서 처형됨	1859.~ 1896.8	2009.11.25
22	송대경 (宋大敬)	전라도 금구	송대경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10일 전라도 금구에서 체포되어 처형됨	미상 ~ 1895.1.10	2009.11.25
23	송양노 (宋養魯)	전라도 금구	송양노는 1894년 9월 전봉준의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시 전라도 금구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미상	2009.11.25
24	송태섭 (宋泰燮)	전라도 금구	1894년 9월 전라도 금구 원평에서 동학농민군 7천 명을 거느리고 기포하여 두령으로 활동하였으며, 전주감영에서 처형 당함	1869.12.22. ~1895.2.17.	2009.01.16
25	양하일 (梁河一)	전라도 금구·남원·순천·낙안	양하일은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전라도 금구, 남원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전라도 순천, 낙안에서 활동하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순천에서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됨	미상~ 1894.12	2009.11.25
26	오동호 (吳東浩)	전라도 금구	오동호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1894년 전라도 금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미상	2009.11.25
27	유한필 (劉漢弼)	전라도 금구	유한필은 1894년 3월 전봉준이 기포할 때 전라도 금구에서 김덕명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미상	2009.11.25
28	이경태 (李敬泰)	전라도 금구	이경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1894년 전라도 금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피신한 뒤 1896년 봄 전라도 나주에서 재봉기를 모의하였다가 체포되어 같은 해 8월 전라도 전주에서 처형됨	1868.~ 1896.8.	2009.11.25
29	이경화 (李敬化)	전라도 금구	이경화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10일 전라도 금구에서 체포되어 처형됨	미상~ 1895.1.10	2009.11.25
30	장경화 (張敬化)	전라도 금구	장경화는 1894년 10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시 전라도 금구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미상	2009.11.25
31	조원집 (趙元集)	전라도 금구	조원집(異名:執)은 1,000여 명을 거느리고 1894년 7월 전라도 금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시에도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미상	2009.11.25
32	조준구 (趙駿九)	전라도 금구·삼례	조준구는 전라도 금구 출신 점주로서 1894년 9월 전라도 삼례역에서 전봉준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미상	2009.11.25

33	최광찬 (崔光燦)	전라도 금구·백산	최광찬은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금구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미상	2009.11.25
34	최기태	전라도 금구	최기태는 전라도 금구 출신으로 조카 최세현을 따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1894년 11월 전라도 원평 전투에서 금구 대접주(金溝大接主) 김덕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가 체포되어 전라도 금구 관아에서 처형됨	미상~1894	2009.11.25
35	최만식 (崔晩植)	전라도 금구·공주	최만식은 형 최흥식, 동생 최한식과 함께 2차 봉기 시 충남 논산에서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우금치 전투, 원평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1895년 5월 29일에 사망함	1859.2.26.~ 1895.5.29	2006.11.20
36	최택현	전라도 금구	최택현은 전라도 금구 출신으로 형 최세현을 따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1894년 11월 전라도 원평 전투에서 금구대접주(金溝大接主) 김덕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가 체포되어 전라도 금구 관아에서 고초를 겪은 후 풀려남	미상	2009.11.25
37	최한식 (崔漢植)	전라도 금구	최한식은 1894년 전라도 금구에서 형 최흥식, 최만식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1861.~ 1903.5.26	2008.09.10
38	최흥식 (崔興植)	전라도 금구	최흥식은 동생 최만식, 최한식과 함께 2차 봉기 시 충남 논산에서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우금치 전투, 원평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1903년 친척의 밀고로 일본군에게 총살당함	1850.~ 1903.11.7	2006.11.20
39	한규석 (韓圭錫)	전라도 금구	한규석은 1894년 전라도 금구 원평 지역에 거주하면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에게 군량미를 제공함	1858.~ 1895.2.12	2019.06.12
40	황준삼 (黃俊三)	전라도 금구	황준삼은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1894년 전라도 금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피신한 뒤 1896년 봄 전라도 나주에서 재봉기를 모의하였다가 체포되어 같은 해 8월 전라도 전주에서 처형됨	1851. ~ 1896.8	2009.11.25
41	황처중 (黃處中)	전라도 금구	황처중은 1894년 전라도 금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6년 전라도 장성에서 체포됨	미상	2009.11.25

금구 원평 지역의 대표적인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는 김덕명(金德明)이다. 그는 전봉준보다 연장자로서, 전봉준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며 혁명의 전 과정을 함께하였다. 김덕명은 결국 전봉준과 함께 재판을 받고 같은 날 사형을 당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금구 원평 지역은 김덕명 대접주의 절대적 영향권 아래에 있었으며, 그의 지도력 아래 세력이 조직되고 혁명 활동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동학사』에 따르면, 제1차 봉기 과정에서 금구 원평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김덕명(金德明), 송태섭(宋泰燮), 김응화(金應化), 조원집(趙元集), 이동근(李東根), 김방서(金方瑞), 김사엽(金士曄), 김봉득(金鳳得), 유한필(劉漢弼), 김운오(金允五), 최광찬(崔光燦), 김인배(金仁培), 김가경(金可敬)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⁴ 『천도교서(天道敎書)』에 의하면, 제2차 봉기 과정에서도 금구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인물로 김덕명, 송태섭, 김응화, 조원집, 이동근, 김방서, 김사엽, 김봉득,

14 오지영, 「격문」 『동학사 초고본』

유한필, 김윤오, 최광찬, 김인배, 김가경이 기록되어 있다.¹⁵ 이처럼 『동학사』의 제1차 봉기 참여자와 『천도교서』의 제2차 봉기 참여자가 동일하다는 점은 금구 지역이 제1차 봉기에서 제2차 봉기로 이어지는 동안 연속적으로 동학농민군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에는 금구 지역에서 체포되었거나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로 김염한(金鹽漢), 김덕명(金德明), 김방숙(金方叔), 김덕민(金德敏) 등이 기록되어 있다.¹⁶

이들은 모두 김덕명을 중심으로 금구 원평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주요 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인물로는 김방서(金方瑞), 김인배(金仁培), 조준구(趙俊求)를 들 수 있다. 먼저 김방서는 금구 출신으로 활동 반경이 매우 넓었던 인물이다. 그는 금구를 근거지로 하여 익산 등지에서 활동하였으며, 제2차 봉기 이후 다른 지역의 동학농민군이 해산된 이후에도 장흥에서 농민군을 이끌고 항전하다가 체포되어 나주의 일본군 진영으로 압송되었다. 일시 석방되었으나, 1895년 4월 전라감사 이도재에게 다시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8세였다.¹⁷ 김인배는 금구 출신으로, 초기에는 금구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나 제2차 봉기 이후에는 영호도회소의 대접주로서 순천·광양·하동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효수되었다.¹⁸ 그는 김개남의 영향권 아래에서 전라좌도 남부 지역을 장악한 인물로 평가된다. 조준구는 금구 출신의 접주로서, 1894년 9월 전라도 삼례역에서 전봉준과 함께 제2차 봉기를 모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¹⁹ 또한 1895년 1월 10일 금구현령의 보고에 따르면, 금구에서 체포된 김제국(金濟局), 송대경(宋大敬), 이경화(李敬化), 김덕운(金德云), 김우경(金右京) 등 5명은 같은 날 처형되었다.²⁰ 이들은 금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다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사법품보』(전주부재판소 판사 이병훈(李秉勳)의 보고서)에 의하면, 금구의 김순여(金順汝), 황준삼(黃俊三), 백낙중(白樂中), 이경태(李敬泰) 등 6명은 1896년에 체포되어, 신문 결과 동학농민혁명 참여 사실이 확인되어 처형되었다.²¹

이상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금구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전봉준과 김덕명 세력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활동하였던 중심 세력이었다. 이들은 조준구처럼 전봉준과 직접 연계하거나, 김인배처럼 김개남과 연대하였으며, 때로는 김방서처럼 장흥까지 활동 반경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금구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에서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거점으로 기능하였으며, 전봉준과 김덕명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혁명 전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5 「제2편 해월신사」 『천도교서』

16 「금구·태인·만경·정읍·김제·고부·부안에 발송한 감결」,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 1895년 1월 16일.

17 「영회기」, 「김방서 판결선고서」

18 「광양현포착동도성명성책」

19 「전봉준 판결선고서」

20 「금구현령 첩보」, 『선봉진정보첩』, 1895년 1월 10일.

21 「전주부재판소 판사 이병훈(李秉勳) 보고서 1896년 8월 18일 제4호」, 『사법품보』

3. 유족 증언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

유족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금구 지역을 비롯한 김제 일대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집안 내 구전(口傳)과 증언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참여 양상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족 증언은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1) 최세현

원평 구미란에 거주하였던 최세현은 1894년 11월 원평 구미란 전투 전후에 동학농민군을 지원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금구 관아에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그는 당시 금구 대접주 김덕명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최세현의 가문은 본래 순창에 거주하다가 1860년대 중반 금구 원평으로 이주하였는데, 하인 여덟 집을 데리고 올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다. 금구 지역에는 당시 언양김씨 김덕명 장군의 가문을 비롯한 천석꾼 집안이 여럿 있었으며, 최세현의 부친과 김덕명은 돈독한 교분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최세현 일가는 동학농민혁명 초기부터 김덕명 장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최세현과 동생 최택현, 숙부 최기태는 원평 구미란 전투 이후 동학농민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금구 관아에 구속되었으며, 이 중 최기태는 처형되고 형제는 고문 끝에 석방되었다. 이때 경기감사의 비서로 근무하던 재종동생 최낙현의 도움으로 형제가 사형을 면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세현의 손자 최순식에 따르면, 그의 조부가 함께 수감되어 있던 강씨(조모의 친정)가 은전을 내어주며 “풀려나면 이것을 우리 집에 전해주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최세현은 금구 지역의 저명한 학자로서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제자 도상구(인천 거주)는 그가 생전 “최집강”으로 불렸다고 증언하였다.²²

2) 나방환

나방환은 충청도 서천 출신으로, 1894년 4월 김제로 이동하여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였다가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후손들은 시신을 찾지 못해 나무토막으로 상징적 용(靈)을 만들어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나방환의 본관은 나주나씨로, 선대는 김제에 거주하다 서천으로 이주하였다. 당시에 김제 지역 친족들과 교류가 활발하였으며, 나방환이 김제에 자주 왕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천 지역의 동학 접주 조영구의 손자 조해연의 증언에 따르면, 서천 마서면 신평 일대에는 1894년 당시 동학도들이 다수 거주하였으며, 나방환 역시 이러한 지역 분위기 속에서 동학에 입도하고 농민군에

22 최세현 손자 최순식 증언(2006.2.13.)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학식과 재산을 갖춘 인물로, 동학농민혁명 이전에는 서당을 운영하였으며, 혁명기에는 집안의 생계를 아들과 손자에게 맡기고 직접 동학도로 활동하였다고 한다.²³

3) 함완석

함완석은 1894년 가을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던 중 전투에 참가하여 어깨에 부상을 입고 귀가하였다가 진안으로 피신하였다. 그는 전라도 김제군 하리면(현 금산면) 고리배미 출신으로, 동년 가을 2차 봉기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떠났으며, 형 함공찬(1864년생)이 홀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12월 초 귀가 당시 어깨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이는 동학농민혁명 패배 이후 귀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리면 고리배미는 1893년 원평집회와 1894년 11월 원평 구미란 전투가 벌어진 지역으로, 김덕명 대접주의 근거지와 가까운 곳이었다. 함완석은 밀고로 인해 체포 위기에 처하자 가족과 함께 진안으로 피신하였고, 추운 날씨 속에 식량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지리산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남원을 거쳐 진안에 정착하였다. 그의 부친은 약재를 구하러 나갔다가 밀고로 피해를 입었고, 부인 청송심씨(1871~1947) 역시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함완석은 이후 진안 상전면에 10여 년간 피신하여 살다가 1912년 사망하였다.²⁴

4) 황종모

황종모는 1894년 3월 김제 지역 책임자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정읍 감곡에 거주하던 딸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1895년 1월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현재의 김제경찰서 앞에서 화형당하였다. 그의 아들이 부친의 유골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증손자 황금고의 증언에 따르면, “황종모 할아버지는 정읍에서 난리가 났을 때 싸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며, 당시 사용된 창은 현재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²⁵

5) 나재원

나재원은 동생 나재문, 최홍식과 함께 제2차 봉기 시 동학농민군으로 공주 방면 전투와 원평 전투 등에 참여하였다. 원평 전투에서 총상을 입은 최만식을 형제들과 함께 들것에 실어 귀향하였으며, 이후에도 항일 활동을 지속하다가 1903년에 사망하였다. 나재원·재문 형제는 1890년경 최홍식으로 부터 도를 전수받아 동학에 입도하였고, 혁명 이후 은신 생활을 하다 각각 1901년과 1903년에 사망하였다. 그들의 묘소는 김제시 용지면 일대에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요시찰 집안’으로 지목되어 경

23 나방환 증손 나해균 증언(2008.3.13.)

24 함완석 손자 함기영 증언(2006.7.20.)

25 황종모 손자 황금고 증언(2007.7.19.)

찰의 감시와 괴롭힘을 받았다.²⁶

6) 최만식·최흥식·최한식

최만식은 형 최흥식, 동생 최한식, 그리고 이웃 나재원·나재문 형제와 함께 제2차 봉기에 참여하였다. 그는 원평 전투에서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귀가한 뒤 은신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가 악화되어 1895년 9월 29일 사망하였다. 부인 문화유씨는 남편을 위해 단지 수혈하였고, 그 열행은 『열행록』(김제향교)과 『청금록』(김제향교)에 기록되어 있다. 형제들은 이후에도 항일 활동을 이어갔으나, 일제의 탄압이 극심하였다. 경찰이 친척 최병용을 고문하다 죽게 하였고, 이로 인해 집안의 누군가가 밀고하여 최한식은 1903년 5월 25일 총살되었으며, 최흥식과 장남 최병태도 같은 해 11월 7일 체포되어 옥리동에서 총살되었다.²⁷

7) 한규석

한규석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금구 원평 지역에 거주하며 동학농민군에게 군량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밀고되어 체포되었고, 전주에서 효수형을 당하였다. 시신은 아들 한진화가 전주로 가서 지게에 지고 운구하였다고 한다.²⁸

8) 유희원(1847~1895)

유희원(柳熙源)은 1847년 전라도 태인에서 진주유씨 유환식(柳煥式)과 도강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894년 3월 김개남과 함께 백산봉기에 참여하였으며, 전주화약 이후 집강소 시기에는 태인현 산내면의 치안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유희원은 청주 전투에서 패한 뒤 만경으로 피신하였으나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되어 1895년 1월 27일 처형되었다. 증손자 유태길의 증언에 따르면, 유희원은 김개남 부대의 참모로 ‘유대장’이라 불렸으며, 『利川徐氏松亭公派譜』(1929)에 기록된 자(字) “元叔”이 『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及將領姓名竝錄成冊』(『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 1996, 50쪽)의 “柳元淑”과 동일인으로 확인된다. 유희원은 만경 남일면 동산동에 매장되었으며, 그의 부인 서이단(徐以端, 김개남의 매제 서영기의 셋째 딸)과의 혼인은 『利川徐氏松亭公派譜』와 『道康金氏大同譜』에 모두 확인된다.²⁹

이상과 같이 유족 증언을 통해 확인된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활동은 공식 문헌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역사적 공백을 보완해 준다. 이들의 증언은 당시 지역사회에서 동학농민군으로

26 나재원 손자 나철봉 증언(2006.2.13.)

27 최만식 손자 최윤규 증언(2006.6.12.)

28 한규석 증손 한 철 증언(2016.6.28.)

29 유희원 증손 유태길 증언(2007.8. 8.)

활동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다층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 발표에서는 기존에 금구 원평 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었던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만경현과 김제군까지 포괄함으로써 김제 지역의 총체적 활동상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특히, 심의위원회 등록자료와 유족 증언을 교차 활용하여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공식 기록의 한계를 넘어서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혁명 이후의 피해, 그리고 그들의 고난에 찬 삶을 복원할 수 있었다.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활동은 각 군현별로 다음과 같은 독자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만경현은 동학교도 계열과 사생계 계열이라는 이질적인 두 세력이 공존하며, 읍내 양반과 아전 계층을 대상으로 과격하고 선도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일시적인 지역 장악을 이루어냈다. 김제군은 1차 봉기부터 2차 봉기까지 안정적인 지도부의 지속성을 유지했으며, 그 활동 반경이 충청도까지 확장될 만큼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독자적인 세력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금구현은 김덕명 대접주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세력이 영호남 일대로 확장되는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유족 증언을 통해 최세현 일가의 재정적 지원과 고난, 나방환의 서천-김제 간 이동 경로, 함완석의 부상과 피신, 황종모의 화형과 유골 수습, 최만식 형제 일가의 처절한 항일 활동과 희생 등 문헌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생생한 역사적 진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증언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혁명 종결 이후에도 겪었던 고초와 그 가족들의 헌신적인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향후 과제로 만경현에서 확인된 동학 계열과 사생계 계열의 조직적 관계와 갈등 양상에 대한 추가적인 사료 발굴 및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김제군 지역 지도자들의 세부적인 계열(동학/비동학)과 상호관계, 그리고 유족 증언 내용을 다른 문헌자료와 더욱 정밀하게 교차 검증하고 추가 발굴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발표가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하나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유족 증언」 토론문

박정민 | 전북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김제 지역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구체적 활동상을 재구성하고, 최근 등록된 참여자 자료 및 유족 증언을 종합하여 지역 단위의 혁명사상을 복원하려 한 연구이다. 기존 연구가 금구나 원평 지역에 집중되어 온 점을 보완하고, 조선시대의 김제였던 만경·김제·금구의 세 지역을 통합적으로 다룬 점은 주제 설정에서 신선하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후 새롭게 확보된 공식 등록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참여자의 활동상을 실증적으로 재정리한 것은 학문적 의의가 크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제는 명확하지만 문제의식이 서론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논문 전체의 자료 제시와 분석이 매우 충실하기 때문에, 서론에서 이를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사의 재구성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문제의식으로 제시한다면 연구의 방향성과 통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둘째, 연구의 차별성은 분명하지만, 선행연구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기존의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특히 전봉준 중심·금구 중심 연구가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비해 본 논문이 어떤 부분을 새롭게 제시하는지를 간략하게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새롭게 밝혀낸 만경의 ‘사생계’ 조직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상은 기존 연구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요한 발견이므로, 이 부분을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서 더욱 강조하면 좋겠다.

셋째, 논문은 행정구역별(만경현-김제군-금구현)로 구분하여 참여자와 그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유족 증언을 보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사료의 공백을 보완했다. 특히 진우범, 박봉관, 진원필 등 만경 지역 지도자들의 활동을 세밀히 복원한 부분, 그리고 1895년 순무영 문건(「감결」)을 근거로 한 체포 지시 내용 분석은 실증 연구로서 가치가 높다. 유족 증언을 통해 함완석·최만식·나재원 등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부분 역시 현지 구술자료의 의미 있는 활용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떠한 구조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적 연결은 다소 약하다. 즉, 지역 사례의 축적은 탁월하지만, 이를 ‘혁명사적 의미’ 혹은 ‘지방 주체 형성 과정’과 연결시키는 해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족 증언의 활용에 있어서도, 구술의 신빙성과 기억의 변형 가능성에 대한 간략한 방법론적

언급이 추가된다면 자료의 활용 방식이 더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본 연구는 단순한 지역사적 서술을 넘어 '기억과 기록의 교차점에서 본 동학농민혁명사'라는 새로운 연구 지평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논문은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연구의 공백을 실증적으로 메우고 공식 등 록자료와 유족 증언이라는 새로운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킨 훌륭한 연구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이 제시한 개별 지역 사례를 토대로 김제 지역 전체의 사회경제 구조, 농민 조직의 형성, 그리고 금구 중심의 혁명 동향과의 연계 등을 분석한다면 지역사 연구를 넘어 동학농민혁명사 전체의 입체적 복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김덕명 장군 관련 유적지를 중심으로-

최고원 |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상임이사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도 15년이 됐다.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걸어온 세월도 18년째이니 짧지 않다. 2008년 12월, 본 기념사업회가 첫 걸음마를 떼고 7년이 돼서 원평집강소를 복원하는 성과를 냈다. 두 번째 성과는 다시 7년여 시간이 흐른 2023년, 원평집강소 뒷마당에 마련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이제 다시 세 번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 변화 앞에 아래와 같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있다.

- 1) 김덕명 장군 생가 복원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 문제
- 2) 원평집강소 주차시설과 복합문화공간 다목적 기능 보완 문제
- 3) 원평 관련 권역 사업¹에 동학농민혁명이 성지로써 배려되지 않는 문제
- 4) 김덕명 장군 유골 이장 문제
- 5) 원평 구미란 전적지와 이름 없는 동학농민군 무덤군 정비 문제
- 6) 관련 유적지 안내표지판 부실 문제

2023년, <김제 땅 동학농민혁명과 정여립 재조명 학술세미나>에서 제기된 안내표지판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김제시 관광지도에도 원평집강소와 원평 구미란 전적지는 여전히 표시되지 않고 있다. 많은 문제 중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위 과제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김덕명 장군 관련 중심으로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와 활용을 위해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다.

2. 김덕명 관련 유적지 현황

1) 김덕명 장군 생가

현재 마을 입구나 생가터에 김덕명 장군 관련 안내표지판은 없다.

먼저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창립되고 생가터 위치와 사진 자료에 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밝힌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생가 위치에 대한 착오는 기념사업회 실무자인 필자의 실수였고, 이번 발표에서 바로잡고자 한다.

¹ 현재 김제시가 원평공설시장 5일장터 활성화 방안 연구 기초 용역 사업 추진 중이며, 금산지구 도시재생 원평공용터미널 부지 활용을 위한 인정 사업 준비 중에 있다.



김덕명 장군 생가 | 김제시 금산면 모악 5길 50-12

처음부터 생가터로 알려진 오성제과 공장 부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금산면 쌍용리 용계마을이라는 사실엔 틀림이 없다. 다만 중간에 동네 안쪽에서 도로에 인접한 부지로 이전했고, 현재 부지로까지 옆으로 확장됐다. 필자는 중학교 이후 고향을 떠났다가 2008년에 기념사업을 위해 귀향했기에 생가터가 오성제과 옛 공장 부지라는 것을 기존 기록²으로만 알고 있었으니, 맨 처음 공장 부지가 동네 안쪽에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2008년에 유적지 현장 확인차 방문하여 대화한 사람이 1991년에 결혼해서 오성제과를 개업한 두은철 씨의 아내였다. 그의 아내는 김덕명 장군과 옛 공장 터와의 연관을 몰랐고, 필자가 옛 부지를 궁금해하니, 직전까지 공장으로 사용했던 옆 건물을 단순 안내했던 것인데, 필자는 직전 공장을 생가터로 확신하고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오성제과 현재 부지를 생가터 자료사진으로 잘못 기록해 왔다.

“1991년도에 처음 공장을 차렸는데 그때 최순식³ 선생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기 공장 자리가 김덕명 장군이 태어난 생가터⁴’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중간에 공장을 옮겨와서 지금의 부지까지 넓혔는데 아무래도 김덕명 장군에 대해 잘 몰랐던 집사람이 넓히기 전에 사용했던 공장 위치를 말해준 것 같네요.” 김덕명 장군 생가터에 오성제과를 창립한 두은철⁵ 씨 증언이다.

2 1987년에 세워진 김덕명 장군 추모비 비문 내용.

3 최순식(1933년~2008년) 김제시 금산면 구미란(구미마을) 출신 향토사학자, 김제 원평 구미란 전투 자료와 김덕명 장군 유적지 등을 발굴한 업적으로 2019년 동학농민혁명대상이 고인에게 수여 됨.

4 김제시 금산면 모악 5길 50-12(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235-2)

5 두은철(1963년 생), 2025년 10월 20일 증언, 김제시 금산면 용계마을 출신 오성제과 창립자.



구미마을과 용계마을

현재 생가터에는 가동을 멈춘 것으로 보이는 누룽지 공장 건물이 있고, 건물에는 부동산 매매를 희망하는 광고 현수막이 붙어 있다. 생가터 시야에서 직경 600m 거리에 들어오는 구미란과 용계마을 사이에는 원평천이 흐르고 두 마을은 그리 넓지 않은 들녘을 마주 품고 있다. 가려질 것 없어 사방이 흰하게 보였던 구미란 전적지가 몇 년 사이 축사 건물로 아쉽게도 일부 가려지고 있다.

2) 동학농민혁명 원평집강소



김제시 금산면 봉황로 5

가. 원평집강소 잔치날, 동록개 밥상

2015년 12월에 문화재청이 보수 정비를 마친 원평집강소는 2017년에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제 137호로 지정되어 관련 유적지 중 유일한 문화재로 관리받고 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원평집강소 초가에서 이웃들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인문학 강의, 북콘서트, 음악회, 대동마당, 추모제 등 다양한 잔치를 벌였고, 이웃들은 그때를 일러 ‘앞마당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원평집강소 앞마당 그 시절, 주차장 없는 진입로에 주차된 무질서한 차들로 어려움이 많았어도 행사 중에는 시내버스 경적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니 여전히 놀랍다. 농기계나 이륜차가 소란해도 강의나 공연을 멈춘 적도 없었다. 모든 게 열악했던 앞마당 시절에 그런 이웃들의 저력이 지금의 원평집강소 문화공간을 만들어 냈다.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원평집강소 뒷마당 잔치

2023년 6월 26일, 복합문화공간 야외 마당 개관식을 시작으로 원평집강소 뒷마당 시절이 열렸다. 날씨가 좋으면 뒷마당에 선 감나무 그늘 무대에서 판을 벌인다.

현재는 한 해 평균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연중 수십 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이웃이 모이는 날마다 잔치날인 셈이다. 모든 잔치마다 이웃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밥상을 차리고, 유무상자⁶ 마음으로 차려진 밥상을 잔치에 모인 대중이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 공동체를 체험하게 된다. 우리는 그 밥상을 ‘동록개⁷ 밥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밥상을 준비하기에는 기

6 有無相資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서로 돕고 산다는 뜻.

7 원평집강소에는 ‘동록개의 꿈’이라고 새겨진 장승이 서 있다. 2017년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임성안 불교목조각장이 무상

본 시설이 열악하나 앞마당 시절을 회상하며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나. 2025년 하반기 원평집강소 프로그램 일정표

2025년 하반기 원평집강소 프로그램 일정

일 정				내 용	후원
8월	27일	수	16:00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동우 「대한독립 몽우리들의 흔적을 쫓다」	전북특별자치도
9월	6일	토	14:00	수류금산 <4대종교 토크콘서트>	금영회
	13일	토	16:00	시인 나해철 「엄니 옴마 어무니 말씀」 북 콘서트	전북특별자치도
	17일	수	13:00	수류금산 <4대종교 토크콘서트>	금영회
	20일	토	18:00	극단 소리외, 마당극 「갑오년 탐관오리 애인 찾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모악산문화공동체
	26일	금	17:30	귀명창 초청 <소리담판> 소리 최지안 박종호	모악산문화공동체
10월	4일	토	14:00	수류금산 <4대종교 토크콘서트>	금영회
	11일	토	12:00	제14회 김제 청소년 나라사랑 축제 장소: 벽골제 쌍용광장	국가보훈부북서부보훈지청 김제시 모악산문화공동체
	17일	금	16:30	작은 음악회 <우리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예문화원
	18일	토	17:00	신명나는 예술문화공연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제시지부
	22일	수	18:00	독립영화 상영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모악산문화공동체
	31일	금	17:00	김제 오이장 이규희 낭만콘서트	모악산문화공동체
11월	1일	토	14:00	가을 작은 음악회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모악산문화공동체
	6일	목	13:30	학술세미나 <김덕명과 김제 동학농민군의 활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8일	토	16:00	작가 김탁환 「내 사람을 생각한다」 북 콘서트	전북특별자치도
	15일	토	16:00	가수 이지상과 함께 하는 가을 음악회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모악산문화공동체
	16일	일	14:00	김제시청 음악동아리 허라이즌 작은 음악회	모악산문화공동체

으로 기증한 작품이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재산을 바친 동록개의 바람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평등하고
공정한가를 돌아보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 시대의 동록개인 우리가 함께 이뤄가자는 의미에서 '동록개의 꿈'이라고 새
겼다. 유무상자 마음이 모여진 공동체 밥상은 또 하나의 대동세상이기에 동록개의 꿈을 위한 밥상이라는 뜻에서 '동록개 밥상'
이라고 이름 지었다.

일 정				내 용	후원
11월	19일	수	14:00	이송희일 강의「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 노래 가수 알마즈(김민정)	전북특별자치도
	22일	토	14:00	수류금산 <4대종교 토크콘서트>	금영희
12월	6일	토	14:00	수류금산 <4대종교 토크콘서트>	금영희
	21일	일	13:00	131주기 원평 구미란 전투 희생자 추모문화제 ※ 진혼굿 : 구미란 전적지 이름 없는 농민군 무덤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15:00	바람, 들불, 그리고 노래 - 산오락회	
			16:30	작가 김상수 소설「아버지의 새벽」 북콘서트	
매주 화요일			14:00	원평집강소 한글교실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매주 수요일			18:00	원평집강소 시·노래 교실	모악산문화공동체
사전 예약				원평집강소 역사교실	모악산문화공동체

위 일정표에는 표시되지 않았으나 평일 오전에는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나이 65세 이상 이웃들이 요일을 번갈아 출근하고 있다. 2024년에는 16명이었으나 올해는 34명이다. 원평집강소와 원평장터(광복군 이종희 장군 생가) 그리고 구미란 순례길 총 3팀으로 나뉘어 역할을 분담한다.

다.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내부(김제시 금산면 봉황로 5-1)



동학농민혁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복합문화공간 부지도 원평집강소 터이다. 현재는 복합문화공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없고, 방문객을 위한 주차시설과 전용 진입로도 없기에 위치를 물으면 원평집강소 뒷마당으로 안내하고 있다.

개관한 2023년 첫째 하반기에는 보도자료⁸를 접하고 찾아오는 방문객이 제법 많았다. 보도된 내용과 달리 전시실, 체험실, 회의실, 휴게실이 각각 분리된 게 아닌 하나의 공간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구조이다.

이웃들과 활용하기 편리한 단순 구조라는 장점도 있으나 처음부터 기획했던 전시실 기능을 하기에 아무런 관련 장치 시설이 없다는 게 아쉽다. 그럼에도 2024년 1월에 전시 레일도 없는 벽면에다 이젤을 기대어 놓고 독일 파견 근로 60주년을 기념하며 그들의 헌신을 기리는 ‘아트 메모리’ 전시회를 개관식과 더불어 열었다는 게 우리 스스로도 놀랍다.

공간을 공유하는 이웃들이 합창, 보자기 매듭, 자수, 미디어 영상, 한글교실⁹ 등 동아리 활동을 하고, 강사비를 지원받기보다는 주로 이웃들이 강사로서 재능을 나누는 공동체 품앗이를 되살렸다. 강사의 품앗이로 프랑스자수를 익힌 5명은 2023년 12월에 프랑스자수 2급 강사 자격에 도전,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역 축제장¹⁰이나 원평집강소를 홍보하는 체험 부스 등에서 자수 체험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원평집강소 꽃과 나무도 이웃들¹¹이 심고 가꾸면서 넉넉하지 못한 원평집강소 살림까지 염려해 간장, 된장을 가져와 일자리 명분으로 모일 수 있는 것도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원평집강소가 구심점이겠으나, 복합문화공간이 지어진 후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웃이 모이면 다 같이 하는 공동체 행위에서 비로소 공간이 힘을 가진다는 걸 체득하고 있다.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일지에 기록된 방문객 인원¹²

연도	기간	방문객 수
2023년	7월~12월	6,757명
2024년	1월~12월	8,424명
2025년	1월 10월	9,268명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농촌의 작은 면 단위에서 물질적 기반 없이 다반사로 일을 벌인다는 게

8 2023년 6월 26일자 전북일보를 비롯한 보도자료 공통 내용, ‘김제시는 동학농민운동의 상징인 원평집강소 활용 극대화를 통해 주민 편의적 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향유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1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중략)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9억 200만 원을 투입해 전시실, 체험실, 회의실, 휴게실 등 주 1동, 지상 2층 규모로 아담하고 내실 있게 건립했다.’

9 한글교실 경우 지역에서 활동하는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해 주 1회 1시간에 해당하는 소정의 강사비를 복지관에서 강사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다.

10 김제시 자원순환 새로보미축제 3회째 참가, 김제청소년나라사랑축제 4년째 참가, 원평집강소 체험 프로그램 진행.

11 원평집강소 잔치에 동참하는 모든 이를 ‘이웃’이라고 한다. 세월호 3주기에 이팝나무를 심은 세월호 유가족, 모악산 금강송으로 장승을 깎은 무형문화재 불교목조각장, 배롱나무를 심고 동록개 장승 조형물 설치 작업을 한 조정업체, 황금사철나무 수십 그루를 키워서 기증한 이웃, 소나무를 심고 정원석을 옮겨온 이웃 등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이웃들이 원평집강소를 만들어 간다.

12 원평집강소 뒷마당 끝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실시간 원평집강소 방문객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복합문화공간까지 오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집계를 못함.

쉽지 않으나, 전시장 유물처럼 원평집강소가 박제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연대하는 이웃들이 있어 가능하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가능 없이 이뤄가는 기념사업회가 다목적 공간인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에서 이웃들과 더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려면 주차시설, 야외무대 조명, 전시장 시설, 창고시설 등 많은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

다행히 원평집강소 옆에 거주하는 이웃 어르신¹³이 집을 비우게 되면 김제시와 매매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왔다.

3) 원평장터와 원평천

예로부터 원평장터는 이 지역 모든 순례자들의 성지였다. 1893년 봄에는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기치로 전라도 1만여 민중이 원평민회¹⁴를 열어 동학농민혁명의 단초가 되었고, 1894년 겨울에는 김덕명 장군을 총참모로 항일전투를 벌여 이름 없는 동학농민군 무덤이 산적한 구미란과 함께 항전지로 남아있다. 그 후 1919년에는 김제 땅 최초로 3.1혁명을 성공리에 치렀고, 거슬러 올라가면 혁명가 정여립이 장꾼들과 대동세상을 펼쳤던 이상세계였다.

왕버들나무 아래에는 2011년, 김제시가 세운 표지판 <동학농민혁명 금구 원평집회 장소 원평장터>가 서 있다. 원평장터에는 정작 원평장터 전모를 밝혀줄 서사가 담긴 안내표지판이 없다. 원평장터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순례길 전체를 파악하게 하는 지도가 그려진 대형 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

제목만 있는 표지판으로는 자칫 원평장터 동학농민혁명사를 쏘그려 놓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원평에서의 동학농민혁명은 1893년과 1894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유구한 역사가 겹쳐 있기 때문이다.

황룡촌에서 끌고 온 고종의 특사를 처형했다는 원평다리목 부근에도 원평천 어디에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그곳들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아직 없다. 다만 지난 7월 22일에 김제시가 구미마을 입구에 세운 마을 유래 안내표지판은 서 있다.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방문객에게 첫 방문지로 원평천변에 있는 원평장터 원평취회지(구미란 전적지 진입로)를 추천한다. 원평집강소 주변에는 대형버스를 주차할 마땅한 주차장이 없고, 대형버스 5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방문객의 공통점은 버스에서 내리면 화장실 위치부터 찾는다. 거리가 있는 전통시장 화장실을

13 송덕순(1942년 생), 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39,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집강소에서 우리 집을 사는 게 좋겠어.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몰라도 우리 아들들하고도 다 얘기가 됐으니가 집강소에 팔고 싶어.”

14 원평취회(聚會)

안내하고 있으나 대중이 이용하려면 대기 시간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된다.

원평천은 김제 꼬트머리 모악산 자락에서 벽골제로 흘러 바다가 있는 동진강 하구까지 총 30여 km를 흐른다. 원평장터 제방은 일제 말기에 만들어졌으니, 원평취회 당시에는 물길을 따라 더 많은 왕버들나무가 줄을 지어 서 있었다는 풍경이 짐작된다.

매년 탐방객 수천 명이 원평집강소를 출발해 도보로 원평장터를 가로질러 걷는다. 구미란 전적지 이름 없는 동학농민군 무덤으로 향하는 그들이 잠시만이라도 시골 오일장 정취를 만끽하길 바라지만, 소멸 지역 오일장 실제 모습은 문이 닫힌 휴업 상태이다.

2022년, 고민 끝에 주민공동체와 연대해 시장 상가 두 칸을 임대했다. 지게와 쪼신 등 동학농민혁명 당시 생활용품을 진열하고 튀밥 한 소쿠리 담아놓아 동록개와 장꾼들 이야기로 벽면을 꾸미면, 장터를 지나가던 탐방객들이 쪼신 신고, 지게 메고 공짜 튀밥 한 줍 맛보는 재미난 길목이 탄생할 것 같았다.

그러나 계획에 없던 권리금 지출로 잔고가 없어 내부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에 이르렀다. 원평 오일장 활성화를 위해 김제시가 용역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혹시 원평장터 재개발과 연계해 이웃들과 계획한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했다. 그러나 ‘원평문화예술시장’으로 구상된 방향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써 원평장터가 배려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지난 10월 23일, <원평공설시장 5일장터 활성화 방안 연구 2차 주민설명회>가 진행됐으나,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원평장터 역사가 숨 쉬는 공간이 보이지 않아 아쉬운 기획안만 확인했다.

물론 모든 사업에는 정해진 주제와 방향이 있겠다. 그러나 역사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개발안에서도 드러나지 않게 녹여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풀어내는 안목도 중요하다.

역사가 숨 쉬는 공간이 존중되지 않으면 그 고장 역사의식은 단절된다. 원평장터만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보게 되는 전통시장과 다를 게 없다.



동학농민혁명 원평취회지 / 원평장터



학수재 위령비

4) 위령각과 김덕명 장군 추모비

위령각과 김덕명 장군 추모비는 원평공용터미널 뒤편 소나무 동산에 있는 학수재(鶴壽齋) 안에 세워져 있다. 동산을 오르는 계단 입구 쪽에 낡은 안내표지판이 서 있다. 위령각에는 무명 동학농민군과 김덕명 장군 위패가 모셔져 있다. 지역 노인회 시초가 되는 영락회가 1987년부터 10월 15일이 되면 금산면 출신 애국지사 추모제를 모신다.

현재는 학수재와 순대국밥집 사이로 뽕나무가 발을 이루고 있으나, 학수재 좌측 산비탈부터 구미란과 같이 이름 없는 동학농민군 무덤이 즐비했던 곳이다.

5) 원평 구미란 전적지-이름 없는 동학농민군 무덤군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구미마을



동학농민군 무덤군

구미란 전적지를 알리는 표지판은 있으나 이름 없는 동학농민군 무덤군까지 안내하는 표지판이 부족해 처음 방문하면 무덤을 못 찾고 헤맨다. 마을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나니 마을 주민들이 협력해 작은 주차장도 마련했다. 화장실은 주민들의 양해로 경로당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구미마을에서는 김덕명 장군 생가터가 있는 용계마을과 모악산 자락이 한눈에 펼쳐진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몇 년 전 구미마을 앞 원평천 제방에 접한 전답이 매매됐으니 건물도 들어설 것이다.

구미란 전적지 구미마을에는 2개의 차량 진입로가 있으나 양쪽 모두 버스 진입이 원활하지 않다. 만약 진입이 되더라도 넓은 주차장이 없어 버스가 돌아 나오기 어렵다. 기꺼이 걷는 순례객이 있다

면, 한 걸음이 불편한 순례객도 많아서 결국 버스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 단체 경우엔 처음부터 구미란 전적지 방문을 대부분 제외한다.

그래도 많은 순례객이 이름 없는 농민군 무덤을 참배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찾아온다. 그 뜻에 공감하는 본 기념사업회도 2023년부터 ‘원평 구미란 전투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¹⁵⁾’를 무덤 있는 현장에서 모시고 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모든 참가자가 무덤으로 향하는 장엄하고 결연한 걸음이 겨울 한파를 녹인다.

불분마저 사그라진 이름 없는 농민군 무덤에 가면 표지판 <원평 구미란 전투 동학농민 무덤군> 위에 새겨진 붉은 장미¹⁶⁾ 문양을 보게 된다. 처음엔 생경했던 붉은 장미가 이제는 동백꽃 같다. 제작자의 진정성을 알아서일까, 전봉준 장군의 유시(遺詩) ‘운명’¹⁷⁾을 떠올리게 한다.

구미란 무덤 순례길 일부는 인동장씨 문중 소유 임야를 사용하고 있다. 장마에 어그러진 순례길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는데, 가을비가 자주 내렸다. 약해진 지반으로 동학농민군 무덤 위에 소나무들은 통째로 부러지고 쓰러지는데 대나무만이 울창하다. 올해 김제시로부터 지원받은 기념사업비 7백 29만 원 중 2백 4만 원이 유적지 정화사업 인건비이다.

이름 없는 농민군 무덤들이 있는 6곳¹⁸⁾ 중에 표지판이 있는 임야(용호리 산 121)는 개인 소유이다. 본 사업회가 소유주로부터 받은 ‘매매의사 확인서’를 김제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제시가 매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진행에 진척이 없으니, 근래에는 소유주가 직접 공원녹지과와 문화관광과를 방문한 것으로 안다.

동학농민군 무덤으로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이다. 더는 미루지 않고 김제시가 동학농민군 무덤군이 있는 개인 소유 임야를 마땅히 서둘러서 매입해야 한다. 이제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어우러지는 추모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6) 김덕명 장군 납골당

2008년 5월 김덕명 장군 후손들은 묘 관리를 위해 안정골에 모셔진 장군을 가족 납골당에 합장했다. 그해 7월,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던 중 뒤늦게 이장 소식을 접했으나, 장군의 묘를 돌보지 못한 공동의 책임이 컸기에 시대 흐름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덕명 장군 납골당을 찾아간 참배객이 후손이 잠든

15 12월 21일 12시에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에서 점심 식사, 13시에 구미란 무덤에서 추모제를 올린다.

16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때 김제 미도광고사 정봉근 대표가 눈시울을 붉히며 기증했다. 빨간 장미 의미를 궁금해하는 질문이 많았다. 당시 정봉근 대표의 말을 옮긴다. “제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뜨거운 뭔가를 느꼈어요. 흰 꽃으로는 이 가슴을 담아내기 부족해서 아주 강한 빨간 장미로 새겼어요.”

17 「때가 오니 천지가 모두 힘을 같이 했건만/ 운이 다하니 영웅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의로움에 부끄럼이 없건만/ 나라 위하는 오직 붉은 한마음 그 누가 알리오.」

18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산121, 산122, 산119, 산627-1전,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0-3, 180-8

묘 앞에서 인증사진을 보내왔다. 사전에 미리 납골당에 대한 설명을 했어도 납골당 앞에 조성된 커다란 봉분이 병풍석까지 둘러 눈에 먼저 들어오는 호화로운 묘가 장군의 묘로 보여지는 것도 당연했다. 한자로 새겨진 비문에 관심 없다면 대개 그럴 수도 있는 민망한 상황이다. 빈번하진 않아도 우려스러운 일이었고, 급기야 향의 전화까지 받았다. 유족 측과 협의하고 참배객 안내를 멈춘 지 오래다.

더 늦기 전에 김덕명 장군 유해를 구미란으로 안장하는 예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김제 출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도 유족이 원하면 구미란으로 안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3. 김덕명 장군 관련 중요 유적지 활용 방안

김덕명 장군 관련 유적지 중심으로 김덕명 장군 생가, 원평집강소와 복합문화공간, 원평장터와 원평천, 위령각과 김덕명 장군 추모비, 원평 구미란 전적지와 이름 없는 동학농민군 무덤군, 김덕명 장군 납골당 등 현재 상황을 살펴보았다. 다행히 중요 유적지가 대부분 직선거리 1km 내에 인접해 있는 천혜의 환경이다.

이런 천혜의 역사자원이 차고 넘치는 지역에서 본 기념사업회가 20여 년이 다 되도록 활동하면서 안내표지판조차 제대로 서 있는 게 없고, 김제시 관광지도에도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성지인 원평집강소와 원평장터, 구미란 전적지가 너무 오랜 세월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한다.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과중한 일을 벌여놓고 그 속에만 매몰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지난 5년간 김제시로부터 지원받은 기념사업비는 학술세미나와 청소년축제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매년 8백 10만 원이었고, 올해 2025년도는 감액된 7백 29만 원, 내년 2026년도 예산 또한 삭감되어 6백 56만 1천 원으로 확정됐다. 그 외에 전북특별자치도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공모사업을 통해 별도의 선양사업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았다.

위 예산안에서 정월대보름 잔치를 시작으로 원평 구미란 전투 희생자 추모제가 열리는 12월까지 30여 개 프로그램을 잔칫날로 밥상을 차려낸다. 이웃들과 고군분투하다보니 기념사업 재간이 되레 단단해진 결과인지 모르겠으나, 유적지 현황 점검을 통해 기념사업의 외양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기념사업회 조직을 추진한 처음 마음이 ‘작게 만들어 적게 채우고 비워둔다.’는 신념으로 몽상가 수준의 출발이었다면, 이제는 법인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사업회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과제가 유적지 활용 방안이다.

2011년 「원평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 관리와 활용 방안」¹⁹에서 문화재 지정과 유적공원 등이 아래와 같이 제안될 때에는 사실 공감하지 못했다. 면 단위 소재지 중심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들로 인해 이웃들의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좁은 생각이 앞섰다. 지나고서야 기우였음을 안다.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은 김제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유적공원으로 조성하면 좋을 듯하다. 이를 위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홍보관 건립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필수적이며, 특히 재정 자립도가 약한 김제시의 경우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 문화재의 지정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전적지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며, 김제시의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전라북도기념물 정도의 문화재 지정은 가능하다.²⁰

위 마지막 문장, 김제시의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그렇다. 김제시의 관심과 의지 문제다. 이제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김제시가 관련법을 근거해 아래와 같이 유적지를 정비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1) 김덕명 장군 생가터를 매입해 생가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
- 2) 원평집강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부지를 확장하고, 복합문화공간 본래 기능을 위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 3) 원평 관련 권역사업²¹은 동학농민혁명사와 지역사를 기반해야 역사의식이 단절되지 않는다. 지금 원평장터를 찾아오는 탐방객이 답이다.
- 4) 김제시는 동학농민군 무덤군 부지를 매입하고 김덕명 장군 유해를 이장해 참배객들이 마음껏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 5) 동학농민혁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 원평 구미란 전적지 추모공원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김제시가 용역사업 예산을 세워야 한다.
- 6) 관련 유적지 안내표지판과 김제시 관광지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추모공원 조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결코 무겁지 않게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추모공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문중

1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편,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2011.

20 이상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편, 「원평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2011, 50쪽.

21 현재 김제시가 원평공설시장 5일장터 활성화 방안 연구 기초 용역 사업 추진 중이며, 금산지구 도시재생 원평공용터미널 부지 활용을 위한 인정 사업 준비 중에 있다.

소유 임야까지 임대해서 벌초도 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꽃이 피는 공원이 만들어지면, 금산면 중심 원평장터에 사계절 사람이 몰려오고 오일장은 상설시장이 될 것이다. 정읍 구절초축제,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축제가 자연생태를 훼손하지 않고 꽃과 나무로 경관정원을 조성했다. 그곳들은 축제 기간에만 장이 서지만 원평은 이미 맛집과 전통시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김제시가 원평사람들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서 용역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4. 맺음말

지역마다 엇비슷한 기념사업을 굳이 추진해야 하는지, 어느 곳에 가도 감흥 없이 만나지는 조형물을 구태여 우리 동네에서까지 소비해야 하는지, 여기저기에 ‘기념공원’이라고 정해두는 공간을 굳이 또 만들어야 하는지, 유형이 무형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지, 지금까지의 방안이 최선인지, 현재의 기념사업은 바람직한지, 항상 고민한다. 기념사업 초기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무게로 고민이 증식된다. 이처럼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김덕명 장군 관련 유적지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고민했다.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가 특별법에 마땅한 기념시설 건립과 유적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유적지 자료를 「김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준용한 보존관리로 지금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김제시가 금산면이 살아갈 수 있는 원천으로 원평 구미란에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면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원한다.’는 한강 작가의 깨달음처럼 지나온 역사 속에 박제된 동학농민혁명이 아니라 지역이 생동하는 문화자원으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상세계로 가는 길에 들렀던 저잣거리, 온 종교 순례자들의 성지였던 원평장터가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어우러져 상생할 수 있는 꽃동산이 되기를 희망한다.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토론문

김양식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

김제는 지리적 위치상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지역으로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진 곳이다. 현재 확인된 유적지는 모두 14곳으로, 그 가운데에는 김덕명, 김인배, 전봉준 등과 같은 주요 지도자 관련 유적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평집회, 1894년 11월 25일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구미란 전투지 등이 있어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주목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김제는 발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원평집강소라는 중요한 유적지가 있을 뿐 아니라,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활용 사례라 할 수 있다. 원평집강소는 앞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잠재적인 확장 가능성도 매우 높은 만큼 이를 중심으로 다른 유적지와 연계 활용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큰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발표자가 제안한 김덕명 관련 유적지에 대한 6개 기념사업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발표자가 제안한 기념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활용을 위한 여러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아카이빙과 국가유산 지정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 및 구술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이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김제 지역 유적지로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원평집강소가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아카이빙 구축 단계부터 국가유산 지정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만 한다.

둘째, 지역 자원으로서의 유적지 활용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체계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때 지자체는 물론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이미 원평집강소 사례에서 증명된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지역 자원으로 활용되는 방향은 크게 지역 정체성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에 일정한 울림과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하며, 후자는 대중적인 콘텐츠 원형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김제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중요한 지역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김덕명 외에 전봉준, 김인배와 같은 출중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서사도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지역 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쓰임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울림과 메시지가 있는 서사 발굴

서사, 즉, 이야기는 대중성을 확보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울림과 메시지가 있는 문화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다. 원평집강소가 매력적인 것도 백정 동록개 서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적지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적극 발굴하고 그것을 스토리텔링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스토리텔링의 힘은 입증된 바이다. 스토리 기반이 확보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소설, 그림책, 답사길, 창작 공연 등과 같은 성공적인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

현재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14개 가운데 인물 관련 유적지 6개, 집회 장소 2개, 전투지 1개(구미란), 기타 5개 등이다. 이들 유적지를 개별적인 점으로 볼 경우 전략적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일정한 맥락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활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 가운데 눈여겨볼 유적지는 김덕명, 김인배, 전봉준 관련 유적지이다. 다른 어느 것보다 잠재적인 서사가 풍부하며 대중성을 확보하기 쉽다. 그 밖에 어유동 동학농민군 가마터나 팔정 동학농민군 유숙지 등도 서사화할 수 있는 대중적 소재가 많은 만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 단위 접근이 필요하다. 면 단위란 곧 공간 읽기이다. 다시 말해 김제 지역 동학농민혁명과 그 유적지를 통해서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하는 현재적 가치와 메시지이다. 이 여하에 따라서 유적지에 대한 해석과 서사화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말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는 ‘동록개’로 상징되는 ‘평등’ ‘상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김덕명 관련 유적지는 금구면 1km 반경 안에 6개가 집중 분포해 있기 때문에, 김덕명을 서사의 중심에 놓아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김덕명 관련 이야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연계 가능한 지역자원 발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활용을 위해서는 유적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활용 가능성이 낮아질 뿐 아니라, 확장성도 떨어진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연계 가능한 지역 자원과 묶어 서사화해야 한다.

특히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금구면과 금산면에 집중되어 있다. 14개 유적지 가운데 금구면에 4개, 금산면에 8개가 있는 만큼, 원평집강소와 김덕명 생가터가 있는 금산면을 동학의 고향으로 특화시킨 뒤 동학농민혁명과 맥락을 같이하는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콘텐츠를 개발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원평집강소를 중심으로 동학축제를 개최, 다른 유적지와 연계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금산면의 마을 축제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또는 금산면에 있는 금산사, 수류성당, 증산교 유적지 등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맥락이 닿는 부분이 있는 만큼 상호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평장터는 발표내용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비해 원평장터를 활성화하기가 보다 용이한 만큼 전략적으로 원평장터를 활성화하면서 유적지를 연계시키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원평장 개설, 맛집 발굴, 지역 상품 개발, 원평 장터축제 등을 펼치면서 유적지 탐방이나 문화행사를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

여섯째, 연대와 협력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지속 가능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활용 주체가 중요하다. 특히 유적지 활용은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용이하지 않은 만큼 장기적으로 활용사업을 이끌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며, 다양한 접근과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서는 뜻을 같이하는 여러 주체가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킹 구축이 필수이다.

따라서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활용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문화기획자, 로컬크리에이터, 예술인 등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유적지가 밀집되어 있는 금구면과 금산면에 거주하는 주민, 이차적으로는 김제 지역민, 멀리는 전국적인 연대와 협력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최고의 대표가 이끄는 원평집강소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연대와 협력체계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하며, 그런 의미에서 발표자의 시행착오나 경험담, 또는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고견을 듣고 싶다.

일곱째, 거버넌스

마지막으로 유적지 활용 주체, 지역 주민, 지자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는 집강소 정신이기도 하다.

현재 원평집강소에는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김제시는 동학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단적인 예로 김제시 시정 방침은 물론 2025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시책에도 동학 관

런 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김제시티투어코스에도 동학 관련 유적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홍보영상과 관광지도에도 동학 관련 내용은 없다.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동학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으로 보아 김제시의 동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김제시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지역단위의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집강소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끝으로 거버넌스 기반 유적지 활용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국가유산청에서 시행하는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청(2026년 지원건수)은 매년 생생국가유산사업(135), 향교서원 활용사업(95), 국가유산 야행사업(55), 전통산사 활용사업(46), 고택종갓집 활용사업(48)을 지원하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원평집강소가 시도기념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지원 가능하다.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므로 큰 규모의 사업도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평집강소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유적지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할 경우 더불어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25 김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김덕명과 김제 동학농민군의 활동

총괄: 김양식(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기획: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최고원((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진행: 이현명·정유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인쇄: 2025년 11월 03일

발행: 2025년 11월 06일

발행처: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063-543-189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063-530-9434)

©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5

편집인쇄: 흐름(www.heureum.com)

본 학술대회와 자료집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비매품〉